

동과 서의 두 장정이 만나 세운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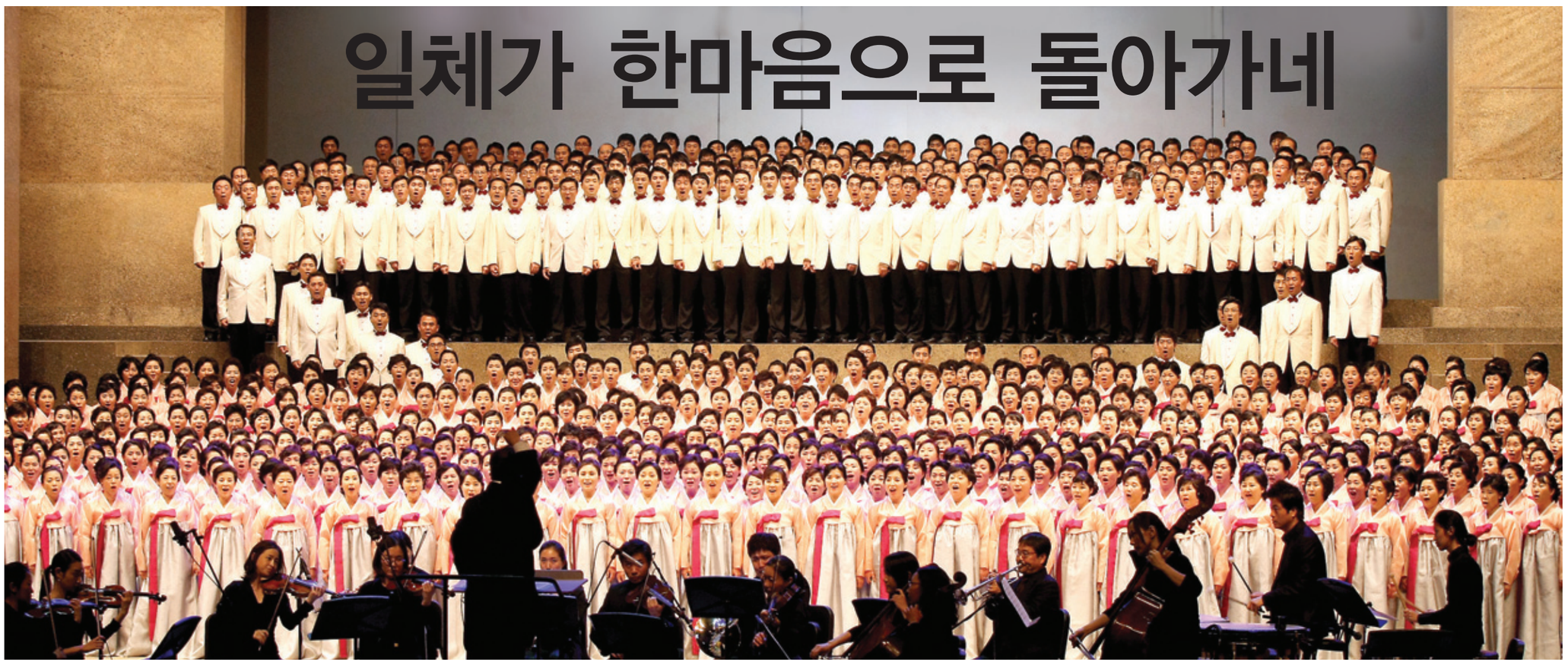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忠州 塔坪里 七層石塔)
국보 제6호 ▶2면

현대불교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화해
끝이 없나니 이 이치 깨달은 현명한 사람은
악을 돌이켜 복을 만든다. - 법구경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63호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음력 10월 28일 · 불기 2555년 · 주간)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한마음음악제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한마음음악제'가 1만여 청중에게 큰 법열을 전하고 성료됐다. 1300명이 무대에 오른 이번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 지원에 쓰인다.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은 12일 첫 공연 후 리셉션에서 "공생 실천이 절실한 때에 그 뜻을 음악으로 전하니 그 울림이 더욱 감동적이었다"며 출연진과 관계자, 동참대중에게 "힘 모아 소원성취 하십시요"라고 축원의 박수를 보냈다.

12일 첫 공연에는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 이계진 前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기사 12 · 13면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심각한 돈교 폐해 … 연기에 답 있다

[錢] (緣起)

윤성식 고려대 교수 주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돈을 믿는 돈[錢]교'이다.

세계 곳곳에서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불교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11월 16일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중앙종무기관 대중강연회에 참석해 불교가 시장과 자본은 허용하면서도 이기심과 탐욕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도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 "현대인들의 으뜸가는 종교는 '전지전능한 돈을 믿는 돈[錢]교'이다. 돈교가 노출한 문제점인 현대 시장자본주의는 인간을 존중하는 윤리를 실종하고 재벌기업과 강자 중심으로 경제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식 교수는 불교가 재물과 무관하다는 일반적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석가모니 당시 상공업자들은 부처님의 가장 열렬한 후원자였으며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자를 인정하고 금융업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이를 '연기자본주의'로 설명했다.

윤성식 교수는 "불교자본주의는 '연기자본주의'이며, 불교경제윤리와 불교자본주의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불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연기(緣起)'를 이해하면 인간, 기업, 사회, 정부, 세계가 모두 연기적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연기적 관점에서는 특정 대기업이 경제를 장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두가 공생공존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해외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내 기업을 보호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이러한 연기적 관계로 공생을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엄청난 이익을 남긴 기업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 정부가 국민 세금(구제 금융)으로 기업을 살린다. 이익이 나면 독점하고 손실은 사회적 공유로 돌리는 것은 불합리 하다. 이익도 초과 이익에 한해서 사회적 공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식 교수는 "인간의 이기심과 역량을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떤 대안도 불가능하다"며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이 어리석음과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불교경제윤리 8원칙 등 불교 교리에 기반해 상세한 실천윤리를 제시했다.

윤 교수가 제안한 불교경제윤리 8원칙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라 ▷소비자를 위해 자리이타적 생산 활동을 하라 ▷정념(正念)을 지닌 경제의사결정과 행위 ▷정견(正見)을 지닌 경제의사결정 ▷자리이타와 자비의 경제윤리 ▷무아적 소유·경쟁·분배의 경제윤리 ▷중도적 경제행위 ▷절제의 경제윤리 등이다.

윤성식 교수는 "연기자본주의를 단순하게 말하면, 부자에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중산층과 기업은 절제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에겐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동등하고 공존적인 연기적 경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단지 물질적인 복지 혜택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가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조계종 원로스님들 선거법 개정 요구

종단의 원로·지도급 스님들이 문경 봉암사에서 11월 7일 열린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 1차 자문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스님들은 '중대 결단' 등을 언급하면서 현행 금권 선거와 계파 중심 선거 풍토를 지적했다. 또한 스님들은 총무원장 직선제 등 개선 방안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안 스님은 16일 소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원로스님들의 공정한 선거에 대한 요구가 높다.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진각종 제11대 성초 총인 추대법회

24일 오후 2시 총인원서

진각종 제11대 성초 총인의 추대법회가 11월 24일 오후 2시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봉행된다. 이에 앞선 23일 오후 총인원에서는 〈종조법어 실행론〉 봉정식과 제11대 성초 총인 법통 승수 의식이 진행된다.

성초 총인은 10월 25일 진각종 원로회의기구인 인의회(의장 도흔) 회의에서 5년 임기의 총인(조계종의 종정 격)으로 추대됐다.

진각종 제11대 총인으로 추대된 성초 정사는 제3·4·5·6·7·8·9·11대 종의회 의원과 제6대 중앙교육원장 겸 진각대학장, 제25대



통리원장, 제12대 종의회 의장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남부심인당 주교를 거쳐 현재 혜원심인당(서울 서교동) 주교로 있다. 1999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 조동섭 기자

티베트에 자유를

조계종, 이례적 논평 발표

자유와 독립을 촉구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계종이 애도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이 티베트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계종 대변인 정만 스님은 "티베트 스님들이 연이어 독립과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분신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조계종 종도들은 깊은 안타까움과 연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단은 티베트 상황에 대해 같은 부처님 제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티베트 스님들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은 보장돼야 하며 티베트의 인권상황 역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만 스님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 대화와 타협으로 티베트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863호 CONTENTS

종단 2
관문사서 한일불교교류대회
재가자 그룹 불교포럼 발족
성호 스님 총무원 청사 앞 1인 시위

인터뷰 3
포교원장 지원 스님

학술 6·7
천태종 국제학술대회

특집 12·13
한마음음악제



현장속으로 22
국제선센터 개원 1주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www.hyunbulshop.com

한·일 불교교류 32주년 기념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등에 힘을 모은 한 · 일 불교계가 교류 32년을 맞아 종교간 화합과 평화 구축에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시 쇼겐)는 11월 14~16일 제32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서울 관문사 등에서 개최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매년 5월 경 개최됐으나 올해는 동일본 대지진 및 우면산 수해 피해로 인해 11월로 연기 · 개최됐다.

양국 불교계는 1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환영만찬을 연데 이어 15일 서울 천태종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본행사를 진행하고 종교화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제32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법회는 그동안 진행됐던 양국 의식 봉행 대신 〈반야심경〉 봉독과 양국 회장 스님의 헌화, 육법공양 등 약식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양국 불교계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 할 수 있었다"며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는 종교간 갈등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공존과 상생이라는 불교정신으로 갈등을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대회는 불교를 통한 양국의 문화교류와 갈등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일한 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해소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지난 천재지변으로 인해 국가와 인종을 넘어 모든 대중이 화합 공동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불교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대회를 계기로 세계인들이 평화와 화합이란 하나의 바다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불교계 대표단은 본행사에 이어 '종교간 화합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6일 제30회 한일불교교류대회에서 여주 조계종 신륵사에 건립한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참배하고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해 교류행사를 이어갔다. 교류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자승 스님과 이사장 정산 스님, 부회장 인공 · 홍파 스님과 혜정 정사, 부이사장 남정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일면 스님, 최광식 문화관광부장관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이사장 니시오카 료오코 스님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최광식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해 지난 대회에 불참한 유인촌 前 문화관광부장관과 대조를 보였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교 인적 네트워크 하나로 엮는다

조계종 각계 150여 인사로 내년 1월 31일 불교포럼 구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조계종 종책 자문을 비롯한 불교의 사회적 실천행을 전개할 '불교포럼'(가칭)이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포럼' 추진위원회 위촉 및 발족식을 개최했다.

불교포럼 추진위원회는 크게 법조 행정부 경제 교육 등 14개 분야로 분야별 1명의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집행위원들은 구성한다. 불교포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계를 망라한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돼 2012년 1월 31일 발족해 분야별 모임 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불교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발족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위원 소개 및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포럼 추진위원 명단

지도위원(분야)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공기관),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법조), 김장실 예술의전당 사장(문화예술), 김종규 삼성출판사 명예회장(출판),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 (교육),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청와대),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경제), 박진열 한국일보사 사장(언론), 설동근 교육과학부 제1차관(행정부), 성상철 한국병원협회장(의료), 이기흥 대한수영연맹회장(체육), 탤런트 이정길 씨(대중문화), 이택순 前 경찰청장(경찰), 최용림 국방부 특별검열단장 · 육군중장(군)

집행 지도위원

김종호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복동 동국대 석좌교수.

집행위원

권범선 동국대일산병원 재활의학과장(보건의료), 김봉석 변호사(법조), 김혜옥 방송인(대중문화), 박기련 조계종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총괄), 박상관 동국대 대외협력실장(교육), 성기홍 대한체육진흥공단 본부장(체육),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장(언론), 조문배 불교방송 경제부 기자(경제), 임명배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공공기관), 윤재웅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교육), 한명우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행정관(청와대)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⑤**

동과 서의 두 장정이 만나 세운 탑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忠州 塔坪里 七層石塔)
국보 제6호
통일신라



충북 충주는 중원문화권 중심도시로 국토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중원경, 고구려 때에는 국원성으로 불렸다.

충주에 자리 잡은 탑평리7층석탑은 국보 제6호로 현존하는 신라시대 석탑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높으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앙부에 위치해 오래 전부터 중앙탑이라 불렸다. 8세기 후반 함경도까지 영토를 차지한 통일신라 원성왕(785~798)은 신라 영토의 중앙지점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의 남과 북 끝에서 건강한 남자를 동시에 출발시켜 만난 지점(충주시 가금면)에 이 탑을 세우고 중앙임을 표시했다는 전설이 있다.

탑은 2단의 기단(基壇) 위에 7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이다.

높은 탑신을 받치기 위해 넓게 시작되는 기단은 각 면마다 여러 개의 기둥 모양을 새겨 놓았다. 탑 정상의 머리장식은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이중으로 포개어진 똑같은 모양의 받침돌이 머리장식을 받쳐주고 있다. 기단에서의 기둥조각 배치, 탑신의 몸돌과 지붕돌의 짜임수법으로 보아 통일신라 후기인 8세기 후반에 세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1917년 탑을 보수할 때 6층 몸돌과 기단 밑에서 사리장치와 유물이 발견됐다. 특히 6층 몸돌에서 발견된 거울이 고려시대 것으로 밝혀져 탑 조성 이후 고려시대에 와서 2차 봉안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문화재청장 맞아 민원 쏟아내

문화재 개보수 전담반 구성, 문화재별 균형 예산 등 요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김찬 문화재청장(사진)에게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사찰문화재 관리 등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14일 예방한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불교문화재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 창달에 문화재청이 더욱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자리한 문화재위원 장적 스님은 "문화재 70%가 불교문화재인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찰문화재과를 비롯해 문화재 개보수 전담반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사찰 문화재 예산과 궁능 문화재 예산의 형평성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연등회 국가지정문화재 추진이 아쉽다. 중국은 발 빠르게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찬 문화재 청장은 "충분히 수렴하겠다. 특히 연등회 문제는 유념하고 있으며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종단 잘못됐는데 다들 침묵한다

멸빈 당한 성호 스님, 총무원청사 앞 1인 시위 나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가 거짓이라며 사회법에 제소해 멸빈 당한 성호 스님(前 금당사 주지)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 우정국 공원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성호 스님은 11월 18일 우정국공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의장, 호계원장, 중앙종회의장 등 총무원장의 잘못을 경책할 위치에 있는 스님들이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다. 참담한 현실을 혁파하고 종단 운영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고자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승적 조작, 비구계 미수지자의 종무직 배제 ▷관악산 연주암, 서울 화계사 · 수국사, 설악산 봉정암, 낙산사 홍련암 등의 직영사찰 지정 ▷사바라이 파계승의 산문 출송 ▷종단내 폭력행위 근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해체 ▷분규 멸빈자 사면복권 ▷원로회의 및 중앙종회 해산 ▷명예원로의원 중 종정 추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처벌 ▷본인에 대한 징계 철회 등 11가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이날 성호 스님은 "나는 조계종단으로부터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대한민국 법원을 통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과 징계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징계무효를 확정 받은 국법으로 보호받는 조계종 승려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호 스님은 조계종과 경찰 등을 상대로 총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박구원 만평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2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생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어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 되어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신입학, 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각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불교무용(작법)	바라춤/나비춤	수	오후 1~7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상단/영단	월	오후 1~7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 1~4	재학생 졸업생

학 점 은 행 제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영산재의례절차I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범패실습I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재의례절차II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작법실습	작법과정	수	오후 1~7	30
영산재의불교 예술적특징	불교음악&무용	화	오후 1~4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약간명

■응시자격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교역자 및 일반인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 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분, 반명함판 사진 3매
◈편 입 학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형일정 : 2012년 1월 16일 ~ 2월 24일**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 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옥 천 범 음 대 학
2011년 동계방학 특강안내

과목	생전예수재	법 고
교수	마일운 스님 (영산재보존회 회장)	이기봉 스님 (옥천범음대 학장)
기간	12월 19일~ 2012년 1월 17일(5주) (매주 월요일 , 수요일)	12월 20일~ 2012년 1월 18일(5주) (매주 화요일)
시간	오후 3시~5시 (2시간)	오후 1시~5시 (4시간)

※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특강 수강신청서 1부 (행정실)

접수문의 : 02) 392-3234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학장 이 기 봉 합장

“포교는 하면 할수록 매력있다”

제6대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는 환희와 놀라움, 감동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제6대 포교원은 경이적인 놀라움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포교를 해나갈 것입니다.”

제6대 포교원장으로 임명된 지원 스님이 11월 26일 취임식을 앞두고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교원의 지표를 밝혔다. 스님은 “출가해서 마지막으로 득도한 후, 회향하는 기분으로 임기를 보내겠다”며 “백척간두진일보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맡은 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선수가 99%만 노력해서는 1등을 할 수 없듯, 마지막 1%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임기를 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원 스님은 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진행해 왔던 기존의 정책들은 빠짐없이 6대에 이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5대에 미처 진행하지 못했던 미디어 포교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 공간을 초월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 역시 현대에 사용되는 소셜네트워크(SNS)와 같은 맥락입니다. 2012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지원 스님은 이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스님은 불자들을 비롯한 신도단체회원들과 1만명 팔로어 맺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스님은 “포교도 시대와 계층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포교원 종도들을 비롯해 포교원 산하 단체가 소통이 돼야 한다. 이 시대야 말로 포교하기 가장 쉬운 시대이다. 소통이 되면 포교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종단에서 2~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계층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소통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 스님은 사회에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불교가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이혼, 자살, 알코올중독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이런 문제를 근절할 때 불교계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30여 년 가까이 현장에서 포교활동을 진행해 왔던 지원 스님은 자신이 포교현장에서 가장 잘한 일로 ‘어린이 · 청소년 법회’ 개설을 꼽았다. 30여 년 전 처음 15평짜리 임대법당에서 포교를 시작했던 스님은 “처음에는 포교의 ‘포’자도 몰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인근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볼펜으로 직접 쓴 ‘공부 잘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3명의 학생들이 법당을 찾았다.

‘백척간두진일보’ 하는 마음가짐 지킬 것
제6대 포교원은 미디어 포교에 중점둘 것
포교는 감동과 놀라움이 있어야 완성돼
가려운데 긁어주는 꼭 필요한 포교하고파

“학생들에게 진짜 공부 잘하는 비법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정신을 만들어 줬습니다. 스님들이 강원에서 교육받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교육시켰습니다. 정신집중을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매일 108를 했습니다. 그러자 반에서 30등 하던 학생이 10등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 성적이 올랐습니다. 점차 입소문이 퍼져 1984~1985년도에는 100명의 아이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스님은 그 후 15평 짜리 법당에서 50평짜리 법당으로 옮기게 됐다. 아이들이 점차 모이자 학부모들도 함께 스님의 법당을 찾았다. 그 계기로 삼보사와 육지장사가 창건됐다.

스님은 “어린이법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임대료를 낼 돈이 없어 겨울에 중부시장에서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김을 팔기도 했다.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길에서 전법을 시작해, 길에서 생을 마쳤듯이 포교는 직접 찾아다니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외에, 문화포교에도 힘썼다.

“삼보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서 1994년도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지방순회공연을 다녔습니다. 당시 100여 명의 어머니합창단과 30명의 관현악단을 구성해 3년 동안 공연을 다녔습니다. 가수는 사람들에게 노래로서 순간 감동을 줍니다. 문화포교야 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포교 중 하나입니다.”

당시 스님은 이런 공연들을 통해 찬불가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지원 스님은 “나이가 들어도 포교할 때 가장 마음이 설렌다”며 “하면 할수록 매력 있는 것이 포교다.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포교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종단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5대결사가 포교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11월 14일 제6대 포교원 집행부를 구성했다. 포교부장에 송묵 스님을 임명했으며, 신도국장에 법상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혜안 스님을 임명했다. 포교연구실장에 법상 스님, 포교국장에 남전 스님은 유임됐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포교원장스님의 뜻을 잘 받들어 전법홍포에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날마다 좋은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은 “환희롭고 경이로운 포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후, 원광대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경기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도국장 법상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법천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혜안 스님은 울산사암연합회 부회장, 울산불교대학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원 스님이 창건한 육지장사는 …

지원 스님은 196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강원졸업,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을 졸업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교무국장, 포교국장을 역임했다. 1991년 삼보사를 창건한 이후, 1999년 육지장사를 창건했다.

지원 스님은 현재 육지장사 회주를 역임하고 있다. 육지장사는 양주 도리산에 위치한 사찰로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육지장보살을 모신 지장도량이다.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계와 축생계, 아귀계와 지옥계 등 육지장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도량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육지장사는 비만 · 만성피로 등을 해결하는 체험형 다이어트 템플스테이, 심신개선을 위한 전문단식 템플스테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기업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리더십 템플스테이 등 이색 템플스테이로 일반불자는 물론 인기 연예인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다.

7월에는 KBS ‘미녀들의 수다’의 브로닌, 에바, 비앙카, 따루 등이 육지장사를 방문해 1박2일 동안 108배, 발우공양, 명상, 쑥뜸체험 등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원 스님은 “육지장사의 템플스테이는 1700년 전통을 이어온 산사의 건강법을 현대인의 근기에 맞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불교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통해 현대인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어 가장 좋은 포교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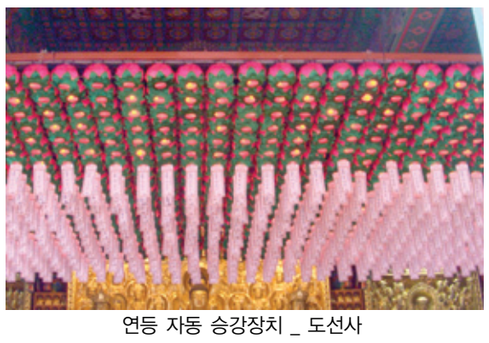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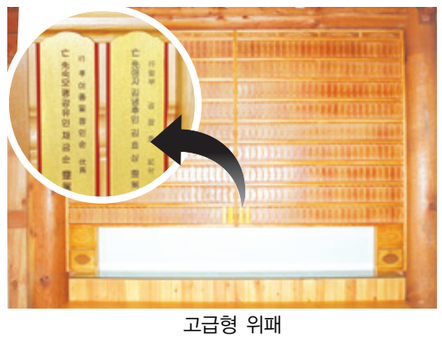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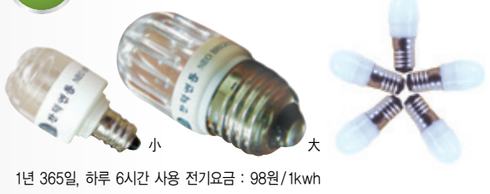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일 주 문



송광사 제7회 금강산림법회

BTN 이사장 성우 스님은 12월 2일 순천 송광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월정사 전나무 숲 생명상 수상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최근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숲 전국대회 최고상인 생명상을 수상했다.



마곡사 김장배추 보시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11월 25일 김장배추 나눔한마당을 열고 소외계층에 김치 5000포기를 전달한다.



해인승가대 동문회 16대 회장

前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1월 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해인승가대학 동문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수덕사 예산산림문화축제 개최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11월 12일 제6회 예산군 산림문화축제에서 '원효깨달음의 길' 개통 기념 숲길 체험을 개최했다.

문도회 화합과 종단 발전 당부

조계종 원로의원 혜정 스님 12일 입적…16일 원로회의장 거행

서울 도선사 조실 보광당 혜정 스님이 11월 12일 서울 도선사에서 입적했다. 법납 64년, 세수 81세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대종사인 혜정 스님 영결식은 11월 16일 도선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혜정 스님은 "내 바랑 속에 내 살림살이를 적어 놓았으니, 내가 떠나고 나면 보라"며 임종게를 남겼다.

조계종 총무원은 "보광당 혜정 대종사는 입적에 들기 전 종단의 발전과 청담문도회의 화합을 당부하고, 사제들과 조카 상좌들이 '스님 후학들을 위하여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빙그레 미소를 보였다"고 전했다.

영결식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주요 스님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혜정 스님은 언제나 후학들에게 수행자의 위의를 강조하고 시은은덕과 근검절약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혜정 스님은 1948년 문경 봉암사에서 종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1949년 봉암사 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 했다. 중앙종회의원과 대구 동화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 11월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2008년 10월 해인사에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은사인 청담 스님을 비롯해 성철 · 한암 · 서옹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에게 가르침을 얻었으며 북한산 문수사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특히 스님은 생전 27년에 걸쳐 중창한 북한산 문수암에 주석하며 등산객들에게 점심공양을 대접하고 즉석에서 법문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혜정 스님 열반게

今日去捨身(금일거사신)
無形唯一人(무형유일인)
三角山前舞(삼각산전무)
石人笑點頭(석인소점두)

오늘 이 몸을 버리고 가는
형상이 없는 오직 한 사람이
삼각산 앞에서 춤을 추니
돌사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네

혜정 스님 행장

1948년 경북 문경 봉암사에서 청담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9년 봉암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58년 8월 공주 동학사 불교전문 강원에서 운허 스님으로부터 초등과 사교과 수료
1959년 해인사 재무국장
1959년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 수료(2회)
1960년 총무원 교무국장
1963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3년 중퇴, 한태불교협회 문화부장
1964년 태국 삼프라야 불교대학 1년 수료
1979년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
1980년 6월 대구 동화사 주지
1981년 2월 중앙종회 의원
1981년 3월 국제포교사
1983년 서울 직할교구 문수사 주지(현재)
1986년 3월 서울직할교구종회 부의장
1995년 3월 민주평통 자문위원
2001년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의원겸 종로구 고문, 법무부 교정의원(현재)
2003년 2월 도선사 호국참회원 원장,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
2006년 도선사 조실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의원
2008년 대한불교조계종 대종사 품수

매일 50여 시민에 무료 침뜸

여수 자비정사 우암 스님

"힘든거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플 틈도 없어요."

나이 70세이 넘으면 흔히 고희(古稀), 종심(從心)이라 하여, 예로부터 '70세가 되면 뜻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여수 자비정사의 우암 스님(사진)은 칠순을 훨씬 넘는 나이에도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스님의 활동은 교통자원봉사, 범죄예방활동, 뜸, 부황 등 다양하여 이미 전남도지사, 광양시장, 광양경찰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우암 스님은 최근 5년 전부터 어린 시절 은사스님으로 부터 배운 뜸과 부황으로 인근 시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봉사의 의미에 대해 "사찰의 이름을 자비정사로 지으면서 자비실천을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비는 몸으로 하는 실천이다. 자기 스스로 회향하는 마음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경남 남해에 있는 사찰을 정리하고,



전남 여수의 봉산초등학교 입구에 허름한 2층집을 얻어 사찰을 꾸미고, 매일 50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뜸과 부황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무료봉사가 입소문이 나 하루종일 쉴 틈이 없다고 한다.

우암 스님이 이런 남다른 봉사활동을 한 계기는 스님 스스로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 누구보다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힘든 유년생활을 보낸 이력에서 나온것이다. 특히 스님은 전쟁고아로 나주 금성사에 출가했다. 은사스님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학문을 많은 이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불자 곽영진 문화체육비서관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곽영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4)을 내정했다.

곽 내정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불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예술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곽영진 비서관의 후임으로 김석붕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47)을 내정했으며 기획비서관에 신용출 선임행정관(46)을 내정했다. 또 행정자치비서관에 윤한홍 대통령실장실 선임행정관(49), 위기관리비서관에 최수용(55) 한국해양대 초빙교수를 내정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바로잡습니다 지난 862호 4면에 보도된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혜향 스님 기사 중 2012년 1월 1일로 보도된 신임회장 취임식을 2011년 12월 20일로 바로잡습니다.

박경석 · 미셸 카투이라 제17회 불교인권상 수상자 선정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사진)와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이 제17회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는 11월 11일 선정 소식을 전하며 박경석 대표에 대해 "척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향상을 실천해 온 활동가"라고 소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7년 출범한 장애인 권익보호 단체다.

이와 함께 불교인권위원회는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해 "2009년 이주노조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이주민 인권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2006년 한국에 온 필리핀 출신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은 지난 해 7월 이주노동자 노조 제5대 위원장에 선출됐다.



미셸 위원장은 합법노동자임에도 사업장 휴업으로 '허위취업자'로 분류돼 강제 출국당할 뻔 했으나 법적 투쟁 끝에 9월 법원으로부터 출입국사무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은정 기자**

한국불교학회 '학술진흥상' 최우수상 차차석 교수

차차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사진)가 2011년도 한국불교학회 학술진흥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17일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차차석 교수에게 학술진흥상 최우수상을 이성운(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씨에게 우수상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김용표 한국불교학회장은 "차 교수의 〈섭산계 삼론사의 정혜쌍수설과 교관겸수설 비교〉 논문이 불교가 토착화되는 과정을 잘 정리한 논문"이라며 "삼론종 스님들이 중도와 이제의 논리체계를 살려 정혜쌍수설을 정립하였다는 구상이 새롭다"고 평가했다.

차차석 교수는 "상 수상을 계기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이성윤 씨의 〈한국불교 공양의식 일고〉 논문에 대해 "종래 한국불교의 공양의식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새롭게 조명한 논문"이라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교육원 국장급 인사

교육국장 가섭, 연수국장 진광 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11월 14일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교육원 신임 교육국장 가섭 스님, 연수국장에 진광 스님,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는 석중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1년 범어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집행위원장,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연수국장 진광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4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총무원 사서실 사서를 역임했으며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소임을 맡아왔다.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석중 스님은 덕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97년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2년 직지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노덕현 기자**

한글법요와 전통작법으로 올리는 특별 합동 천도재 안내

12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단순히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수준의 세계와 시간의 흐름을 합한 것입니다. 즉 세(世)는 시간의 흐름을, 계(界)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생이 스스로의 명상수행에 의해 존재의 수준(grade)을 높여(up)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열린선원에서는 부처님 깨달음 얻으심 2600주년 성도절을 맞이하여 약2개월 동안 지장기도로 정진하며, 성도절 전야에는 밤샘참선 정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삶의 질곡 속에 지쳐 명상수행 할 용기와 결심을 갖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천도재는 부처님 또는 보살님 그리고 선신들과 스님들과 재를 지내는 후손들의 노력으로도 수행에 의한 수준높임(up grade)이 가능하여 그 결과 고통이 없는 극락(極樂)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다, 추천한다는 뜻의 천(薦)과 제도한다는 의미의 도(度)를 함께 붙여 천도(薦度),3업을 맑힌다하여 재(齋)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선원에서는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하여 특별 합동 천도재(薦度齋)를 봉행하여 동참재자들의 조상님과 자매질손, 배우자, 태중영가를 천도하고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천도재는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과 함께 전통작법과 회심곡을 시연하므로 매우 뜻 깊고 풍성한 천도재가 될 것입니다.

동 참 비
자율보시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1, 역촌중앙시장 2층(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근처)

저자거리 열린선원 원장 무상법현 합장

문의 및 접수 : 02)386-4755
opentemple@hanmail.net

이도 저도 아닌 석단 디자인 이제 그만 사라져야

석단(2)…나쁜 사례

한국사찰에서 석단이 중요한 경관요소라는 것은 석단이 나타나는 빈도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전통사찰에 축조된 석단을 살펴본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석단 디자인에 관련된 것으로 디자인이 똑같은 석단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찰이 가진 지형적 특징이나 석단이 축조되는 장소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사찰을 확장하거나 과거의 석단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축조되는 석단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사찰경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재료 · 기술 · 형태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료상의 문제

전통사찰에 도입된 석단의 재료는 자연석이 일반적이었다. 그것도 사찰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산 속에 자리한 사찰들의 경우 못생기고 작은 돌을 가지고 석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찰주변에서 구한 돌은 그 사찰의 다른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흙이나 나무, 돌의 경우 환경이 같으면 색채나 질감에서 유사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축조되는 석단의 재료는 지난날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했던 운반으로부터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석재를 사용한 석단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물론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구입비가 적게 드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향토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것은 한국 고유의 경관을 만드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돌을 어떻게 가공하여 쌓을 것인가의 문제도 재료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지난날 능침수호사찰과 같은 원찰에서 볼 수 있었던 석단의 장대석처럼 잘 다듬어 쌓을 것인가 아니면 면만 골라서 쌓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작은 돌을 주워서 구조적 안정성만 고려하면서 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석단의 경관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돌을 가공하여 석단의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돌을 다듬어 사용한다든지 주변의 기단, 계단 혹은 담장에 사용한 돌과 전혀 다른 생김새를 만들어 석단의 재료로 사용하게 되면 부조화현상이 발생해 전통사찰의 경관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기술상의 문제

돌 쌓는 기술은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각 나라의 사찰경관을 차별화하는 원인이 된다. 뒷채움은 무엇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고, 아랫돌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위에 쌓아지는 돌과의 접합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석단의 수직고와 경사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와 같은 다양한 기술상의 문제는 석단의 디자인을 다르게 만드는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 부석사 불국사 화엄사 해인사 봉선사 용주사의 석단은 축석기술이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구조적 안정성을 기하고 자연석 소요량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그 위에 돌을 붙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석 석단에서 나타나는 장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백화현상이 나타나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더 나아가 보강토옹벽을 사용해서 석단을 만드는 경우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찰의 경관적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지혜롭지 못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양식상의 문제

석단의 양식은 사용하는 석단의 높이나 길이, 석단에 사용하는 돌의 색채와 질감, 돌의 크기와 형태, 가공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석단의 양식을 달리 만드는 이러한 제반 요소들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일 것이다. 특히 주변의 경관요소 가운데에서 돌을 사용한 것이 있거나 기존에 축조된 석단이 있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새로 도입하는 석단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에 전통사찰에 새로 축조한 석단 가운데에는 다른 사찰에서 디자인한 석단을 흉내내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고 과도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뚱맞은 석단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석단들은 석단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찰경관 전체에 영향을 미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치 석단은 사찰에서 중요한 경관요소인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석단이야기는 전통사찰에 도입되는 석단에 대한 것이다. 최근 도시에 새로 지어지는 현대사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만약 현대적 디자인에 의해 건축된 건물이나 조경요소들이 지배하는 현대사찰에 깊은 산속에서나 볼 수 있는 석단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기능성이나 경제성 그리고 경관성 측면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현대적 개념의 도시사찰의 경우에는 그러

불교적 상징성 담보된 경관 위해선
의식변화와 디자인 보는 안목 필요

한 디자인에 어울리는 석단이 만들어져야 어울릴 수 있다는 말이다. 노출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면에 화강석을 붙인 건물이 주요소가 되는 사찰에는 역시 그러한 재료와 어울리는 현대적 재료, 현대적 공법에 의해서 석단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석단이 되는 것이다.

흔히들 전통의 창조적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하곤 한다. 건축이나 조경분야에서 현대사찰을 디자인할 때 건물은 어떻게 디자인하여야 하고 조경은 어떻게 디자인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전통의 창조적 계승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기능성이나 장소성이 현대적이라면 사찰의 디자인도 역시 현대적이어야 하는데, 스님들이나 신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현대적 디자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전통사찰과 현대사찰은 디자인적 접근 자체가 달라야한다. 각각의 사찰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 다르니 디자인이 같은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동의한다면 전통사찰의 석단에서는 전통성이 표현되어야 하고, 현대사찰의 석단에서는 현대적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사찰에서 실험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사찰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일은 남아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교적 상징성이 담보된 경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상징성은 꼭 전통적인 디자인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적 재료, 현대적 공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부대중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디자인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① 발파석을 사용한 석단 ② 일본식 돌쌓기 방식으로 축석한 석단 ③ 전통양식으로 보기 어려운 석단 ④ 전통사찰에 도입된 보강토옹벽 ⑤ 불국사 석단의 아류 ⑥ 무국적 양식의 석단



석단의 기본 전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다. 위 사진처럼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재료의 사용은 사찰 경관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기획PR]

"돌아가신 영가들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진정한 천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영가 강원교육 실천도량 **慈悲禪院**





밀양 상남면에 자리한 자비선원에서는 영가들에게 스님들이 교육받는 강원교재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흔히 영가천도는 영가를 청해 불보살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영가가 왕생극락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가에게 강원교육을 하고 있다니 그에 대한 궁금증을 원장이신 벽암스님에게 들어본다.

영가 강원교육이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재가자를 위한 불교대학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이 돌아가신 영가라는 것과 교재가 스님들의 강원교육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황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절에 모셔져 있는 영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변 스님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나에 대한 소신은 더욱 견고해지고 신도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가 강원교육만으로 천도가 이루어지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요. 우리들도 한번 교육받았다고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가들도 인연에 따라 깨치는 영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영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합동 천도재를 봉행하고 수시로 큰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청하여 영가가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해서 안되면 두번이고 세번이고 공부시켜서 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재가불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신도들도 영가와 마찬가지로 구분 없이 강의를 합니다. 다만 신도들은 절에 와서 강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거리상 직접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교재와 강의 테이프를 보내드립니다. 각자 테이프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게 있으면 절로 전화나 메일로 질문하면 답해드리고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집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간은 매일 2-4시간씩 1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영가 강원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몇 년 전부터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문득 영가들은 천도재를 지내면 모두 천도가 이루어지나 하는 의문이 들더라구요. 물론 대부분 천도가 이루어지겠지만 혹여 천도되지 못한 영가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화두로 남더라구요. 마침 신도들에게 불교교리를 교육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영가들이 알면 천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저와 인연 있던 영가가 나타나 부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 고맙다고 하면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을 깬 후에도 그 모습이 확연히 떠올라 잊혀지지가 않더라구요. 그 뒤로 저는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신도들의 시은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 할 것이며 또 다른 스님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慈悲禪院 원장 벽암 합장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 ☎ 055)391-3014. 3004

21세기 불교의 본분사는 상생과 화합 그리고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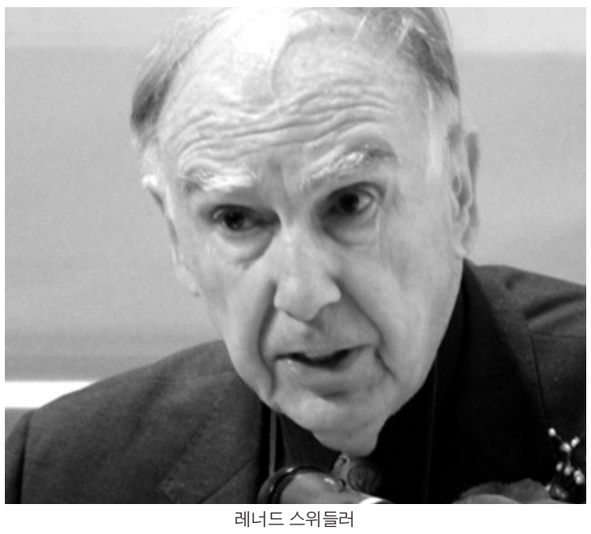
천태종,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천태종 중흥조인 상월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저명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부처님 연기법에 근거한 상생과 화합을 주문했다. 그 실천방법으로는 나눔을 강조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과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1월 12~13일 금강대에서 '미래세계와 불교'를 주제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권기종


데미언 키언


다케가구쵸


레너드 스위들러


유승무


김상현


블라디미르 디호노프


로버트 버스웰


박문호


박해당


타다 코쇼


조성택

학술발표에 앞서, 12일 대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 ▷인사말 ▷치사 ▷개막식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기종 국제학술대회 집행위원장(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천태종 중흥조인 상월 스님은 불타 이후 2500년 불교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 천태종은 4바라이를 위시한 기본 계율은 엄수하면서도 10선계(十善戒) 중심의 교단을 운영하고 있고, 수행과 노동을 이원화하지 않았다. 난해한 선(禪) 수행보다 대중을 위한 염불을 수행의 요체로 삼았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상월 스님의 중생구제 원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상월 스님은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불교로 발전시키셨다"며 "이번 행사가 상월 스님의 크고 깊은 뜻을 널리 알리는 한편, 21세기의 과학문명 시대에서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개막식사에서 "국제적인 행사들이 많았지만 오늘처럼 많은 불교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유례가 없었다. 오늘 함께 자리한 학자들이 발표하는 주옥같은 논설들은 길이길이 우리 불교학계에 기억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문화 문제 등 새로운 여러 현상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은 '미래세계의 종교와 원각사상'을 주제로 기조발제했다.

권 원장은 "미래의 종교는 모든 대중과 함께 하는 종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종 원장은 종교가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하나된 수행생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문 종교인도 일과 수행을 병행하는 주경야선(晝耕夜禪)의 수행풍토를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 권 원장의 시각이다.

권기종 원장은 "미래세계의 불교는 목표 이상으로 현실적 행위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염불수행의 강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쉽게 수행에 참여시킬 방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 해리슨 美 스탠포드대 교수는 기조강연 '미래세계와 불교'에서 미래불교를 ▷불교학의 발달단계 ▷불교에 대한 대중적 인식 ▷참여불교 ▷불교와 과학의 네가지로 진단했다.

해리슨 교수는 "미래 불교는 세상 속에서 승가의 존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비구스님보다 비구니스님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스님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단지 사회복지사로 머문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 해리슨 교수는 제도적 구조가 결여된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용에 대해서도 라칭거 추기경의 말을 빌어 "간다라 보살이 맨해튼 아파트를 장식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리슨 교수는 "불교계는 불자수를 늘리는데 우선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탐욕 분노 무지가 가져오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승가의 유지와 전통계승에도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

작금의 인류는 대화하거나 죽거나
불교계가 종교간 대화 이끌어내야
상생 않으면 대중은 종교 등 돌려

김용표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종교문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의 불교'에서 "불교는 종교간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종교간·이데올로기간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세계종교사 흐름과 패러다임 전개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서구의 포스트모던 사조 인용 ▷다른 종교인보다 성숙한 불교인 ▷제 종교간 다양성 인정과 특수성 존중 ▷부처님의 이웃종교에 대한 태도 계승 ▷원효의 화쟁회통해석학 연구 ▷세계평화를 위한 대화운동 전개 등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상가 틸라카라트네 스리랑카 콜롬보대 교수는 '종교윤리와 신세계 질서'를 주제발표했다. 틸라카라트네 교수는 "모든 인류는 그들의 언어와 행동·사고를 통해 연결돼 있다. 환경을 공유하고 기쁨·슬픔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지역을 위해 지역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아상가 틸라카라트네 교수는 "종교는 올바른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이치있는 대안이다. 그러나 종교적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이 종교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너드 스위들러 美 템플대 교수는 '국제화와 문명간의 대화'에서 "작금의 인류는 대화를 하거나 죽음을 맞거나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류 문명은 도시의 인구집중에서 발원됐고 그 중심에는 종교가 자리해 왔다"며 "지역과 종교, 국가를 초월해야 종교와 이념이 온전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갈등 조정에서 불교의 역할

빈부, 남녀 등의 차별은 무상한 것
이는 인연 조건 따라 발생하기 때문
연기·불성 바로 알면 모두가 평등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주제발표 '불교의 경제윤리'에서 불교 가치와 경제논리의 조화를 시도했다. 정 총장은 "과거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였다면 미래의 세기는 '만남과 융섭'의 시대이다. 이 조화를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병조 총장은 "문화든 경제든 민족주의적 배타성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범세계적인 문화적 안목과 비전을 강조했다. 내것이 소중하다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평범한 인식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화추안 중국사회과학원 부교수는 '빈부·남녀 차별과 불교의 역할'을 통해 "불교는 빈부에 원인이 있다고 봤으나, 차별없는 평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화추안 부교수는 "인연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은 모두 무상한 것이다. 인연의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면 중생의 빈부, 남녀 등의 차별성도 변화를 맞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화추안 부교수는 "불교의 연기사상과 일체중생의 불성사상 등에 의거하고 현대적인 해석을 거치면 빈부와 남녀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남북한 사회통합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발표 했다. 유 교수는 "한국불교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분단된 한민족의 정서를 하나로 묶을 것"이라며 "남북불교계의 통합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블라디미르 디호노프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불교와 평화주의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서 "불교가 반전 평화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교공동체에 대한 외부의 영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시대 종교간 화합

상대종교가 공격한다고 불교도 해서야
나와 남은 쉴 새 없이 소통하는 존재들
내가 너, 너가 나인 연기를 바로 알면
상생은 절로 실천돼 모두가 자유롭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종교 간의 갈등과 폭력'에서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의 평화선언을 옹호했다. 황 교수는 "상대종교가 불교를 비방·공격한다고 해서 불교 또한 상대종교를 비방·공격한다면 이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불교에서 타자의 개념과 자타상생의 길'을 통해 "인류와 자연은 서로 조건이 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상호작용을 한다. 인드라망처럼 연기된 전체 속의 하나이자 그 자체가 전체를 담고서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에코시스템(Eco-system)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찰나의 순간에도 나와 남은 서로 조건이 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고통을 멸하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연기를 깨달아 상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해당 태동고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교와 유교의 갈등과 조화'에서 "불교는 조선 시대 유가의 불교 말살정책 속에서도 원리적 동일성과 현상적 불교 우월성을 통해 불교와 유교의 공존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엄한진 한림대 부교수는 '한국 거주 국제이주민에게 종교는 무엇인가'에서 "한국 내 이주민이 늘면서 종교인의 유입도 늘고 이를 통해 종교계의 국제 교류 또한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학시대의 불교

오늘날 문제는 과학발전 아닌 욕망의 탓
과학과 종교는 대립 아닌 대화를 할 때
생태문제 등 과제 풀고 미래 대비하려면

제4차 선암사 재적승려 분한신고

귀의 삼보하옵고
금년에 실시하는 제 29대 주지 선거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분한신고를 실시하오니 아직 신고를 필하지 않은 재적스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접수하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신문 573호(9월20일) '승려(교임, 전법사) 의무금 미납자 자격 분한 정지 공고' 제하로 공고된 바와 같이 분한신고를 필하지 않은 재적승려는 종령에 의해 자격분한이 자동 정지되어 주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1. 승적원부 (총무원 발행)
2. 이 력 서 (사진 부착)
3. 건당확인서 (선암사 합동 건당자에 한함)

신고기간 : **2011년 11월 28일 17시까지**
접 수 처 : 선암사 종무소
문 의 : 061)754-5247, 061)754-5953

太古叢林 曹溪山 仙巖寺 住持 慶潭

지역불교 극복해야 해답 보인다


아상가


엄한진


폴 해리슨


세운 스님


황순일


신규탁

생태운동 등 불교의 사회참여 더 늘려야

최종석 금강대 교수는 주제발표 '과학시대의 불교의 인간관'을 통해 "오늘날 생태문제는 과학의 발달 때문이 아닌 과학기술과 접목된 인간 욕망의 극대화에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과학과 종교가 대치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미언 키언 英 런던대 교수는 '불교도는 장기기증자가 돼야 하는가'를 주제발표했다. 키언 교수는 "불교계가 장기기증을 지지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집착의 제거 ▷자비심의 완전한 표현 ▷훌륭한 과보를 위한 선업 등의 이유가 있다"며 "보살 정신에 입각해 널리 권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행동과 의미 그리고 인과율'을 통해 "인간 현상은 무의미한 자연에서 의미를 생성해 언어를 통한 가상적 세계상을 건립한 것"이라며 "인간은 그 의미장에 구속된 존재이다. 의미와 무의미 상호 생성관계를 체득하는 상태가 초월적 일체감의 세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리따오 중국불교협회 중국불교문화연구소장은 '현대 생태환경의 곤경과 불교의 생태윤리 지원'에서 "불교가 미래 인류를 위한 큰 공헌을 해야 한다면 생태윤리의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리따오 소장은 "녹색생태 활동 등 불교계의 사회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베르나르 포 美 콜럼비아대 교수는 '불교명상과 뇌과학'을 통해 "불교와 뇌과학이 동시에 발전하려면 뇌과학자는 불교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의 갈 길은

한국불교에서 조계종 절대선 아냐
만해의 개혁시도 폄화 부작용 있어
한국불교는 세계 속에 우뚝 서 있어
중국과도 일본과도 교류 더 늘려야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근대한국불교사 재고'에서 "조계종은 근대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전통복고'이며 반근대적 성격의 종단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진단과 함께 민족주의적 역사 기술이 조계종의 형성과정을 '민족불교'로 지칭시켜 만해 등의 개혁프로그램을 역사적 돌출 사건으로 폄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성택 교수는 "항일과 친일이라는 획일적 민족주의 구도 속에서 잘 포착되지 않던 근대한국불교의 다양한 모색과 고민들을 이해하려면 '딜레마'의 관점으로 근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버스웰 美 UCLA 교수는 주제발표 '대륙적 관점에서 본 한국불교'에서 "한국불교는 한반도의 불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는 불교의 일본 전래 뿐 아니라 중국불교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한국 유학승의 존재감으로 인해 한국불교는 중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한국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 넘어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한국불교에서 출가와 재가의 관계'를 통해 ▷재가불자를 위한 쉬운 법회의식 ▷부처님 경전 말씀에 근거한 격조 있는 설법 ▷출·재가가 만나 하나되는 법회 ▷법고창신하는 법회 문화 창조를 제안했다.

이시이 코세이 日 고마자와대 교수는 주제발표 '한·일 불교학의 미래'를 발표했다. 이시이 코세이 교수는 "불교사 등 고대 일본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한국을 배워야 한다. 반대로 한국 연구자 역시 일본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시이 교수는 한·일 불교학계 논문의 다국어 번역과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황샤니엔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사장은 '한·중 불교학의 미래'에서 "불교학은 신앙에 기반해야 한다. 신앙이 없다면 불교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샤니엔 사장은 한국·중국 불교학의 교류가 미래 불교학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사회와 원각사상

상월 스님의 대중·생활·애국불교는
대중과 함께 미래 불교 이끌 가르침
지관수행은 현대인 정신건강에 도움
자신 잊고 남 돕는 것이 보살다운 삶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상월원각의 불교개혁사상'을 주제발표 했다. 김 교수는 상월 조사의 대중불교·생활불교·애국불교를 설명했다. 김상현 교수는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며 누구라도 믿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며 전할 수 있는 불교가 대중불교이다"라고 말했다.

천태종 교육원장 세운 스님은 '불교수행의 새로운 지평'에서 "상월 스님은 지관(止觀)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아 칭명염불을 대중의 수행방편으로 정착시켰다. 이는 중생구제의 깊은 자비심에 기인한 탁월한 수행관이다"라고 말했다.

이봉춘 동국대 교수는 주제발표 '미래사회와 한국 천태종'을 통해 "모든 교의와 사상을 하나로 포용하면서 태동한 종화 지향적 종단인 천태종이 애국·생활·대중 불교 구현을 통해 상생과 조화된 미래문명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리쓰롱 中 북경대 교수는 '천태지관의 현대적 의의'에서 천태종 수행법인 지관법에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리쓰롱 교수는 "천태지관 수행법은 과거에는 참선수행의 초급단계였으나, 오늘날에는 모두가 간편하게 배울 수 있는 실용과정이자 입문단계가 됐다"고 설명했다.

타다 코쇼 日 대정대 명예교수는 '마하지관과 중생구제'를 주제발표 했다. 타다 코쇼 명예교수는 "인간으로서 지금, 생을 받는 과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전생의 인의 과로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코쇼 명예교수는 "전생에서는 여러 불·보살의 중생구제의 교화와 원을 온몸으로 받고, 그 공덕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느꼈을 때 자신의 생활에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불도수행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보살로 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코쇼 명예교수는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궁극의 자비이고,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청정케 하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상월조사탄신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가자들

사시나무를 보고도 인과와 연기를 배웁니다

美 생태심리학자 바필드 박사, 진흥원서 초청강연



"밖으로 나가 야생 속에 앉아라. 스스로 직접 보라. 부처님이 읽었던 자연의 경전을 읽어라. 그리하면 법(Dhamma)이 자명해 지리라."

야생의 체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美 생태심리학자 조나단 에이 바필드(Jonathan A. Barfield · 사진) 박사이다.

바필드 박사는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11월 17일 불교방송 다보원 법당에서 주최한 대원불교사상강좌에 초청돼 생태교육과 야생의 체험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솔하게 들려줬다.

바필드 박사는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것 ▷무상(無常)함을 아는 것 ▷인과(카르마)를 아는 것 ▷삶의 고통을 깨닫는 것 등 4가지 요소가 인간의 마음이 법(法)을 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4가지 생각은 야생에서 바위, 나무, 유골과 흙을 접하는 동안 마음에 깊이 다가온다. 이런 생각들은 생태학과 자연사의 체험적 공부를 통해 깊어진다"며 "4가지 생각은 자기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구 자체와 만날 수 있도록 의지를 변화시켜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필드 박사는 미국 남서부 지역의 산악과 사막의 경계에 위치한 야생지역에 살면서 이 4가지 경험을 몸소 깨달았다.

그는 "자연을 방랑하면서 만나는 수 억년 된 바위들과 시간을 가로지르는 협곡과 화석들을 보며 나 자신에게 '나는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왔을까? 도대체 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묻게 된다"며 "부처님은 인간의 귀한 생명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숙고하는 것이 악행의 두려움, 귀한 삶을 헛되이 하는 두려움, 참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열정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바필드 박사는 광대한 야생에서 생태계의 역학관계와 변화무쌍한 복잡함을 보면서 무상(無常)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바필드 박사는 "어느 날 홀로 긴 여행을 하던 중 부처님이 야생의 자연 속에서 방랑할 때도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며 "야생지역에서 걷고 명상하고 자연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4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경전 대중화 돼야 불교문학 포교 쉬워진다

조병무 동덕여대 명예교수, 불문협 심포지엄서 발표



"불교문학이 좀 더 불교적인 것이 되려면 불교경전이 하루 속히 일반에게 보급돼야한다."

조병무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사진)는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선진규)가 11월 11일 '불교 포교를 위한 문학의 역할'을 주제로 주최한 '제21차 불교문학심포지엄'에서 불교문학을 통한 포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발표한 '불교문학이 포교에 미친 영향'을 통해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쉽게 풀이하면 인생과 자연이 모두 불교적이지만 그 정신과 교리의 근본을 알려 주는 데는 보다 깊은 성찰과 노력이 문학가나 불교계가 합심하지 않고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불교문학작품으로 잘 알려진 김동리의 소설 〈등신불(等身佛)〉을 예로 들며 불교교리와 경전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등신불'에서는 소신공양의 불교적 세계관에 의한 고도의 인간 정적 관념을 나타내주고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공양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하지만 왜 등신불이 돼야 하는가라는 의문 속에서 새로운 화두를 풀어가는 인간적인 고뇌가 일반 독자들에게는 심오한 선적 경지가 어렵기 때문에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많은 독자들은 불교소재 작품에서 불교가 지닌 무한한 교리에 매료돼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화두 속에서 불교에 접근한다"며 "불교가 지닌 교리와 자신의 세계관에서 접근하는 빠른 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불교문학작품은 불교적 상징이나 은유에만 머물러서도 안되며 불교적 교리에 의한 사색과 고통과 탐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의 혼이 살아숨쉬는 민족성지 麟角寺

www.ingaksa.org 인터넷검색 인각사

2011 제3회 일연 삼국유사 학술제 및 문학제

보각국사 일연선사는 고려 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대선사이자 당시 고려 전 국민의 스승이었던 국사를 역임하셨던 선지식인 이었을 뿐 아니라 〈삼국유사〉라는 명저를 남긴 역사가입니다. 더구나 일연선사는 남해분사도감의 중심에 서서 재조고려팔만대장경 제작의 핵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사상, 종교, 언어 등을 집대성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민족의 자존심과 의식을 일깨워 준 겨레의 성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의 뛰어난 업적에도 비해 선사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인각사에서는 일연선사의 생애와 업적을 심도 깊게 연구 및 조명하여 선사의 민족자주, 자존정신 및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발전과 한국적 정신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일연·삼국유사 관련 학술논문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선작에 대한 시상 및 학술제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 주지
사단법인 일연삼국유사연구원 원장 도권 합장

■일 시 2011년 11월 25일(金) 오후 3시 ~
■장 소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강당
■주요행사 1. 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식
2. 당선 논문 발표
3. 일연문학지 출판기념식
4. 축하음악회 및 저녁공양

주 최 _ (사) 일연학연구원
주 관 _ 인각사/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후 원 _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시교육청

麟角寺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번지
TEL:(054)383-1161 FAX:(054)383-3758


보물 428호 보각국사정조지탑

정관 스님 등 복지유공자 선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비나눔대축제 개최
12월 1일 오후 2시 AW 컨벤션센터에서

종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20명이 2011 불교사회복지유공자로 선정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정관 스님, 지언 스님(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장), 정순화 관장(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손경숙 이사장(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람들), 김용진 사무국장(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자비마을), 최병옥 송암동산 자원봉사자, 진화근 한화S&C 대표이사, 성웅 스님(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 지명 스님(강릉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등을 2011년 불교사회복지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통한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 자긍심을 제고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한 불교사회복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해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 운영부문 ▷사회복지발전 공헌부문 ▷자원봉사활동 부문에 각 4명을 선정하고 공로상 3명, 보건복지부장관상 3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명 등 20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에서 진행된다.

한편 한국불교 자비나눔 대축제에는 1·2부로 나뉘어져 불교사회복지포럼, 자비나눔대법회 및 만찬이 진행될 계획이다.

1부에서는 '나눔결사를 통한 불교사회복지 저변화 전력'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진행한다.

이용권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는 포럼에는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붓다의 가르침의 현대적 의의와 나눔결사'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으며 조기룡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불교사회복지 전달체계 강화방안'을, 정승국 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가 '사찰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는 2011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자비나눔 실천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자비나눔 실천가들을 발굴·포상 하는 시간을 갖는다.

본행사인 자비나눔대법회에서는 자비나눔유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종선 스님은 "이번 불교사회복지대회는 불교사회복지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와 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국 규모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안으로는 종단의 자성과 쇄신 5대 결사 중 나눔결사 확산에 기여하고 밖으로는 부처님의 자비구현으로 국민행복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불교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 총무원장과 주요 스님,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먹거리 걱정 덜으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11월 16일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김장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S&C 임직원, 조계종 자원봉사단, 학도암 신도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추운 겨울동안 먹거리를 걱정하는 소외이웃 100가정을 위해 김장 김치를 담그는 한편 지역 어르신들과 점심공양을 했다. (왼쪽부터)이상벽 만행 홍보대사, 학도암 주지 법보 스님, 진화근 한화S&C대표이사, 종선 스님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천태종 구인사, 어르신 孝잔치 봉행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11월 15일 오전 11시 단양 문화체육센터에서 봉행했다.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과 삶 속에서 체득한 오래된 지혜를 본받는 등 경로효친 사상을 알리기 위함이다.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덕중 스님, 김동성 단양군수, 오영탁 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단양읍·매포읍·적성면·어상천면·단성면·영춘면·대강면·가곡면 등 단양군내 8개 지역 어르신 13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한국 천태종을 중창하고 구인사를 개산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단양 지역의 오래된 지혜인 어르신들께 공양 올리는 자리"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교수들, 이웃 위해 노래한다

26일 3·6시 동국대
중강당서 음악회 열어

동국대 교수들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무대에 오른다.

동국대 교수합창단(회장 연기영)은 11월 26일 오후 3시와 7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2011 이웃사랑 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 수익금은 중구 지역 이웃사랑 돕기 기금으로 사용된다. 공연 또한 지역 내 독거노인 등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행사에서 동국대 교수합창단은 김용택 시인의 '먼산', 나옹 선사의 '청산은 나를 보고', 독일민요 '우정을 위하여' 등을 노래한다. 노래하는 도신 스님과 색즉시공 록밴드, 동국대 정각원합창단 등도 이들의 나눔실천에 동참키 위해 무대에 오른다.

연기영 동국대 교수합창단 회장은 "교수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밝고 향기로운 상생사회를 만들자는 뜻을 모아 창단됐다"며 "소외이웃을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02)2260-3232

조동섭 기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안은 무엇?

서울노인복지센터, 24일
개관 10주년 세미나 개최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영란 교수(강남대)가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와 사회참여'를 주제로 주제강연을 맡으며, 구자훈 협회장(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정종보 국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운영국)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청원 스님이 '베이비붐 세대 문화와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청원 스님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아 10년 후 센터 이용 어르신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이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의미를 점검하고 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02)6911-9555 이나은 기자

음악통해 청년불자에 더 가까이

조계사 대승법회, 26일
음악회 열어 청년포교



"젊은 사람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불교가 이번 음악제를 통해 젊은층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계사 대승법회(회장 박인명화) 최태선 홍보부장(사진)은 이번 음악회가 단순히 대승법회의 홍보만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음악제의 부제처럼 '다음세대와의 행복한 인연만들기'를 통한 젊은층 포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계사 대승법회는 11월 26일 총무원 역사박물관 지하 공연장에서 3시와 7시 2회에 걸쳐 '제2회 젊은층 포교기금 마련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 불교대학 합창동아리 등 불자들의 공연과 서울 오케스트라, 바라오페라단, 국악인 등 전문 공연이 적절히 조화됐다. 지난 해 열린 1회 음악제와 비교해도 출연진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

최 부장은 "음악은 누구나 쉽게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장르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관현악에서 국악 합창, 불자공연까지 다양하게 기획했다"고 밝혔다.

음악제는 서울 오케스트라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Por una Caveza' 연주로 시작된다. 이후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이 '영겁을 하루같이', '자유 평화 행복' 등을 부르고, 테너 이준형과 소프라노 김양희가 '마음'과 '사랑의 노래'를 청중들에게 선사한다.

국악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19호 이수자 김정란 선생 등이 '한 오백년' '밀양 아리랑' '태평가' '뱃노래' '잦은 뱃노래'를 들려준다. 불교대학 합창동아리는 '공심공체 둘 아닌 노래', '님이 오신 날'을 부른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바라오페라단이 '염불과 다라니', '가요 메들리'를 부르고 전 출연자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를 합창하며 음악제의 막을 내린다.

조계사 대승법회는 음악제 수익금 전액을 젊은층 포교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젊은층 포교에 불교의 미래가 걸린 만큼 당연하다는 것이 대승법회 회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대승법회는 평소에도 젊은층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청소년, 군포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태선 부장은 "대승법회 회원들이 그동안 수시로 모여 연습에 매진해 왔다. 이번 공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작은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23일, 로터스월드 후원의 밤

국제 구호활동 단체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11월 23일 오후 5시 AW컨벤션센터에서 후원의 밤을 열고 사업보고 및 계획을 발표한다.

로터스월드는 이번 행사에서 영화배우 윤소이와 오연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부경 스님과 성보스님에게 각각 감사패를 증정할 예정이다. 자비나눔상은 임종애씨가 수상한다.

부경 스님은 캄보디아 아동센터 초대 원장을 역임하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부경 스님은 도감을 맡아 센터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종애씨는 10명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승려복지법 시행에 따른

승가 노후복지의 과제와 전망

- 제14교구 본사 범어사를 중심으로 -

너와 나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하고 있는 사단법인 불국토에서는 2011년 10월 시행된 **'승려복지법'**에 대한 담론을 통해 **'승가 노후복지제도의 현실과 발전 방안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정관** 합장

□ **제 1 부 : 개회식 및 기조강연** (15:00 ~ 15:40)
- 개 회 식 :
  - 인사말씀 정관스님(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 축 사 정여스님(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
    혜총스님(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 前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 기조강연 : 범산스님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 상락정배산실버빌 원장)

□ **제 2 부 : 발표 및 토론** (15:40 ~ 17:00)
- 발 제 : 현담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
- 토 론 : 정오스님(범어사 사회국장 • 중앙종회의원)
  선재스님(범어사 운영위원회 간사 • 계명암 주지)
  박 대 성(부산불교연합신도회 사무총장 • 경영학 박사)
- Facilitator : 김교정 교수(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질의 응답

▣ 일 시 : 불기 **2555(2011). 12. 2.** (금)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교육관 / 문의 : **051)753-9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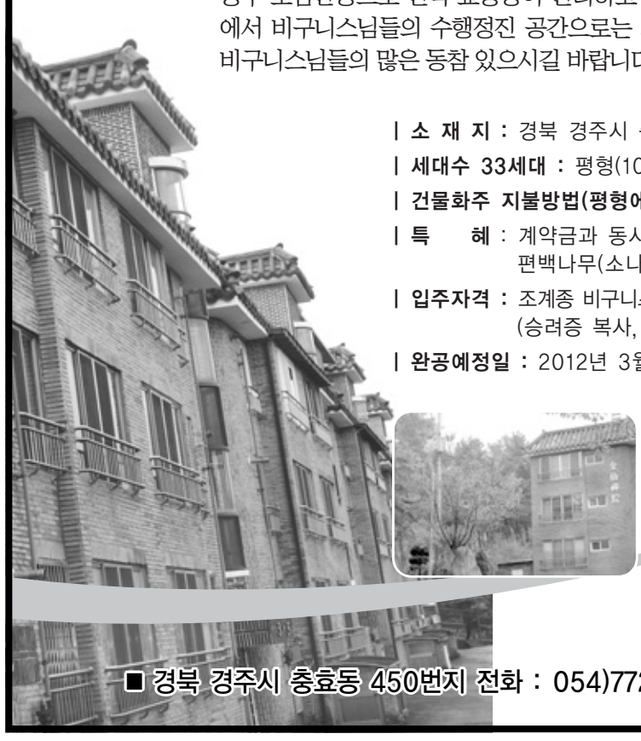
사단법인 불국토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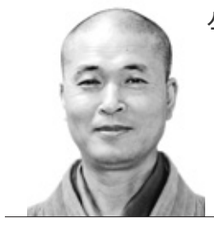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특 혜 : 계약금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불자에게는 잠자는방 1개를 편백나무(소나무)와 함께 할 수있는 공간을 선물하겠습니다.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 지 **휴 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크게 놓아 버려라

학승이 물었다.

"두 마리 용이 구슬을 다툴 때 누가 그것을 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잃는 자도 잃음이 없고, 얻은 자도 사용할 일이 없다."

問 二龍爭珠誰是得者 師云 失者無虧 得者無用

한 마리 용은 공(空: 빔)을 말하고, 또 한 마리 용은 물질[色: 물질]을 말한다. 구슬은 행복이나 어떤 목적을 비유한 것이다. 빔을 통하여 행복을 얻습니까, 물질을 통하여 행복을 얻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다. 이전에도 이 질문이 나왔었다. 그때 조주 스님은 "노승은 다만 지켜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공 · 물질 어느 것이 와도 좋다는 것을 내보였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잃는 자도 잃음이 없고, 얻은 자도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했으니, 구슬[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구슬은 인간의 최상 목표이다. 파라다이스, 이상적인 것 등은 알고 보면 인간의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라는 것이다. 그 길을 끝까지 좇아가서 성취했던 사람들은 한결 같이 말했다. 그 끝은 허망하다고. 부처님도 그렇게 설했다. "깨달음의 세계는 없다. 그러하니 깨달았다는 생각도 버려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대인(大人)의 상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도대체 뭐란 말인가?"

問 如何是大人相 師云 是什麼

대인(大人)은 마음을 단 번에 크게 놓아버리고 일체를 초월한 사람이다. 수많은 적을 물리친 장수보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 더 위대한 장수이다. 그를 진정한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석가모니, 육조 대사, 임제 선사와 같은 붓다들은 대인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인이라는 개념을 일찍이 버렸다. 그들은 수많은 세월을 찾아 헤맨 끝에 평범함으로 되돌아왔다.

지금 조주 선사는 대인들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대인? 뭐 말라빠진 자들이냐?"라고 비웃는 것이다. 그대들이 도를 안다면 이 조주 선사의 뜻도 알 것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부부 싸움하고, 자식과 실랑이하고, 약간의 월급이라도 올려달라고 머리에 끈을 질끈 묶고 얼굴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야 말로 위대한 사람들이다. 세계 역사는 그들이 바꾸어 놓았다. 도안을 갖춘 자여! 저들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어떤 속인이 가사를 바치면서 물었다.

"이런 옷을 입으면 고인(古人)에 위배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스님은 불자(拂子)를 내던지면서 말했다.

"이것이 고(古)인가, 금(今)인가?"

有俗士獻袈裟問 披與麼衣服 莫辜負古人也無 師拋下拂子云 是古是今

가사(袈裟)는 스님들이 평상복 겉에 입는 황토색 복장을 말한다. 부처님은 길에서 천을 줍거나, 화장터에서 태워버리려고 했던 죽은 사람 옷을 가져다 기워 입도록 했다. 수행자에 맞는 겸허한 복장을 강조한 것이다. 조각을 붙여 기운 모양이 밭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전의(福田衣)라고도 한다.

간혹 신도들이 스님들께 가사를 만들어 올릴 때가 있다. 그때도 복전의를 상징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는 멀쩡한 천을 여러 개의 조각을 내어 깁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로 부처님의 뜻에 위배된다. 분소의(焚燒衣)가 아닌 멀쩡한 천을 썼으며, 천 값에 품값까지 훨씬 더 들어가므로 사치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속인이 가사를 올리면서 조주 선사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은 것이다.

그러자, 조주 선사는 주장자를 던지면서 한 마디로 잘라 말했다. "고금(古今)은 없는 거야. 도대체 누구에게 위배 된다는 말인가?"하고.

독자들에게 묻겠다. 조주 선사가 주장자를 내던진 것이 선인가, 악인가? 하나 더 묻겠다. 조주 선사가 주장자를 던진 것과 신도가 가사를 지어 올린 것이 같은가, 다른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을 하나 잃은 것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눈을 다 잃은 장님이다. 알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좌선삼매경

가장 정비되고 체계화된 경전

403년에 구마라집이 번역한 경전으로 가장 정비되고 체계화된 삼매경전에 속한다. 이것은 〈좌선삼매경〉이 단일한 범문의 경전에 대한 번역이 아니라 인도 및 중앙아시아 등의 여러 선정론을 집대성하여 하나의 경전으로 역출했다는 특수한 성립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좌선삼매경〉에는 초기선정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선정관법을 다섯 종류로 정리하여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좌선삼매경〉은 어느 한 사람 내지 한 주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따라 각기 대치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그 내용들은 이후 선종의 성립기에 있어서 사조도신을 비롯해 오조홍인 등 소위 동산법문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좌선삼매경〉은 상 · 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좌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및 그 근본으로서 지계 및 오정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정관법을 비롯하여 5종법문이 중심 주제로 서술되어 있다. 그 5종법문은 수행자가 각각 대치해야 할 다섯 가지의 번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 있다. 탐욕의 번뇌는 부정관(不淨觀)으로 다스리고, 진에(瞋恚)는 자심관(慈心觀)으로 다스리며, 우치(愚癡)는 인연관(因緣觀)으로 다스리고, 사각(思覺)은 염식관(念息觀)으로 다스리며, 등분(等分)은 염불관(念佛觀)으로 다스린다.

> 좌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서술
> 부정관법 및 5종 법문이 중심주제
> 각각의 대상에 따라 법문 내용 설명
> 탐욕·진에·우치 등 다스리는 법 제시

첫째, 탐욕의 마음[貪欲心]이 많은 사람은 부정관을 닦으라고 한다. 이 부정관은 인도불교에서는 대승과 소승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관법이다. 본 경전에서는 2종의 부정관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신체를 구성하는 36물이 부정하다고 하나하나씩 관하는 것이다. 둘째는 죽은 자의 육체가 부패되어 백골로 변해가는 9단계를 순차적으로 관찰하는 구상관(九想觀)이다. 음욕이 많은 사람은 7종의 애착이 있는데 이것을 멸하는 효과적인 관법으로는 특히 후자의 구상관이 사용되고 있다.

둘째, 성내는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자심관이다. 처음에는 자비로운 마음을 지니고 친밀한 사람에게 자비롭게 하고, 다음으로 친밀과 증오가 생기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행하며, 최후에는 자신에게 증오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다.

셋째,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연관을 행한다. 이것은 12인연을 관찰하는 것이지만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12단계 가운데 처음은 무명과 행 또는 생과 노사 등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다음은 행으로부터 유까지의 9단계를 관찰하며, 최후에는 12단계를 통틀어 관찰한다.

넷째, 분별심 곧 사려분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나반나삼매(阿那般那三昧)를 닦는다. 이것은 염식관(念息觀)이라 번역하는데 호흡을 들이키고 내뱉는 행위를 비롯하여 면밀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분별작용하는 번뇌를 다스린다. 처음에는 일심으로 입식과 출식을 1부터 10까지 헤아리고, 다음은 숨이 나가고 들어옴을 따라 그 숨과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멈추며, 최후에는 아나반나삼매의 6종법문인 수(數 : 수식관처럼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을 하나로 삼아 열 까지 헤아리는 방식이다) · 상수(相隨 : 호흡을 놓치지 않고 호흡이 들고 나는 모습을 따라가며 관찰하는 방식이다. 호흡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한다) · 지(止 : 數와 隨가 완성되면 호흡을 코끝에 머물러두어 들고 나는 숨의 관찰) · 관(觀 : 숨이 들고 남에 따라 오음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증장시키는 방식) · 전관(轉觀 : 觀의 단계에서 한걸음 나아간다는 뜻으로 還이라고도 하는데, 곧 止와 觀을 성취하여 들숨과 날숨과 오음이 無常함을 터득하는 방법) · 청정(淸淨 : 청정은 완성된다는 뜻이다. 곧 몸 · 감각 · 마음 · 법 · 들숨 · 날숨 · 기타 수행의 완성)을 닦는다.

다섯째, 등분행(等分行 : 단견 · 상견 · 영원불변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염불관을 권장한다. 그 방법으로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를 여실하게 관찰하여 한 부처님뿐만 아니라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나아가서 시방제불의 상호를 일심으로 관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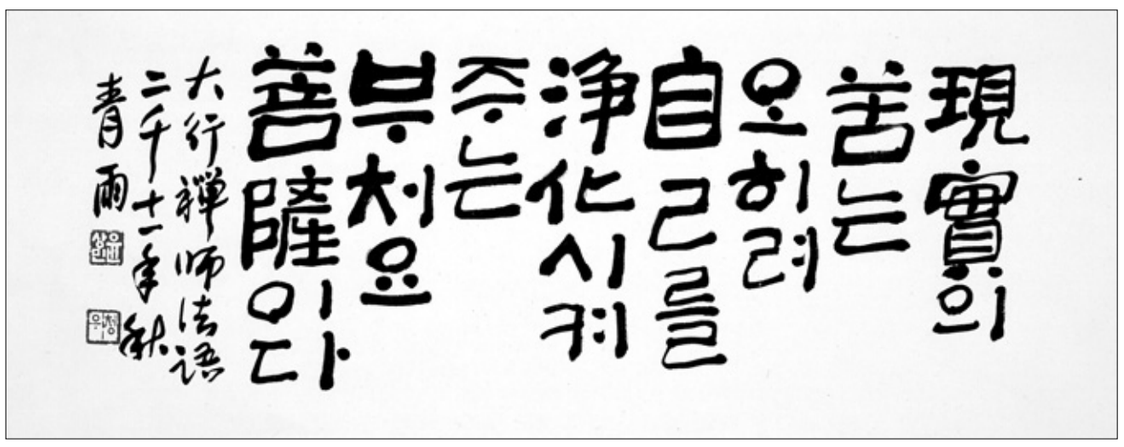
그리고 하권에서는 앞의 5종법문으로부터 나아가 색계의 선정에 해당하는 사선(四禪)과 와 무색계의 선정에 해당하는 사무색정(四無色定)을 닦고, 위파사나 수행의 근간이 되는 사념처 수행 및 이승과 보살승의 선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최후 보살도에 있어서의 선정의 실천내용은 여기에서도 앞의 상권에서와 같은 5종법문을 수행하지만 중생구제와 제법의 공(空 : 무집착의 실현)과 무상(無相: 평등심의 실현)을 설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좌선삼매경〉의 내용은 각각 대치해야 할 대상에 따라 각각의 법문의 내용이 설해져 있어 서로가 병립적인 관계의 구조로서 각각 다른 법문을 전제로 하는 중층적인 구조는 아니다. 또한 선경이 대승과 소승을 구분하지 않고 실천의 수단임에 비하여 삼매경류는 거의 대승적인 성격에 가깝다. 곧 삼매경전류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과 형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하는 선정에 있어서 내관(內觀)에 따라 교리가 전개되고 있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윤상민의 **서화산책** 대행선사 법어



이 대 보 부 주 정 자 오 고 현
천 행 살 처 화 시 기 히 실
청 우 십 일 년 추 선 사 법 어 이 다 요 는 켜 를 려 는 의

現: 나타날 현
實: 열매 실, 이를 지
淨: 깨끗할 정
菩: 보살 보, 향초이름 배
薩: 보살 살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현실의 고는 오히려 자기를 정화시켜주는 부처요 보살이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통도사서 한 달간 매일 선지식 만나요

11월 25일~12월 24일 화엄산림법회

우리 시대 큰스님 30명으로부터 매일 〈화엄경〉 법문을 듣는 법석이 열린다.

통도사(주지 원산)는 11월 25일~12월 24일 화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25일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의 입재법문으로 시작되는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파 스님,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탄허재단 이사장 혜거 스님, 조계종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이 법문한다.

특히 행사에서는 참가대중이 함께 매일 〈화엄경〉을 옹호하는 신중의 명호를 외며, 〈화엄경〉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보현햄원품 독송과 108예참이 있어 법문과 실수행을 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화엄산림의 '화엄'은 경전의 제명을 줄인 것이고, '산림'은 '摧折人我山 長養功德林'(나다 너다 하는 아만심을 꺾어 없애고 공덕의 숲을 키워 나가는 것)에서 따온 말로써 화엄경을 설하는 법회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화엄법회는 신라시대부터 있어왔으나, 현재의 화엄산림법회는 경봉 스님이 1927년 12월 8일~1928년 1월 3일(21일간) 통도사 극락암에서 출·재가자를 대상으로 연 것이 최초이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선·교·율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뭇생명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고자 화엄산림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55)382-7182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화엄산림법회 일정표

날짜	법 사	법문 품
11/25(금)	원명 스님(영축총림 방장)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입재법문 화엄경 현담
26(토)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세주묘엄품
27(일)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여래현상품 보현삼매품
28(월)	재문 스님(청원 내원사 주지)	세계성취품
29(화)	중선 스님(수도암 감원)	화장세계품
30(수)	지운 스님(자비선사 주지)	비로자나품
12/1(목)	혜거 스님(탄허재단 이사장)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2(금)	용학 스님(범어사 강주)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3(토)	종범 스님(前 승가대 총장)	정행품 현수품
4(일)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	승수미정상품 수미정상게찬품
5(월)	보화 스님(통도사 총무국장)	오전 월하스님다례 십주품
6(화)	철우 스님(조계종 계단위원)	범행품
7(수)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발심공덕품 명법품
8(목)	법광 스님(백연화사 주지)	불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게찬품
9(금)	반산 스님(원각사 주지)	십행품 십장품
12/10(토)	우진 스님(前 통도사 강주)	불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게찬품
11(일)	월파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십회향품1-5
12(월)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십회향품6-10
13(화)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십지품
14(수)	신공 스님(창원 구룡사 주지)	십정품
15(목)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	십통품 십인품
16(금)	원철 스님(前 불학연구소장)	아승지품 여래수량품
17(토)	각성 스님(화엄사 회주)	제보살주처품 불부사의법품
18(일)	현진 스님(통도사 강주)	여래십신상해품 여래수호광명공덕품
19(월)	도암 스님(백양사 강주)	오전 벽안스님다례 보현행품
20(화)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여래출현품
21(수)	성림 스님(통도사 선덕)	이세간품
22(목)	무비 스님(前 교육원장)	입법계품 휴사우바니까지
23(금)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입법계품 (비목구사~바산사연주야신)
24(토)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입법계품 회향법문

오심 스님의 달빛 고운 절에서

성공과 실패의 이유

부처님께 여쭸습니다.

"부처님, 세상 사람에는 제 각기 직업이 있는데 어떤 이는 성공하고 어떤 이는 실패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큰 힘을 쏟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케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출가사문으로써 현명한 일인가 자문자답하고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또 산문을 나섭니다. 스스로 현명하든 현명하지 못하든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나서야 할 일 이라면 주저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리라는 다짐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제가 포교 일선에 뛰어든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는 세월이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죽음의 사선도 넘어 보았습니다. 그만큼 즐거움도 보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격려와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좌절을 준 사람도 여럿 있었지만 수행길에 부딪히는 작은 걸림돌이라 여기고 즐거이 맞았습니다.

포교 현장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구룡사 어린이법회입니다. 어린이포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서울의 도심포교장인 구룡사에서 당시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당시 주지 정우 스님의 뜻으로 어린이법회가 설립·운영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포교활동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더불어 포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다보니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스님에 대한 궁금증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다가서니 아이들이 좋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월이 지나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어린 후배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사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통도사 하계수련대회 때에는 4박5일씩 교사로서 봉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통도사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보람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들은 부처님 말씀을 인연으로 어른이 되어도 변함이 없이 불자로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아! "내가 가는 포교의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행을 제일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포교는 뒷전으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더러는 조용한 산사에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야단치는 어른스님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많이 변해서 어른스님들부터 나서서 어린이 포교를 적극적으로 돕고고 크게 격려도 해주십니다.

지옥문에서 초조하게 극락을 발원하며 서성이는 지장보살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말씀에 귀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포교에 최선을 다합시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시은을 주었듯이 우리 또한 그 시은에 보답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길이 포교현장입니다.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전북 성지순례길 홍보나서

전북도(도지사 김완주)가 세계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도내 아름다운 순례길을 걷는 세계적 규모의 종교 성지순례행사 '세계순례축제'를 2012년 10월 중 개최한다.

11월 12일 김제 금산사에서는 이를 위한 종교성지 순례코스 점검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완주 도시사, 이건식 김제시장, 원불교 고원선 전북교구장, 천주교 유장훈 몬시뇰 신부, 기독교 박진구 목사 등의 종교지도자와 김수곤 순례문화연구원 이사장 외 전라북도청의 4대 종교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순례길을 걸으며 각기 다른 종교의 성지를 순례했다. 이들은 각 종단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도의 추진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와 상생의 방법을 모색했다.

전북도가 2009년 선포한 아름다운 순례길은 세계 유일의 종교간 상생·화합을 위한 길이다. 행사는 순례길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이 걸은 코스는 아름다운 순례길 240km 중 제7코스로 김제 금산사에서 수류성당까지 이어지는 19.7km 구간이다. 이 코스에는 7대종교 관련 20여 개의 전통사찰 지방문화재 신앙촌 등이 산재돼 있다.

전북도 김완주 지사는 "아름다운 순례길을 통해 다양한 종교 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해외 순례객들이 찾는 국제적 순례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 아름다운 순례길은 2009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6만여 명이 방문했다.

2010년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야기가 있는 문화유산 길'로 선정된 데 이어 2011년도에는 순례길 로고인 달팽이 기념품이 전라북도 브랜드상품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순례길에는 30여 명의 길안내해설사들이 순례지점마다의 사연과 지역문화를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 순례객들이 증가하면서 심신건강과 전인적 인격성장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작은 도서관' 개관

전주 시내에 지역주민들과 노인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개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이 운영하는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11월 11일 복지관 강당에서 '행복나눔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 앞서 식전공연으로 서원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난타공연과 시낭송, 오카리나 연주 무대가 펼쳐졌다. 개관식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송하진 전주시장, 지역 복지관 관계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작은 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도서관 개관으로 지역주민까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건강을 살피는 것은 물론 문화적 소양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한 '행복나눔 작은 도서관'은 서원노인복지관 로비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209.88㎡(63.6평)의 규모로 4000여 권의 장서와 함께, 열람실, 유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문화재 복합재난대비 합동 실제 훈련

11월 15일, 제386차 민방위의 날에 전국 사찰에서 재난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도 김제시와 함께 금산사 경내에서 15개 기관 단체 훈련인원 160명과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비롯해 심평강 전북소방안전본부장 등 각급 관계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재 복합재난대비 합동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금산사 주변 산불 상황에 따라 금산사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금산사 30여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관광객 대피유도, 문화재 및 주요물자 반출, 경내로 비화되는 산불 방제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김제소방서는 20여 점의 소방장비를 전시하고 작동요령 설명 및 시연을 했다. 또, 심폐소생술 교육, 초기 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과 체험 등이 실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기공

영남불교대학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이 11월 11일 증축공사를 시작했다.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은 이날 대구 봉덕동 무량수전 공사현장 앞에서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과 배영식 국회의원, 임병헌 대구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량수전 증축공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은 무량수전 건물 2동 가운데 노후된 1동을 허물고 2012년 10월까지 18억여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600㎡ 규모의 현대화된 새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격려사에서 "앞으로도 대사회적인 봉사활동과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행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네 입에 숟가락 들어갈 때는 다른 이도 살펴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월 15일 동국대 ‘Pride Dongguk 지성콘서트’에 참가해 동국대 학생들과 ‘21세기 리더의 자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강연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 당선 전부터 약속했던 것으로 박 시장은 취임을 하루 앞두고 동국대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단에 올랐다. 이 날 박원순 시장은 독서, 도전, 가치에 대해 강조했고, 학생들은 한마디라도 놓칠까 꼼꼼히 메모 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박원순 시장 ‘21세기 리더의 자격’ 강연
학생들, 계단까지 모여 앉아 경청

대학 1학년 때 데모에 동참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일이 있습니다. 소년수방으로 보내졌는데 강도, 살인, 강간범 등이 있었습니다. 몇 달을 지내다보니 이들과 친해졌고, 그들이 착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꿈을 가진 청년이 되라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9살이었던 나는 그 안에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때 읽은 책이 지금도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때 만큼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없습니다.

죄수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이해했을 때, 세상에 소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고통과 가난은 사람을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열정과 꿈이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일부에서는 내게 ‘협찬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참여연대에 만 명이 만원씩 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는 1%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두닦이 아저씨, 행상하시는 분, 거리에서 커피를 파는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5%의 지지를 가진 내게 50%의 지지를 가진 안철수 씨가 협찬해 주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시민들은 투표로 나를 협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을까요? 내 삶의 궤적·평생 추구한 가치 때문에 그들이 나를 협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생 지키고 추구할 가치와 원칙과 비전, 꿈을 만드는 대학 시절이 되길 바랍니다.

대학 시절 독서 삶의 방향 결정

젊은 시절 가장 좋은 투자는 독서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30년 후 미래가 결정됩니다. 핵심은 많은 책을 읽는데 있다고 봅니다. 배우겠다는 자세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21세기 리더의 조건은 겸허함입니다. 두 손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두 손을 다 비우면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모든 것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버리면 세상 모두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심과 탐욕 때문에 이런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시작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거대한 미래가 보장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내게 ‘대덕(大德)이면 득기위(得基位)라’는 글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큰 덕이 있으면 자리는 저절로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덕은 쌓지 않고, 자리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소통·협력이 미래사회의 힘

여러분에게 협동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empowerment’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열정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empowerment’입니다.

21세기 우리 사회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시민들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정에서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도 시민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한국사회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잘못을 하면 성균관 젊은 선비들이 상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4·19와 6월 항쟁 모두 청년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번 선거 혁명도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시민의 몫 입니다. 정부를 만들고 국회를 조직하는 모든 것이 국민과 주권의 힘입니다. 시민과 청년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이 있으면 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사람도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도전하라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배낭여행을 와도 책에 소개된 곳으로만 다닙니다.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런던에 가면 런던대학 학생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봐야 합니다. 새로운 아젠다들이 보일 것입니다. 대기업 입사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분이라면 시골마을이나 서울의 가난한 동네 이장에 도전하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셨지만 늘 나를 보며 “네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갈 때 다른 사람 입에 밥이 들어가는지 살펴라”하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게는 공부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나는 학력에서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남을 따르게 하려면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눈 앞의 성공 중요하지 않다”
독서 꿈 협동 도전 강조

여러분에게 도전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딪치는 힘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가 일을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면 싫습니다.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실패한다고 잃을 것이 많습니까? 청춘은 용기와 도전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큰 성공 얻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 가장 큰 것을 잃고 실패할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장은 출세를 보장하지 않는 길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박원순 시장이 강연 후 학생들 모두와 기념 사진을 찍었다.

“박원순 시장님! 질문있어요!”

동국대 학생들 강연 후 배우자 선택, 진로 등 고민 풀어내

박원순 시장은 강연 후 동국대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동국대 학생들은 마치 삼촌과 대화하듯 자신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 북한학과가 최근 학과 개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일 문제는 대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답변: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있어 북한학과 학생들이 힘드실 것 같다. 조금만 더 통찰력을 갖고 보면 비전 있는 학과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것일 뿐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은 계속될 수 없다. 북한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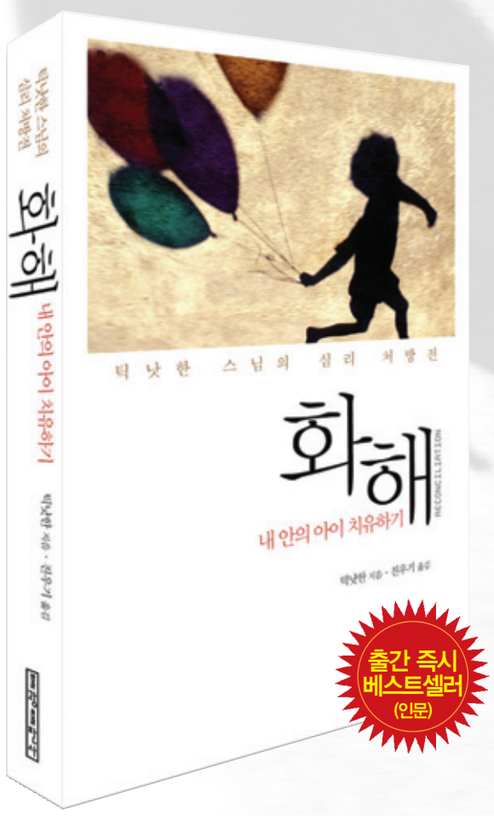
질문: 배우자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답변: 서로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다. 국·영·수를 잘 하는 것보다는 인간관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거칠고 외롭고 힘든 인생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가치 있는 도전이 무엇인지 구분을 잘 못 하겠다.

답변: 그렇기 때문에 부딪쳐 보라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면 넓은 길이 생긴다. 나이와 상황에 맞게 뭐든지 도전해보고, 안 되면 자원봉사부터 시작해보라. 많은 것에 도전하다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여러분 나이에 더 많은 혼란과 방황을 겪었다. 여러분은 그 시절의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고민만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면 도전해보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화〉 이후 9년, 틱낫한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틱낫한 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너무 오랫동안 나를 내버려둔 건 아닐까?’
내면 아이를 찾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길잡이
꼭꼭 숨겨 두었던 마음속 짐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머물다 쉬어 갈 수 있는 책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240면 | 13,000원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명상! 하고 싶지만 왜지 어려운가요?

잭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156면 | 12,000원
부록 : 명상유도 CD

초보자를 위한 본격 명상 입문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과 창의력
마이클 조던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기획력과 업무력 향상
평온한 마음과 면역력 증강
– 당신도 얻을 수 있다


한마음선원 본원 혼성합창단의 선법가 공연은 관객들에게 법열을 선사했다.

“둘로 보지 않을 때 그도 보살 나도 보살 되네”




큰스님 가르침, 무대에 펼치려 했을 뿐

‘한마음음악제’ 무대 뒤 숨은 주인공 원일훈 · 배윤호 감독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를 처음 접했습니다. 내가 불교에 대해 처음 느꼈던 따뜻함을 이 무대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공연의 총감독을 맡은 원일훈 홍익대 교수(사진 왼쪽)는 불자가 아닌 가톨릭 신자다. 그러나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이번 무대의 총감독을 맡아 성공적인 합창제를 완성했다.

그와 함께 무대 연출을 담당한 배윤호 중앙대 조교수(사진 오른쪽)도 불자는 아니지만 종교적 편견 없이 이번 공연의 무대 연출을 맡았다. 두 사람은 천명이 넘는 출연자들이 무대에 오르는 이번 공연을 완벽하게 연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함께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번 공연의 성공을 한마음선원 신도들에게 돌렸다.

배윤호 감독은 “완벽한 무대 연출을 위해서는 무대 밖에서 보이지 않는 흐름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프로 무대 못지않게 그런 흐름들이 완벽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원일훈 감독도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다. 그것이 1년 동안 이 무대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됐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힘들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원 감독은 우연한 기회에 대행 스님을 알게 됐다. 본원 신도였던 대학 선배가 원 감독에게 프로젝트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그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원일훈 감독은 “큰스님이 말씀하시는 도리가 근본적인 나를 찾는 것과 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학문적 흥미를 느꼈지만 점차 타 종교인인 나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배윤호 감독도 “종교는 없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세상의 고뇌와 법을 실행하는 스님들을 만나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이번 무대에서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소통과 화합, 신도들의 열정이었다. 두 사람의 고민과 신도들의 열정이 성공적인 무대를 만든 것이다.

원일훈 감독은 “영상 중에 이미지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다. 그 때 정말 대행스님의 법문처럼 합창단들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배윤호 감독은 “참가자들이 오랜 열정으로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미 내재된 디자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이끌어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원 감독과 배 감독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모아서 조화로운 무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흡족해했다.

박기범 기자

한마음음악제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서 성료

선법가를 통해 모든 스님과 신도들이 하나된 한마음선원(주지 혜원) ‘한마음음악제’가 11월 12~1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첫날인 12일에는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 1회 공연을 선보였다. 13일에는 국내 · 외 지원 신도들과 함께 2회에 걸쳐 화합의 장을 펼쳤다. 한마음선원은 이번 합창제 수익금 전액을 한마음선원 후원기관인 사회통합위원회, 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와 공동명의로 ‘더프라미스’와 ‘뷰티플마인드’를 통해 소외계층지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마음선원은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병어린이와 간암환자를 돕기 위한 합창제를 개최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연신 눈물을 흘리는 관객이 많았다. 한 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해서 박수를 치며 앵콜을 연호했다. 손안식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공연장을 나서며 연신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선법가는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 스님의 게송과 법문에 곡을 붙인 것으로 수행의 지침이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들로 이뤄져 있다. 관객들은 합창단이 부르는 선법가가 마음을 울릴 때마다 합장을 하며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12일 대행 스님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중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했다.

대행 스님은 첫 공연 리셉션에서 “공생실천이 절실한 때에 그 뜻을 음악으로 전하니 그 울림이 더욱 감동적이었다”며 출연진과 관계자 그리고 동참대중에게 “힘모아 소원성취하십시오”라고 축원의 박수를 보냈다.

한마음음악제 제1부는 좌정한 스님의 목탁 정근과 선원스님들의 합창으로 문을 열었다. 스님들이 부른 ‘자유인의 한마음’과 ‘그 마음 그대로’는 청중에게 고요하면서도 웅장하게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흐트러짐 없는 스님들의 움직임은 관객들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대행 큰스님이 직접 공연장을 찾았다.


주지 혜원 스님이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어 본원 혼성합창단이 노래했다. 이들은 ‘선법가는’과 ‘내가 무슨 걱정을 하랴’를 안정된 화음으로 소화해 혼성 합창단의 매력을 발휘했다.

15개 지원 어머니연합합창단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와 ‘강 건너 봄이 오듯’을 불러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강 건너 봄이 오듯’에서는 소프라노 성채영 씨가 함께해 선법가의 깊이를 더 했다.

제1부 전반부가 선법가 특유의 고요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전했다면 후반부는 발랄하고 역동적인 무대로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린이합창단은 율동과 함께 ‘한마음 어린이’를 합창했다. 어린이의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은 때 묻지 않은 부처님 말씀, 선법가의 가르침과도 일치했다. 어린이합창단이 “우리는 한마음 주인공~”이라며 합창을 마칠 때는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한 참 동안 이어졌다.

푸른 눈, 금발 머리로 한복을 입고 노래한 독일지원의 공연도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노래하기 위해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찾았다. 독일 지원 신도들은 제법 유창한 한국말로 ‘푸르게 살라!’과 ‘아리랑 연곡’을 불렀다. 금발 머리와 푸른 눈의 독일신도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은 이색적이었지만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특히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선법가를 열창하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할 정도였다.

제1부 행사의 마지막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모듬북 연주였다. 신명나고 경쾌한 연주는 청중들을 ‘한마음음악제’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했다.

제2부는 대행 스님의 공생 공명 실천 가르침에 뜻을 함께하는 종교를 초월한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 공연으로 구성됐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은 ‘침향무’로 제2부의 시작을 알렸다. 국악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창조적인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황병기 선생의 연주는 1만 관객의 숨소리마저 멈추게 만들었다.

이어 국내 최초의 대학 첼로 앙상블 ‘이화첼리’가 헝가리 무곡을 연주했다. 이화첼리는 2004년 창단 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음악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따뜻한 마음을 사회에 실천해 온 팀이다.

소프라노 이춘혜와 테너 이승묵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넬라판타지아’를 불러 많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씨는 이화첼리와 함께 영화 시네마 천국 중 ‘러브’ 테마와 ‘리베르 탱고’를 연주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가슴으로 음악을 느끼며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가 음악이고 예술이었다.

너 나 하나라네

생명 가진 풀 포기 하나도 나 아님 없고
내 생명 아닌 것 없고 내 모습 아닌 것 없어
수 억겁 세월을 거쳐 오면서
그런 줄도 몰랐던 내 모습이
상대의 모습 속에 들어 있었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둘로 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 되어
그 사람도 보살이 되고 나도 보살 되네

–선법가 중

대행 스님 법문 · 게송 깨달음의 노래로 울려 퍼져 1만여 청중 환호 갈채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가장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제의 절정을 장식했다. 탭 댄스로 구성한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서막’은 청년회가 그동안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알 수 있었다. 청년회원들의 공연은 그 어떤 브로드웨이 뮤지컬보다 강한 전율을 느끼게 했다. 청년회는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 ‘아바’의 히트곡을 열창해 관객의 흥을 불러일으켰다.

청년회가 역동적인 무대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와 선원 스님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울리는 연주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가 전하는 ‘오버 더 레인보우’와 ‘공심 공체 둘 아닌 노래’는 청중들의 가슴에 와 닿았다.

특히 하트시각장애인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무대 뒤에 있던 선원 스님들이 손에 연꽃등을 들고 등장했다. 스님들은 어두운 무대 위를 밝게 비추며 시각 장애인 연주자들 옆에 서서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노래를 마친 뒤 함께 퇴장했다. 시각 장애인 연주자들은 연꽃등을 들고 있는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 차분하게 무대를 벗어났다. 그 순간 객석에 있던 청중들은 모두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던 대행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이어서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모난 것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자유인이 된다’와 ‘너, 나 하나라네’, ‘돌장승 우는 소식’ 등을 열창했다.

모든 공연이 끝난 뒤 주지 혜원 스님이 무대에 올라 “잘 보셨는지요.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음악회는 막을 내렸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마음음악제에 참석한 신도와 내빈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한 장면을 선보인 청년회는 이날 가장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했다.

모난 것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자유인


맑고 순수한 어린이 합창단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대행 스님의 법과 일치한다.


해외지원 120명 신도들은 서투른 한국말이지만 최선을 다해 선법가를 불렀다.

“박수 치느라 어깨가 아플 지경이었다”

1만여 관객 울린 감동의 물결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은 감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듯 환희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많은 신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공연 후 관객들의 반응을 모아봤다.

▶손안식 중앙신도회 부회장
“감격! 감격! 또 감격이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다.”

▶김영숙 보살
“공연 후 눈물을 흘렸다. 우주 법계에 다 통했을 것이다. 감동적이었다.”

▶이계진 前 국회의원
“분열된 우리 사회에 한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

▶광명선원 청고 스님
“음악제에 안 온 사람들 다 후회할 것이다.”


스님들의 합창은 웅장하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사진제공=한마음저널 편집실


사진제공=한마음저널 편집실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씨가 이화첼리와 함께 연주를 하고있다.


황병기 명인(사진 왼쪽)의 연주에 순간 객석은 숨소리조차 멈췄다. 사진제공=한마음저널 편집실



“한 순간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 깨달아”

독일에서 10시간 날아와
큰스님 은혜 갚으려 노래
선법가로 世界一花 펼쳐

공연에서 45명의 독일지원 합창단이 한복까지 차려입고 열창하는 모습에 청중들은 가슴 깊은 환희심을 느꼈다. 독일지원 참가자들은 음악제를 통해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모리츠 에플레(17)는 “내 실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 힘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이 노래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알버트 랑엔지펜느(19)도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마음을 모으고 ‘관(觀)’을 하려고 노력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긴장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모든 것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독일과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지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고 있었기에 세종문화회관의 큰 무대도 이들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다.

독일지원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주말이면 선원에 모여 몇 시간씩 연습에 매진했다. 그리고 합창제 무대에 올라 청중들에게 선법가를 전했지만, 정작 그 무대를 통해 가장 많은 것을 얻은 것은 독일지원 학생들이었다.

모리츠는 “나는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합창을 통해 전체가 하나 되고, 전체의 역량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알버트는 “한 순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모리츠의 동생 한나 에플레는 “무대 위에서 마음을 모으고 합창했던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할 것이다. 마음을 모으는 공부를 꾸준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허락을 얻어 이번 합창제에 참가했다.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합창제는 이번뿐이라 꼭 참석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연습에 임했다.

모리츠는 “큰스님 법을 통해 철학이나 학문을 배울 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큰스님의 가르침은 항상 나를 깊은 세계로 이끌어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알버트는 불교를 접하게 되면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한다. 깊은 마음을 갖고 불자로서 살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에릭 비벤(20)은 불교를 통해 세상 만물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있다. 그는 “불교에서 우주와 모든 것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데 살면서 그 가르침이 맞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나도 사람이나 사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은 “아이들이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음 모으는 법을 알아가는 것 같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불교를 다양한 학문과 접목시켜 세계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눈부신 황금 이파리의 함성이 끝나면, 축제도 끝나리

은행나무 이야기



나무의 고향은 산이요 숲속이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산에 살지 않는다. 삭막한 도심의 가로수로 낯익다. 도심을 점령한 산악게릴라가 아니라 시멘트가 도시의 색깔이 된 세상에 은행나무는 도시의 팍팍함을 삭혀주는 고마운 위로다. 여름철엔 짙푸른 녹음으로 위로하고 가을엔 황금빛 단풍으로 근심을 잊게 한다. 바람이 불어 노란 은행잎이 눈발처럼 우수수 떨어지면 어른도 아이가 된다. 영화, 드라마의 명장면에도 자주 등장한다. 빽빽하게 달린 은행알을 줍느라 좀 고약한 냄새를 기꺼이 감수하기도 한다.

은행 열매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씨앗의 일부이다. 은행나무는 겉씨식물이라 열매가 아니라 사실은 씨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알, 열매라고 부르고 있다. 9월부터 암그루에 노란색 열매를 맺는다. 은행의 열매는 과육성분의 외피 안에 단단한 껍질을 지닌 백색의 알맹이가 들어 있다. 노란색의 외피(씨껍질)는 악취를 풍기며 비오볼이라는 점액 물질이 있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을 일으킨다. 껍질을 벗긴 열매를 백과라고 하는데, 날것으로 사용하면 유독하기 때문에 익혀서 사용한다. 씨앗은 진해, 강장의 효능이 있고, 뿌리는 백과근이라고 해서 허약을 보한다. 잎에서는 징코민을 추출하여 성인병 치료 약재로 이용한다.

은행나무는 오래 살며 수형이 크고 깨끗하다. 병충해가 거의 없으며 넓고 질은 그늘을 제공한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정자목 또는 풍치수, 가로수로도 많이 심고 있다. 또, 껍질이 두껍고 코르크질이 많아 화재에 강하므로 방화수로도 이용된다. 목재는 황백색이며 조각재, 가구재로 쓰인다. 은행나무는 불상 조각의 좋은 재료다. 마이산 금당사, 지금은 작은 산사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큰 절이었다. 이곳에 한국 유일물이 있다. 바로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삼존불이다. 이 불상의 예술적인 가치나 미려한 조각은 접어 두더라도 그 소재만큼은 잘 살펴 볼 일이다. 불상 자체가 천 년이 넘은 하나의 커다란 통 은행나무이기 때문이다. 높이 230cm, 가로 165cm다. 이 불상을 조각하려면 얼마나 큰 은행나무가 필요했을까?

은행(銀杏)은 은빛 나는 살구라는 뜻

은행(銀杏)은 은빛 나는 살구라는 뜻이다. 은행 열매가 살구와 비슷하고, 표면에 은빛 나는 흰 가루에 덮여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압각수(鴨脚樹)라는 이름을 쓰는데, 잎이 오리발(鴨脚)과 닮아서 붙인 이름이다.

은행나무목은 은행나무과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 과는 고생대 이첩기(2억 8600만~2억 4500만년 전)에 나타난 15속(屬)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긴크고이테스속(Ginkgoites)과 바이에라속(Baiera)은 모두 멸종했는데, 현생하는 은행나무 잎과 비슷한 잎이 화석으로 남아 있다. 중국이 원산지인 은행나무를 종종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도 한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절의 뜰에 심어왔다.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심어왔는지 확실하지 않은데, 고려시대 이전에 승려들이 중국에서 씨를 가져와 절 근처에 심은 것이 전국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나무는 고목이 많다. 다 자란 은행나무의 높이 10~15m에 이르나 간혹 높이 40m까지, 지름 4m까지 자란 것도 있다. 전국에 산재한 은행나무 중 고목 21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방충작용하는 부틸산 있어 책갈피로 딱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은행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하며 오래 된 것이다. 나이가 11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 42m, 뿌리부분 둘레 15.2m, 가슴높이 둘레가 12.3m이다. 줄기 아래에 혹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의 스승인 대경대사를 찾아와서 심은 것이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세자 마의태자가 나라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에 심은 것이라고도 한다.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뿌리가 내려 이처럼 성장한 것이라는 설도 전한다.

용문사는 많은 전란으로 여러 번 피해를 입었다. 특히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군대해산)에 항거해 정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의병의 본거지라 해 사찰을 불태워 버렸으나 이 은행나무만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아 천왕목(天王木)이라고도 불린다. 조선 세종 때 정3품의 벼슬인 당상직첩(當上職牒)을 하사받은 명목(名木)이다.

이 나무에는 또한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 어느 사람이 이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었을 때 톱 자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맑던 하늘이 흐려지면서 천둥이

마이산 금당사 대웅전 봉안한 삼존불은 천년 넘은 한 그루 은행나무로 조성돼

일어났기 때문에 중지하였다한다. 또한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소리를 내었다고 한다. 고종이 승하하였을 때에는 커다란 가지가 1개 부러졌고, 8·15 해방과 6·25사변 때에도 이 나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한다.

은행나무는 싹이 튼 지 20년 이상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씨를 심어 손자를 볼 나이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공손수(公孫樹)라고도 부른다. 가을에 껍질 안에 들어 있는 씨를 까서 구워먹거나 여러 요리의 재료로 쓰이기도 한다. 잎에는 여러 가지 화합물이 들어 있는데, 특히 방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틸산이 있어 잎을 책 속에 넣어두면 책에 좀이 먹지 않으며, 몇몇 플라보노이드계(系) 물질은 사람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한반도에서는 기온이 낮은 고원지대(해발 500m 이상)와 북한 북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분포한다. 종자로 묘목을 양성하기가 쉽고, 묘목은 옮겨 심어도 잘 살며, 어릴 때의 성장이 빠른 편이다. 삽목을 하거나 꺾꽂이로도 번식이 잘 된다.

은행나무가 잘 번식하는 것처럼 저축은행(銀行) 사태도 잘 해결되고 은행동 사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은행알처럼 오순도순, 풍성했으면 좋겠다.



눈부신 황금 이파리들이 모두 지고나면 두꺼운 외투를 꺼내 겨울을 맞아야할 것이다. 신록의 축제가 끝나가는 분위기다.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가의 쟁사 해결 방법(2) 칠멸쟁법③

화합을 지키는 지도자만이 존경받는다

멱쟁은 비구들이 어떤 비구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비난했지만, 그 비난받은 비구는 자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반론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 쟁사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현전비니+멱죄상'이다.

(3) 현전비니+멱죄상(覓罪相, tassapāpiyyasikā)

멱죄상은 범계자가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할 경우, 승가 측에서 비구 자격을 일부 정지시키게 되는 징벌갈마의 일종이다. 빨리율에 의하면, 우왈라(Uvāḷa)라는 비구는 승가에서 죄를 검문 받으면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시 죄를 지었다고 번복하고, 다시 죄를 지었다고 했다가 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등 대답을 회피하며 발언에 일관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붓다는 우왈라 비구에게 백사갈마에 의해 멱죄상갈마를 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 이 갈마를 받은 자는 비구의 권리 중에서 중요한 18가지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구족계를 주어서는 안 된다거나, 청정비구의 포살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거나, 비구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등이다. 이 멱죄상갈마는 처음부터 그 사건을 위하여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검문하던 중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승가측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멱죄상갈마가 여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부정(不淨) ② 무치(無恥) ③ 비난 ④ 승가가 그에게 멱죄상갈마를 행함 ⑤ 화합하여 여법하게 한다고 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죄를 지어 부정한 자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데 다른 자로부터 비난당하여 승가가 그에게 멱죄상갈마를 하여 비구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승가의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다.

3. 범쟁(犯諍, āpattādhikaraṇa)

범쟁은 율장의 계학처가 금지하는 범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쟁사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현전비니+자언치(自言治, paṭiññā)

자언치는 비구의 자발적인 고백을 받아들여 그에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그 자백에 따라 벌을 적용하는 것이다. 가벼운 죄일 경우에는 다른 비구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며, 보다 무거운 죄일 경우에는 승가의 갈마를 통하여 해결하게 되는데 이때 죄를 지은 당사자의 자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 멸쟁법의 목적은 죄를 지은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납득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죄를 적용하여 갈마를 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 〈사분율〉에 의하면, 15일 포살에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인 비구들 중에 청정하지 못한 자가 끼어 있다며 설계(說戒)를 거부하신다. 그러자 목련 존자는 천안으로 그 범죄비구를 찾아내어 무리하게 밖으로 끌어내었다. 이를 목격한 부처님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목련이여! 그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한 후에 죄를 주어야 한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이후, 모든 비구를 위하여 자언치멸쟁(自言治滅諍)을 제정하니 이와 같이 자언치를 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자언치를 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죄를 지은 본인의 '올바른' 자백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잘 모르거나 잘못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깨워주고, 그가 납득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 현전비니+여초부지(如草覆地, tiṇavatthāraka)

여초부지는 현전비니의 법정에서 자언치로 해결이 안 되고 서로 대립하여 싸우고 있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수습하기 어려울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서로 화해하는 방법으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승가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하고 그것을 양쪽 비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구들이 서로 다투며 좋지 못한 말을 하는 등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청정한 비구를 찾아가서 참회하면 용서받게 되는데, 만약 승가의 전원이 서로 비난하며 두 파로 나뉘어 싸웠을 경우에는 청정 비구가 없어지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출죄(出罪)하는 것이다. 빨리율에 의하면, 비구들이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쟁론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들이 이 죄에 대해 서로 단사(斷事)하면 승가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 복잡해지고 결국 파승에 이를 위험성까지 있음을 알고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자, 붓다는 여초부지에 의해 해결하라고 하신다. 여초부지는 쟁론하는 양쪽 비구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인 뒤에, 한쪽 파의 비구 중에서 총명 유능한 비구가 나와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고하며, 자신을 비롯한 승가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이 쟁사를 여초부지에 의해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다른 파의 비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백이갈마에 의해 양측 비구들이 각각 받아들이면 여초부지에 의해 쟁사는 해결되는 것이다.

이 때, 바라이나 승잔죄와 같은 중죄(thūlavajja)나 재가상응죄(在家相應罪, gihipaṭisaṃyutta)는 제외된다. 이 몇 가지 중죄(重罪)를 제외하고 비교적 가벼운 죄는 양자가 화해하고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것이 여초부지이다.



멸쟁법의 의의는 승가의 화합 유지에 있는 만큼 옳고 그름을 따져 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진은 부처님 오신 날 서울시를 행진하는 한국과 세계 각국 스님들

4. 사쟁(事諍, kiccādhikaraṇa)

사쟁은 승가의 갈마나 그 외의 행사 절차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유효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쟁사이다. 빨리율에 의하면, 이 사쟁의 해결 방법은 현전비니이다. 〈십송율〉도 빨리율과 마찬가지로 사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전비니만을 들고 있으나, 〈오분율〉 〈사분율〉 〈마하승기율〉은 칠멸쟁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Ⅳ. 결론

이상으로 빨리율을 중심으로 불교 승가에서 발생하는 4종의 쟁사와 그 해결 방법인 7종의 멸쟁법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승가의 구성원들은 항상 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함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이미 쟁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멸쟁법에 근거하여 여법여율(如法如律)한 판단을 내려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교 승가가 제시하는 멸쟁법의 특징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화합 승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승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대립이나 싸움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가라앉혀 승가에 분열이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여법하게 화합승을 실현하여 안정된 승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멸쟁의 원어가 '아디까라나 사마타(adhikaraṇa-samatha)', 즉 '쟁사(아디까라나)를 가라앉힌다(사마타)'라고 하여, '해결한다' 같은 표현이 아닌 '가라앉혀 고요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엿볼 수 있다.

화합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멸쟁법을 통하여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법설자에 의한 판단을 쟁사 해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여법설자에 의한 쟁사의 해결은 다수결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아무리 지지하는 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법설자들에 의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국 승가의 쟁사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이 남기신 법과 율이며, 이 법과 율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경받는 총명 유능한 비구, 즉 여법설자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매우 까다로운 선별 자격조건을 통과해야 하며, 그만큼 이들이 내리는 판단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출가생활에서 평소 여러 가지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던 비구들의 의견이 승가의 중대사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한 승가의 구성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승가는 화합 승가이어야 하며, 승가의 모든 구성원들은 화합을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승가 지도자들의 임무는 승가의 화합을 지키는 것이며, 법과 율에 근거하여 승가의 화합을 지키는 지도자야말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불제자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덕망 높은 여법설자의 모습인 것이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불교 승가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지금도 곳곳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지만, 승가의 생명이 화합에 있다는 점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진리임이 분명하다. (끝)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일본 동경대 박사)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4)

진정한 평화는 멸쟁(滅諍)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도처에서 폭력과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평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비폭력'이다.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화주의자들은 폭력에 맞서 비폭력으로 대항하라고 말한다. 조계종 화쟁위가 발표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에도 '비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흔히 비폭력의 원어가 '아힘사(ahiṃs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힘사는 '불해(不害)'로 번역되며, '불살생(不殺生)', '불상해(不傷害)'로도 번역된다. 아힘사의 원래 의미는 "해한다" 또는 "죽인다"의 뜻인 힘사(hiṃsā)에 아(a)라는 부정사가 붙은 말이다. 즉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의 뜻이다.

아힘사라는 단어는 초기경전에도 몇 번 나온다. 이를테면 〈법구경〉 261게에 "오직 네 가지 바른 진리를 깨달아 거기에 머물러, 계를 지켜 남을 해치지 않고, 감각 기관을 잘 다스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된 사람을 테라(Thera, 장로)라고 부른다"고 나온다. 또한 270게에 "그가 아리야(Ariya, 성자)가 아닌 것은, 그가 생명을 해치기 때문이다. 일체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아리야라 부른다"고 나온다.

〈디가 니까야〉에 "진리와 법과 길들임과 제어, 청정함과 계와 포살, 보시와 불해(不害), 비폭력을 좋아하고, 굳건하게 받아 지녀 평등함을 실천한다"[DN III, p.147; 각묵 옮김, 〈디가 니까야〉 3권(초기불전연구원, 2006), p.267]라는 대목이 나온다.

각묵 스님은 빨리어 아힘사(ahiṃsā)를 '불해(不害)'로, 아사하사(asāhasa)를 '비폭력'으로 번역했다. '아사하사'는 '난폭하지 않음', 즉 '비폭력'을 뜻한다. 이처럼 '불해'와 '비폭력'은 본래 다른 말이다.

그런데 자이나교(Jainism)에서는 아힘사가 '비폭력(nonviolence)'의 의미로 주로 쓰인다. 특히 '비폭력'이라는 단어는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848)와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929~1968)이 사용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킹 목사가 사용한 비폭력이란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 수단을 말한다. 따라서 비폭력도 폭력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투쟁에 불과하다.

한편 비폭력과 같은 의미로 '무저항주의(無抵抗主義)'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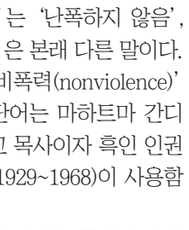
'비폭력'이나 '무저항주의'도 원래의 아힘사(불해)의 의미와는 약간 다르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힘사의 원래 의미는 '상처 입히지 않기(not hurting)'다.

이 단어 속에 남과 다툰다는 의미는 없다. 불교는 '격분하지 않음', 즉 '무분격(無憤激, asārambha)' 혹은 '격정 없는', '화내지 않는(asāraddha)' 것을 이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아힘사의 정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마스다니 후미오(增谷文雄)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를 따라 아귀다툼하는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 세계를 진정한 평화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힘사(무해)의 덕목이 요청된다.

이 덕목은 내가 나에게 소중하듯이 남들도 저마다 자기가 소중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서 사랑과 자비도 생겨나는 것이며, 평화와 번영도 구축된다. 원효의 화쟁론(和諍論)에서 화쟁의 궁극적 목표는 '화합(和合)'에 있으며, 이것을 멸쟁법(滅諍法)이라고 말한다.

즉 '다툼 없음[無諍]' 혹은 '다툼의 소멸[滅盡]'을 원칙으로 한다. 진정한 평화는 '비폭력'이 아니라 '멸쟁' 혹은 '무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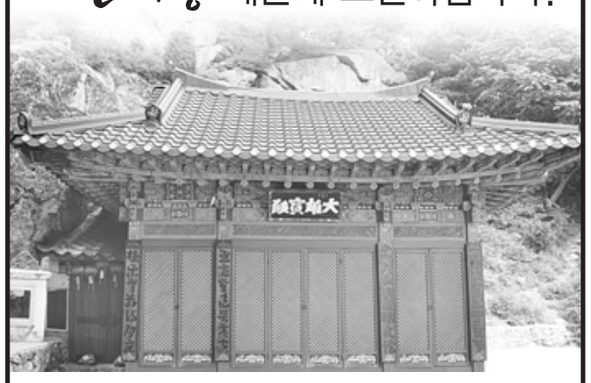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소리 없는 함성, 우레 같은 침묵이 바로 법정

"다산은 타의로 전라도 땅 끝 강진 땅에 유배되어 외롭고 쓸쓸한 다산초당에서 18년에 걸쳐서 학문 대업을 이루었고, 법정스님은 자의로 17년 동안 불일암에 칩거하면서 '무소유' 불도를 깨치셨지요."

다산과 법정 스님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70). 2003년 다산연구회를 만들어 다산 사상을 널리 펴고 있는 박 선생은 2004년부터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메일링을 시작해서 현재 35만 명 남짓한 사람들에게 다산 말씀과 정국을 연결시켜 풀어내는 시사 메일을 보내고 있다.

"1976년 8월 나, 김남주, 김정길 셋이서 불일암을 찾았어요. 법정 스님에게 불교를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독재정권이 강고(強固)해지는데 스님이 불일암에만 계셔서야 되겠나. 우리들이 떠들어봤자 먹히지 않지만 스님같은 어른이 한 말씀을 하면 파문이 크지 않겠어요. 스님을 존경하고 무소유가 좋아서 모시러 갔지요."

점심을 들고 광주에서 출발해서 해질 무렵에야 불일암에 도착했는데 스님은 계시지 않았다.

"엄청나게 더울 때였어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으려니까 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셨어요. 그때 밤새 나눈 이야기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스님 수필이야기도 하고, 민주회복을 향한 우리 열망도 이야기 드렸어요. 가지고 갔던 수박을 쪼개 먹었는데 스님이 땅바닥에 떨어진 수박씨를 하나하나 쓸어 담으시더군요. 왜 번거롭게 줍느냐고 여쭸더니 그냥두면 냄새를 맡고 개미들이 모여들어 잘못하면 밟아 죽이게 될지도 모르니까 쓸어 담아야한다고 그러셨어요. 불일암 마당 뒤쪽으로 달맞이꽃이 많은데 밤이면 꽃이 평평 쏟아지잖아요. 촛불 켜지듯이. 달맞이꽃이 벙그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민주화 함성이 들리듯이 소리 없는 함성입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 표현이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독재가 강고(强固)해지는데
불일암에만 계시면 되겠나…모시러 가

밖에서 꾸짖어 달라는 목소리에
말과 글 묵묵히 실천하는 걸로 답해

예로부터 스님들은 여름안거를 마치고 만행 길에 오를 때 짚신을 절반은 쫀쫀하고 단단하게 삼고, 나머지 절반은 헐겁고 느슨하게 삼아 바랑에 걸고 다녔다. 잘 다져진 길을 걸을 때는 단단하게 삼은 짚신을 신고, 풀섶이나 산길을 걸을 때는 헐거운 짚신을 신었다.

"스님도 밖에 나오셔서 소리쳐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드리고 싶었어도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차마 말을 못하고는 헤어지면서 여기서 좀 추스르시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서울로 안 가시면 광주로 오십시오. 광주에서라도 자리를 잡으셔서 세상일을 도모해야지 암자에서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스님은 '세월이 약이니까 세월을 좀 두고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말을 거절하거나, 차단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뒤로도 선생일행은 귀를 세우고 법정 스님 행적을 꾸준히 좇았다.

"놀라운 일은 도인이든 종교인이든 간에 당신이 했던 말씀과 글대로 실천한 사람이 옛날 성인군자라면 모를까 없었어요. 그런데 스님이 입적하신 뒤에 길상사에서 널도 없이 얇은 홑청 같은 가사 하나 덥고 나오는데 그 때 엄청 추웠다고 그래요. 보도를 보니까. 스님 뒤에 불자들이 따라오면서 '아이고, 우리 스님 추우시겠다. 널에도 안 들어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요새 세상에 글과 말을 실천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유일하게 가까이 간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무소유를 실천하신 일은 참 대단하다고 봐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그만한 경지에 이르신 어른이 정말 잘못되어가는 시국에 대해서 '네 이놈들! 백성 무서운 줄 알아야지. 어느 역사책에 이렇게 백성을 탄압하고 집권해도 되느냐고 쓰여 있느냐? 한 마디 하셨어야 하는데 아쉬웠어요.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5·18이라던가 나라에 큰 변괴가 있을 때 좀 나서주셨으면 좋았으련만…"

실학자 다산 연구가다운 말씀이다. 마침 시인 안도현이 녹색연합에서 펴내는 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2011년 11월호 '종이는 숲입니다' 꼭지에서 나눈 말씀이 떠올라 모셨다.

"1980년대는 제가 쓰는 시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서 현실을 바꾸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때 현실이란 민주화랄지 통일이랄지 거창한 주제였어요. 거대 담론 속에 시를 계속 던져두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90년대 중반에 시골 학교로 복직을 했는데 너무 커다란 것들만 좇아갔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현실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것들을 시에 담았죠. 들꽃, 나무, 양철지붕이나 또는 연탄, 뭐 이런 작고 하찮은 것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큰 기관차가 나사못 하나 빠지면 멈춰서는 것처럼 말이죠.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꿨어요. 슈마허의 〈작은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그때 진짜 고마웠어요."

성리학에서 이(理)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산은 이를 가지고는 작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며 무위논리를 씻어내지 않고는 나라가 될 수가 없다고 했다. "법제를 만들고, 생산도 해야 하고 기술도 개발해야 나라를 통치할 수 있지 않느냐? 다산은 합리주의자이고 증거주의자이기 때문에 합리성이 없으면 뭐든 부인했어요." 선생은 불교를 무위나 이에 치우친 종교로 여긴다. 그러나 당신이 한 말일지라도 그대로 따르지 말고 거듭 확인해보고 증명이 되면 따르라고 할 만큼 붓다 가르침은 철저하게 실학이었다. 그렇더라도 선생 같은 학자라 오해를 하게 만든 책임은 온전히 한국불교계에 있다.

법정 스님은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에 1972년 12월 유신철폐개헌서명 운동에 뜻을 함께 했고, 1973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1975년, 독재 정권은 인혁당재건위 사건이라 불리는 정치 조작극을 벌인다. 도예종을 비롯한 여덟 인사들을 국가전복기도혐의로 구속, 사형을 언도했다. 그때 민주인사들은 입을 모아 독재정권 조작극이라고 외쳤다. 그러자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채 20시간도 지나지 않아 여덟 사람을 모두 사형시키는 만행을 저지른다. 큰 충격을 받은 스님은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며 칼자루를 쥐고 있는 독재자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러자 독재정권은 보란 듯이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다. 스님은 생때같은 젊은이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든 반체제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일암을 짓고 산으로 들어갔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박해를 받으니까 증오심이 생기더군요. 내 마음에 독을 품는 게 증오심인데 이래선 수행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하고 느꼈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이탈하는 게 괴롭고, 중노릇하는 내 본분사가 뭐냐고 스스로 물었지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지요."

법정 스님은 붓다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며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불교를 주창하며 철저한 실천이 불교라고 했다. 불일암 시절 스님은 선생 말씀처럼 '소리 없는 함성'을 외치다가 강원도로 들어가셨다. 이태 뒤인 1994년 몸을 일으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쳐, 시민들 스스로가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히는 수행자로 사회운동가로 자연주의자이며 생태철학가로 작지만 큰 뜻을 펼치는 터전을 마련했다. 2010년 3월 11일 떠난 스님에게 '우레 같은 침묵'에 드셨다는 말씀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스님이 어디선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다산 초당에 가서 읽으니까 집에 앉아서 읽는 맛과는 견줄 수 없게 아주 느낌이 다르더라고 쓰신 글을 읽었어요. 스님 입적에 앞서 나온 〈내가 사랑하는 책들〉에 소개된 국내 서적이 몇 권 안 되는데, 거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가 들어가 있더군요. 스님도 〈유배지…〉 보급에 한 몫을 하셨어요."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생은 전남 무안 사람으로 다선(茶仙)으로 알려진 초이 선사와 동향이다. 1964년 대학시절에 한일회담 반대시위로 처음 구속되었던 선생은 1965년 월남파병 반대 시위를 하다 또 구속됐다. "집회법과 반공법에 위반을 했다면서 조사를 했죠. 변호사들이 시험 때가 되었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으라고 풀어줬는데 집에 와보니까 군대 갈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구속됐을 때 학교에서 퇴학시켰기 때문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군대를 갔죠. 1968년에 제대해서 재입학을 했어요." 그 뒤로 선생은 1973년 김남주 시인의 전남대 '함성지' 사건으로 수감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있을 때였다. 12월 27일 항소심에서 박석무 무죄, 이강, 김남주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풀려날 때까지 1973년 한 해 동안 감옥생활을 했는데, 시국사범에게 들어오는 도서 검열이 굉장히 심해요. 검열을 피하려고 아예 한문책을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봉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들여오면 잘 모르기도 하고, 한문은 보수라고 생각하니까 검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산전서〉도 다시 정독을 했지요. 책만 읽는다면 1년이란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할아버지와 증조부가 한학자여서 3대가 문집이 있는 집안으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글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선생에게 감옥은 안성맞춤 교실이었다.

"1980년, 8개월을 도망 다니며 숨어 지내는 동안 번역한 책이 창비에서 나온 〈다산 산문선〉입니다. 1982년에 출소하고 난 뒤 수정을 해서 1984년에 간행됐어요. 책 발문에 다산이 유배지에서 많은 저서를 남겼듯이, 나 역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숨어 지내면서 외롭고 쓸쓸한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이 작업을 했다고 썼어요. 여러 가지로 감회가 깊은 책이에요."

법과대학을 다닌 선생이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교수가 동양 법제사(法制史)는 중국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네 같이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한국 법제사를 전공하면 학계에 큰 기여를 할 뿐 아니라, 대학에서 강의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귀가 솔깃해진 선생은 정치, 경제 사상을 연구한 다산 정약용의 글을 봤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 1~2학년 때 사상계를 많이 봤는데 가끔 실학관계 글들이 나와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법제로 보려고 〈경국대전〉이라든가 〈대전통평〉이라든가, 조선 법제에 대한 연구 〈경세유표〉를 보다가 다산 법사상이 주제로 떠오르면 좋겠다고 해서 〈다산전서〉를 다 봤어요. 다산책은 영

40년 다산 법사상 연구하며
당시 숭유억불 안타까움 공감해

〈다산 초당과 불일암〉에는
합리 상징 다산과 무위 상징 법정 다뤄

인본이 하나, 둘 있을 때니까 아주 희귀하고 비쌌어요. 그래서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봤어요. 내가 1969년에 대학을 졸업해서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삼선개헌 반대도 하고, 1964년에 한일회담 반대를 하면서, 완전히 반정부로 돌아서 있었기 때문에 다산이 쓴 반체제 글에 끌렸어요. 요즘으로 보면 진보 논리랄까. 그래서 1971년에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썼지요. 학술사로 보면 대개 역사 쪽이나 철학 쪽에선 다산을 많이 썼는데, 사회과학 쪽에서 처음으로 다산에게 다가간 거죠. 그 덕분에 전남 쪽에서는 다산 권위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979년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번역하면서 다산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서도 다산 관계 글을 내게 청탁을 하곤 했어요."

"다산은 불교 비판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스님 일대기라든가. 유명한 도승들 시집에 서문이나 발문을 쓴 글이 많아요. 그걸 읽어보면 다산은 꼭 끝머리에 다 재주 있고 학문이 깊은 분이 유교에 들어와서 과거도 보고 현장에 나와서 정치하고 제자도 길러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훌륭한 지식인이 불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가 안타깝다고 쓰곤 했어요." 당시 불교는 숭유배불정책에 막혀 뜻은커녕 기조차 펼 수 없는 처지였기에 스님들은 그야말로 무위(無爲)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4월 28일, 지리산 지맥 조계산 일대에는 오전 내내 주룩주룩 비가 내리며, 겨울처럼 날씨가 추웠습니다. 법정 스님 49재 막재가 빗속에서 열리고 있어 송광사 대웅전 뜨락 곁 승보전을 향해 비를 피해 박물관 처마 안쪽에 섰습니다. 스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대열에 끼어 경건하게 진행되는 의식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생전에 뵙던 모습과 차이 없는 영정을 바라보고, 합장하여 기도를 올리는 엄숙한 수많은 불자 모습도 보았습니다. 막재에라도 참여해야 생전에 나누었던 정에 덜 서운할까 여겨져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생전 높은 도와 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장엄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역시 대종사 법정 스님은 크고 높은 스님이었습니다. 전국곳곳에서 모인 대중들이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춥고 비오는 날인데도 그처럼 운집한 사부대중들 정성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선생이 스님 막재에 동참하고 나서 쓴,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다산초당과 불일암〉 꼭지에서 모셨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밖의 먹물을 가져 오너라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입동이 지난 나무는 발가벗은 모습이다. 창 넘어 나뭇가지에는 잎새가 도리질을 치고 있는 귀염둥이 마냥 좌우로 경쾌히 흔들어 대고 있다. 거기에 연신 눈길이 간다.

아이의 재롱에 부모의 마음이 무척 기쁘겠지만 잎새의 나부낌은 그렇지 만은 않은 듯하다. 왠지 이별의 아쉬움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에 순환의 의미를 안고 있는 가지는 그 해 마다 자란 다른 모양새에서 깊은 침묵과 다짐이 있었음을 엿 볼 수 있다.

글씨를 쓸 때 글씨의 필세가 건쾌(健快)할 경우 토기골락(兎起鶻落)이라고 하는데 가지마다 그런 모습이다. 토기는 토끼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일어나 주위를 살피는 형상을 표현하였고, 골락은 송골매가 창공을 날다 먹이를 발견하고 놓칠새라 잽싸게 몸을 내리꽂듯이 내려온다는 말이다. 역시 글씨의 한 획 한 획에는 느림이 있고 세참이 있어 조화를 이룬다. 비단 인사동 화랑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서화전이 한창이다.

선화(禪畵)의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 선사가 그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이 언제쯤 완성되는지 그 시점을 말해줄 수제자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제자도 걱정을 하고 스승도 걱정을 하고 있었다. 제자는 스승의 성미를 잘 알고 있었다. 스승께서 그림을 그릴 때면 언제나 완벽하게 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스승은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노력하면 할수록 그림은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다.

이건 선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화는 유려하게 흘러나오는 그림인 것이다. 우여곡절 속에 선사는 심혈을 기울여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가 열심히 그리면 그릴수록 제자는 옆에 앉아 연신 고개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이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더 많은 실수를 연발했다. 그리고 먹물이 다 떨어져가자 스승이 말했다.

"밖에 먹물을 가져 오너라."

제자가 먹물을 가지러 밖에 나간 사이, 기이하게도 스승은 걸작품을 완성해냈다.

제자가 돌아와서 그림을 보고 놀라 물었다.

"완벽한 그림인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웃으며 말했다.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네가 옆에 있었던 게 문제야. 내 옆에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게 나의 평상심을 깨뜨린 게 아닌가. 이제는 알았네. 누군가 옆에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애쓸수록 그림은 완벽해 질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마치 저 산에 무지개를 잡으려고 애써 달려가면 이미 무지개는 채비를 차려 더 먼 산에 가 의젓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듯이, 무엇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완벽해 질 수 없다.

자연은 완전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불완전하다. 그 무엇인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 지나치게 집착하면 늘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깊은 원인이 있다. 무엇인가를 남에게 보여주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나의 의식이 상대에게 향하기 때문에 근원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역대 선사들은 평상심을 강조했다. 수행자가 평상심을 잃으면 이미 도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만다. 자유로이 계곡을 누비던 산토끼나 사슴은 작은 인기척에도 고개를 쳐들고 포식자를 생각한다. 그 순간 이미 자유는 상실되고 만다. 주변을 의식한다는 것은 나의 근원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붓을 잡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다. 붓을 약간만이라도 머뭇거리면 사방으로 먹물이 번져 글씨나 그림을 망치고 만다. 화선지 위에서 머뭇거림이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서투른 붓놀림을 선화라고 미화하다가는 자기기만에 빠지고 만다. 단 한 순간이라도 붓을

완벽하려는 그 마음이 평상심을 깬다
번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자유
자유 속 발현되는 자연스러움이 감동

머뭇거리면 그 작품은 망치고 마는 것이다. 입격(入格)이 없는 출격(出格)이란 허용되지 않는다. 세상 이치는 모두 격식이 있기 마련이다.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유난히 붓의 힘이 굳센 주경(遒勁)이 넘치는 작품이 눈에 띈다. 작가의 혼이 깃들어 있고 기가 넘치는 작품이기 때문에 눈길만이 아니라 저절로 발길을 멈추게 한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삶을 산 작가의 작품이라면 더욱 감동을 주게 된다.

감동은 순수를 부르고 순수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하게 한다. 걸작 일수록 순수함이 점유하는 영역이 광대하다. 마치 자연이 그렇듯이. 찌든 영혼에 빗질을 해야겠다. 창 밖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작은 잎새가 도리질을 치고 있는 탈속함에서….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1)

검은 승복 주홍색 가사의 주인공

1980년대. 군사정권의 권위에 대항하며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많은 이들이 투사로 변신했다. 불교인들도 많았다. 텔레비전 화면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지만 스님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어느새 검은 승복과 주황 가사로 우리들의 눈에 익은 스님이 되었다. 진관 스님이다. 본명은 박용모이다. 진관 스님은 지선 스님과 함께 승가의 민주 인사를 대표한다.

진관 스님은 2555(2011)년 현재 학술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의 선종인 조계종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외에도 지관 스님은 시인이자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다. 그림도 그리는 예술인이다. 이 모든 부분에 전문가 수준의 작품들을 그려내곤 한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그 가운데 1980~90년대 민주화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 있었다. 현재는 '인권'이라는 화두를 새기며 불교계를 수호하는 금강역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관 스님은 전라북도의 김제 어딘가를 가리키며 자신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의 구술을 통해 민주화 투사로 아로새겨진 스님의 여정을 따라간다.

"본적이라고 허는 것은 (전북) 김제 백산면이라고 하는 그 상리라는 연이 많이 피는 연꽃마을 이에요. 그 연꽃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에 그 부모들이 인제 이사를 많이 다녔으니까 거기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버지 고향에서 태어났는지 확실허게 모르는 거예요."

문학소년 진관…서당서 한학 배우며 민족의식 고취시키며 예술성 키워

자신이 태어난 곳을 표시하는 민원서류에는 김제 백산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고 아쉬워한다. 1948년생인 그는 올해로 회갑을 넘겼다. 당시 태어나던 해에도 이곳저곳 이사 다녔다는 부모님 말씀에 진관 스님 자신도 태어난 곳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이사 다녔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운수행각이 자연스러운 출가승의 길이 나의 길이 아니었을까' 하며 그는 자문한다. 초등학교 시절 이미 진관 스님의 미래를 추측하게 한다.

"그 때는 사람들이 사쿠라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벚꽃으로 바뀌어졌지만 서도 그래서 우리 꽃이라고 해 가지고 벚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때는 사쿠라꽃이라는 그 이름도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시를 쓰다보니까 어느 때 시를 쓰다보니까 사람들이 시인이라는 것은 그 고달픈 거다. 그리고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 요걸 다른 선생이 또 얘길 해 주더라고요. 내가 시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허니까. 그러믄 시인이라는 것은 참 지조를 지켜야 되고 그 굴복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런 고 때 그 시인이야기를 내가 그 선생이 어렴풋이 해주는 것을 들으니까는 그 때 이육사 선생이 그 뭐 독립운동허다가 어? 가서 막 그 했을 때 변하지 않고 그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 시를 쓰는 건데 그렇게 쓸 수 있겠냐?"

문학을 꿈꾸었다기보다 아예 문학소년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관 스님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선구자의 길도 마치 운명처럼 그 때 정해졌음을 암시한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용모(진관)에게 선생님은 이육사 시인처럼 독립운동을 하거나 역사에 남을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심어줬다고 한다. 시인이 고달픈 인생이라는 점을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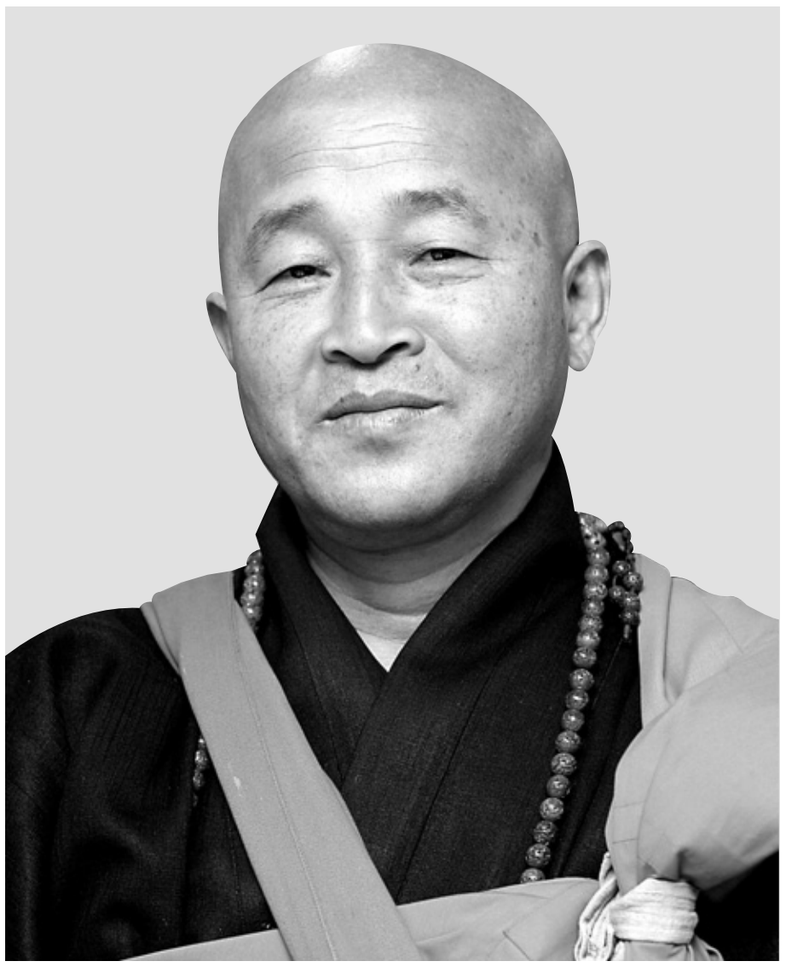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보에다가 그림도 붙여있었어. 그림까지 붙여있었는데 그 때 이제 배 그림이야 배. 배를 타고 이렇게 딱 가는 그림인데 아마 그 고동이 탁탁 울리고 가는 연기까지 나는 그 그림이 벽에 붙여있었으니까는 아이들이 전부 와 가지고 "야 그림 잘 그렸다." 그런 이런 요런 게 이제 딱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시 쓰고 그림 그리고…."

자신이 시인이라고 문학인임을 강조하지만 예술인의 성격이 짙다. 자신도 인정한다. 그러한 기조를 이어 6학년 때도 공부 잘해서 일등 했노라고 술회한다. 중학교에 진학할 때 생긴 에피소드이다.

"이리 동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생이 목공 (6학년)선생인데 에~ 학교를 어디로 갈 건가 아 아 나보고는 전주 북중과 전주 북중과 이리 동중이 있는데 동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원서 써 가지고 가다가 제출 안 해버렸지 이제. 원서 선생 써줘 가지고 내가 가다가 이제"

"(원서를) 제출하러 가다가 제출 안 해버렸어요. 아 내가 그 중학교 가서 뭐하겠느냐? 나는 음 고전으로 돌아가서 한학을 한학을 해야되겠다. 한문 그래가지고 한문을 할려고 한문 선생을 찾아갔어요. 그 한문선생이 이~ 거기서 1년간 1년간 한문선생한테 많은 그 걸 들었어요."

현재는 익산시로 명칭이 바뀌어 있었는데 전주로 갈 것인가 이리(익산)로 갈 것인가 어린 마음에 고민을 했을 것이다. 진관



어릴 적부터 정치 · 운동에 관심 권위에 대항하는 자세 일찍 나타나

스님의 구술에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학 입학을 포기하고 동리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어린 진관은 〈맹자〉와 〈명심보감〉 등을 읽고 외우며 한문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그 선생은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준 분이다.

"윤재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사람 이제 국회의원 나오면 벽보 붙이러 다니고 이제 이제 야당이었었죠. 그 때 지금은 야당인데 벽보 붙이러 다니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나오고 연설허러 다니고 그러면 그 장소마다 쫓아다녔지 인제. 그 인제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니까 인제 반대파에 있는 고런 성향이 있었던 거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여당파가 아니고 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어린아이들이 붙이러 다니잖아 붙이러 다니고 고건 헌 기억이 나요 내가."

어릴 적부터 '정치' 혹은 '운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훗날 진관 스님은 연단에서 온 몸으로 제스쳐를 취하며 연설했다. 액션을 취하는 스님이 특이해 보이지만 칼칼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대는 소리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그 성향은 이미 한문 배우던 시절에 싹트기 시작했다고 술회한다. 또한 자신은 야당 쪽이었음을 고백한다. 권위에 대항하려는 자세가 일찍부터 나타났다고 한다.

"(한학 선생) 성함은 인제 잃어버렸고 어그리고 그 장소가 인제 고 지역에서 한학을 제일 잘 가르친다는 그 한학 선생을 아버지가 인제 소개를 해 줬거든. 그 인제 아버지가 소개를 해줘서 거기로 갔는데 거기가 용지면이라고 김제군 용지면…."

진관 스님은 한학 배우기를 잘 했다고 하지만 또 중학교에 가서 신학문을 배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동시에 표출한다. 진관 스님은 현대 불교운동사에 있어서 많은 사실[fact]들을 쏟아 놓았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천민 구제의 생불 에이존(叡尊)

시대와 정면에 맞서 대승불교 내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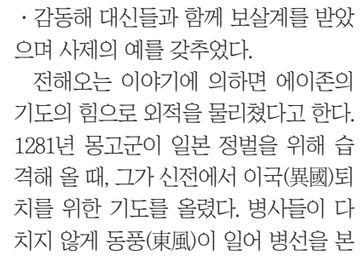
에이존은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중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은 출가자로서 다른 사람은 재가자라든가, 나는 비구며 다른 사람은 사미라고 차별하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극치이므로 삼가해야만 한다. 스스로 타인보다도 약하고 모자란다는 마음이라면 어찌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나는 마음속에 세상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한다."

이러한 실유불성 · 동일불성설의 사상에 입각한 그는 인간 구제를 무엇보다도 중시했다. 그의 구제 사상의 특징 가운데는 대비 천제(大悲闡提)의 원이 있다. 그는 "천제의 원을 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세의 모든 보살이 유정 세계의 모든 고통을 소멸케 하는 원을 세우지 않고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고 한다. 이 천제는 살생으로 인하

인간 구제 무엇보다 중시 기도의 힘으로 외적 물리쳐

여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천제를 자신과 동일시한 것이다. 즉, 대비 천제는 대자비심으로 인해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웠기 때문에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본 것이다. 대비 천제로서만이 아니라 그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가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을 세웠다는 것은 흥법 및 이생(利生)을 위한 불법 실천의 의지는 물론 대승보살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1264년에는 전국 본말사의 승려들이 운집한 가운데 광명진언회를 열었다. 이는 이생의 죄를 멸하고, 후생에는 깨달음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 법요행사는 지금도 계승되어 매년 10월 3~5일 주야에 걸쳐 행해지고 있다. 1245년 에이존은 문수보살이 눈앞에 출현하여 〈불성삼마야계탁정(佛性三摩耶戒濯頂)〉을 받았다고 한다. 즉 진언과 함께 관정을 받은 것이다. 그 내용은 '불성은 본래부터 평등하므로 부처와 일체가 되어 즉신성불하고자 한다'는 뜻이다. 후에 이를 제자에게 물려주면서 "계율은 밀교와 일심이며 일월과 같다"고 부촉했다고 한다. 이는 에이존이 계율과 밀



나라(奈良)의 사이다이지 전경

교를 불이(不二)의 관계로 본 것이다. 한편으로는 계율은 모든 불자들의 근본행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밀교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모든 중생들이 해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자서전인 〈감신학정기(感身學正記)〉와 계율부흥을 위한 〈범망고적문집(梵網古迹文集)〉, 〈표무표장문집(表無表章文集)〉, 〈보살계본종요(菩薩戒本宗要)〉 등을 저술하고, 계경(戒經)을 1만7000회에 걸쳐 강의했다. 에이존은 당시의 천황과 상황들 앞에서 이러한 저술에 의거하여 계율을 강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의에 심취 · 감동해 대신들과 함께 보살계를 받았으며 사제의 예를 갖추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이존의 기도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쳤다고 한다. 1281년 몽고군이 일본 정벌을 위해 습격해 올 때, 그가 신전에서 이국(異國)퇴치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병사들이 다치지 않게 동풍(東風)이 일어 병선을 본국으로 보내도록 기도하자마자 사이다이지의 애염명왕좌상(愛染明王座像)이 손에 쥐고 있던 화살이 큐슈의 앞바다에 날아가 몽고 대장의 가슴을 맞추고, 하카다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 몽고군이 퇴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가 득력한 밀교 수행자로서도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에이존의 유업을 이은 가장 뛰어난 제자 중에는 닌쇼(忍性)가 있으며, 한센병 환자를 위해 일본 최초로 병원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살았다.

무계파계(無戒破戒)의 말법 사상이 중세 신불교의 조사들을 탄생시켰다면, 에이존은 시대와 정면에 맞서서 오히려 대승정신에 바탕한 계율부흥을 외친 것이다. 이야말로 불법 스스로의 정화력에 의한 것이 아닐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研究 및 受講生 모집
東醫寶鑑 方藥合編. 藥草學
강 의 합 니 다
(스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한약 효능 안내

기효만령단(寄效萬靈丹)	고혈압, 중풍, 당뇨병, 관절신경통, 견비통, 요통, 근육통, 골절통, 편정두통, 좌골신경통, 자궁근종, 안면신경마비증, 수족신경마비증, 일체담증, 수족냉각증, 산후풍증, 중이염, 골수염, 고환염, 말초신경염, 여드름, 치질, 치루, 통풍, 악성피부질환, 소화불량, 양기부족 등
안중산(安中散)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창이환(蒼耳丸)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호마산(胡麻散)	백전풍, 백나병, 백반증
익수환(益壽丸)	당뇨, 정력, 빈뇨, 전립선염, 방광염
청보환(淸補丸)	신종플루, 해수, 천식, 기침, 기관지염, 감기
생간건비탕(生肝健脾湯)	간염, 간경화, 간암, 지방간, 황달
소풍산(消風散)	이명, 보약, 두목, 혼현, 비색, 부인혈풍두양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飮)	심장 신장 기능 강화, 요실금, 오줌소태, 전립선염
신효과루산(神效瓜蔞散)	유방암, 유선염
팔진탕(八珍湯)	임신구토, 임신빈혈
귀비온담천마탕(歸脾溫膽天麻湯)	현훈(眩暈), 어지러움증, 불면증, 신경쇄약
총명익기탕(환)(聰明益氣湯)(丸)	안혼(眼昏), 이명(耳鳴), 이농(耳聾), 정신상쾌, 식욕증진, 오로칠상 허손(五勞七傷 虛損), 간상(肝傷), 치매, 냉누출(冷淚出), 양기부족
항암식품(抗癌 食品)	오백산(五白散), 강유탕(糠榆湯)

(참고문헌 : 東醫寶鑑)
문의 : 慈悲會 02)722-4848 / 010-2538-778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 · 영풍 · 반디앤루니스 · 인터파크 · 알라딘 · 예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 · 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종합) 50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500만원 12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단완성 정가650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풀과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잘 익은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 아함경 -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레시피

첩첩산중 울진 불영사, 그곳에는 천 년 세월 전해 오는 맛의 비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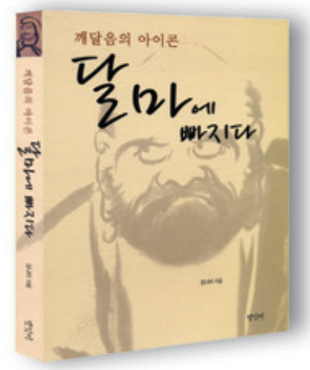
이 책에는 재료 하나하나의 특징은 물론이고 불영사에서 실제 일어나는 재미있는 절집 이야기와 음식 이야기가 맛깔스럽게 담겨 있다.

일운/B5/265쪽/18,000원/담앤북스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



달마를 그린 선화 100여 점을 다루는 이 책은 일반인들도 쉽고 친근하게 달마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 깨달음의 징표로 상징되는 달마도를 통해 달마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책이다. 사명 대사의 달마도, 윤두서의 달마도, 만봉 스님의 달마도 등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달마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신비와 베일에 둘러싸인 달마사상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김나미/A5/244쪽/16,000원/렛잇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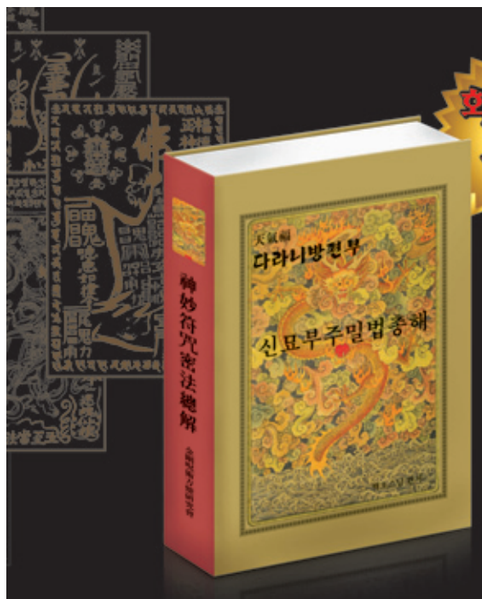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이 책에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과적 종자를 소멸해야 하기에 한 생각 일어날 때 습과적 종자를 소멸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서술하여 자기의 근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은 깨달음에 안주하여 미혹하게 과거의 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미세한 과거 종자를 정화할 수 있는 수행방법을 제시하였다.

혜원/A5/309쪽/12,000원/유마북

서적 · 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天氣福

화제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꾀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 • 중국 • 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84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 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팁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블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떳다!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왓" 1,049,000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 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 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 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道 이루거든 저부터 제도하소서



삽화 김영수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영양가 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섭취한 후 부처님이 찾은 것은 자리였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명상을 하기로 결정했고, 삡빨리 나무 즉 보리수 아래라는 적절한 위치를 찾았다. 그곳까지 걸어서 가는 동안 기적은 이루어진다.

심봉사가 기쁨에 눈을 뜨듯 눈 먼 용이 시력을 찾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로 걸어가는 동안, 덕(德)이 무거운 나머지 걸음마다 땅이 진동을 한다. 덕(德)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세계의 존재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용(龍)이었다. 땅 속에 살던 눈 먼 용 한 마리가 이 진동의 영향으로 마음이 기쁜 나머지 눈을 뜨게 된다.

이 사례는 마치 심봉사가 심청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눈을 뜨는 것과도 비슷하다. 그러고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면 천룡팔부 신장들이 부처님을 수호하게 된 연유가 다름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갚는 친근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눈을 뜨고 곧 출현할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용은 게송을 읊는다. 그러자 이 게송을 들은 부처님은 '과거의 부처님들은 무엇을 자리로 삼으셔서 위없는 도를 이루셨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그리고 곧 스스로 '풀' 이라는 답을 찾는다.

제석천왕이 부처님이 앉을 자리에 풀을 보시하다

정거천에게 두 번이나 선수를 빼앗긴 제석천은 부처님의 생각을 읽자마자 재빨리 하늘에서 내려와 평범한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고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손에 풀을 들고 기다린다. 용의주도한 제석천왕은 평범한 인간으로 변한 자신의 이름을 '길상(吉相)' 이라고 정해 놓았다.

이윽고 부처님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한 제석천왕에게 이름을 물어보며 풀을 청한다. 그리고 '길상(吉相)' 이라는 이름을 들은 부처님은 크게 기뻐하는 마음을 내며 '나는 앞으로 불길한 것을 깨뜨리고 길하고 상서로움을 이루리라' 고 또 한 번 커다란 원을 세운다. 부처님이 원을 세우는 것을 들으며 풀을 공양하는 순간, 제석천왕은 '도(道)를 이루거든 먼저 저를 제도하소서' 하는 발원을 하게 된다. 제석천왕은 부처님이 앉을 자리를 공양한 것이다. 이후 그는 7일 밤낮 동안 부처님 곁을 지킨다.

마왕 파순과 제석천왕의 관계

부처님이 맹세를 할 때, 온갖 천룡팔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날뛰자 악마왕의 궁전이 크게 요동치게 되었다. 흔히 마왕 파순으로 알려진 악마왕은 욕계의 마지막 하늘인 제6천 타화재천이다. 타화재천은 자신이 만들어낸 존재를 지배하는 신으로 제석천왕이 지배하는 욕계의 제2천인 도리천보다 훨씬 위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에 들었던 7일 밤낮 동안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곁을 지켰던 제석천왕도 마왕 파순과 대신 싸워주지 못한다.

보통 신이면 악마에게 절대적으로 이기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제석천은 아수라하고도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두고, 악마로 불리는 마왕 파순과도 대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코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을 보여준다. 신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석천왕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검사 그만둔 佛子의 '나' 다운 이야기

오원근 前 검사, 수필집 '검사 그만뒀습니다' 발간
정토불교대학 다니며 정의 · 수행 · 귀농의 가치 강조



검사 그만뒀습니다
오원근 지음
문학동네 펴냄
1만원

오원근 前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검사생활 10년의 촉망받는 중견검사였다. 그런 그가 2009년 5월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검사를 그만둔다. 평소 흠모했던 노 前 대통령의 비극을 보고 더 이상 검사 조직에 몸담고 있기 힘들다는 것이 사직 이유였다.

오 前 검사는 책 속에서 "평소 흠모했던 그분의 비극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소작농의 아들, 지방대 출신 고시 합격생이었던 그에게 검사직은 한국 사회를 사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고민은 결국 검사를 그만두게 했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행복을 찾아 불교 수행과 귀농의 길로 접어든다.

평소 정토행자로서 불교 수행과 완전 귀농이 소원이라고 밝혀왔던 그는 현직에 있을 때도 농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서울생태귀농학교에서 농사에 관한 철학을 배우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주말 농장에서 채소를 길렀다. 사직 후에도 변호사 개업도 미루고 문경 정토수련원으로 100일간 출가해 행자 생활을 했다. 변호사를 하고 있는 지금도 정토불교대학에 다니고 있다.

〈검사 그만뒀습니다〉에서 오 前 검사는 '자연스러운 삶의 소중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제1장 '검사와 변호사'에서는 주로 검사 재직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노대통령 서거로 사직을 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국민참여재판 1호 검사로 활동했던 이야기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입장, 법관으로서 그가 생각했던 정의, 고향에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서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2장 '나를 찾아가는 시간'에서는 그의 고백들이 담겨 있다. 소작농의 아들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를 지탱해준 어머니의 사랑, 자신감 없고 소심했던 자신의 청소년기에 대한 회한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통해 깨달은 자연의 위대함,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야기 등 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고백이 잔잔하게 서술돼 있다.

제3장 '농사를 쓰다'는 그의 꿈이었던 완전귀농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검사 재직 시절부터 서울생태귀농학교를 다니던 경험, 퇴직 후 변산공동체학교 체험을 통해 농사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오원근 前 검사는 이 때 인간의 참다운 행복의 바탕은 흙과 함께하는 육체노동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직 때부터 관심 있었던 농사의 기쁨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된 것이다.

제4장 '나를 내려놓기'에서는 마음에게 말을 걸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이야기 하고 있다. 그에게 마음공부는 완전귀농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는 100일 출가를 하며 사흘 동안 무르팍이 깨지고 살갗이 벗겨져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며 만 배를 경험한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만 배는 단지 만 배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생에 대한 성찰과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이 내려놓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오원근 前 검사는 "이 책은 '나다운 삶'을 고민하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나는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 '내 마음의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이야기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내가 부처 · 하늘 · 땅 · 산이로구나



나 바로 깨친다
영흥 선사 지음
꽃숲 펴냄
1만 5000원

영흥 선사의 나 바로 공부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도(道) 입니까?"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출가자나 재가자를 막론하고 수행자들은 해답을 찾아 눈 밝은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구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무엇이 내 인생을 참되게 만드는지, 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영흥 선사는 그의 법어집 〈나 바로 깨친다〉에서 "나[我]의 깨달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영흥 선사가 말하는 '나[本我]'는 나와 무아를 초월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참나[眞我]' '본불(本佛)'을 뜻한다.

생각하고 행하는, 갖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 삶의 주체는 무엇인가?

영흥 선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나'가 무엇인지, 나란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근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본래 나의 깨우침이며 본래 나를 깨닫기 위한 공부"라고 말한다.

"나 바로 깨치니 나 바로 부처이구나 나 바로 하늘이구나 나 바로 땅이구나 나 바로 산이구나… ."(본문 중에서)

반복된 문장을 통해 철저하게 색공 유무를 초월한 자성인 '나'가 일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고 쓰고 누리고 거두어들이는 주인임을 강조하고, 참나를 깨닫기 위한 바른 공부를 쉬운 우리말로 명쾌하게 알려준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실참을 하면서 일어나는 경계나 의문에 대해 선지식을 찾아 점검 받으려 했다면 영흥 스님의 '나 바로 깨친다'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영흥 스님은 21세에 망월사에서 춘성 선사의 벽력같은 할에 언하대오하고 24세에 자수용삼매를 증득했다. 1974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은사 및 계사로 수계득도하고 경봉 전강 벽초 혜암 향곡 구산 고암 월산 서암 숭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을 참문하며 법거량했다. 45세에 서옹 스님으로부터 전법게를 받았고 저서에는 〈해와 달을 띄우고 산과물을 펼친다〉 〈산을 세우고 물을 펼친다〉 〈나〉 〈불조보록〉 등이 있다.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9~11/1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운	담앤북스
3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4	엄마수업	법륜	휴
5	화해	틱낫한	불광출판사
6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7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기후	이자리
8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운주사
9	온 우주를 살리는 마음의 불씨	대행	한마음출판사
10	소설 선	고은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대불교
현 불 샵 02)2004-8215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영산재 주제로 한 대중음반 나왔다

마하연실내악단 11월 21일 '담마 레이니' 발표

범패는 불교의식에 의해서 생성된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다. 예로부터 불교의식에는 다양한 가무(歌舞)가 수반되는데, 이들은 무속과 민간의 풍류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음악 생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09년 영산재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등 불교문화와 예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패를 주제로 한 창작곡 앨범이 나와 눈길을 끈다.

마하연실내악단(대표 성의신)은 11월 21일 마하연의 첫 번째 음반 '담마 레이니'를 선보이고 12월 15일 남산 국악당에서 초연한다.

'담마 레이니'는 한국의 불교의례 중 영산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음률로 대중성을 가미했다. 가사는 한문이 아닌 한글가사로 진행돼 범패를 일반 대중들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의례적 요소로는 할향 · 천수바라 · 영산회상 · 가영 · 오공양 · 자귀의불 · 상주함창 · 화청 · 북가락 염불의 9곡으로 구성됐는데 영산회상 곡수와 같으며 곡 순서 및 양식이 범패의 순서를 따른다. 의례적 양식을 갖추기 위해 조계종 의례위원회 자문을 거쳐 영산재 의례의 근본 취지와 골격을 갖췄다.

특히 '담마 레이니' 중 두 번째 곡인 '호도량(護道場) - 이 도량 맑게 지켜 주소서'은 천수바라를 변주한 곡으로 해금과 피아노 변주와 함께 그동안 음반으로 나온 적이 없는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반주로 나와 관심을 끈다.

박경훈 작곡가가 작곡한 '호도량'은 일정한 장단이 없는 천수바라를 해금 · 대금 · 태평소의 관악을 중심으로 편성해 웅장함을 표현했다. 가사는 관세음보살의 강림을 청하는 복청게(伏請偈)를 기반으로 '복청대중 동음창화 신묘장구대다라니' 가사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성의신 마하연실내악단 대표는 "범패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창작의 시도는 불교음악 현대화와 더불어 불교음악을 예술화하는 작업"이라며 "향후 불교음악에 뿌리를 둔 전통음악을 기초로 21세기에 맞는 음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대표는 "특히 청소년 불자들의 정서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청소년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소통할 수 있는 음악회와 소외계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하연실내악단은 법당에 전통악기로 우리조의 찬불가를 부르자는 취지로 1993년 KBS국악관현악단인 성의신, 유기준 등 불자(피리 · 대금 · 해금 · 거문고 · 가야금 · 아쟁 · 타악 · 작곡) 7명이 뜻을 모아 창단했다. 2007년 찬불가를 해금으로 연주한 음반 '열두 송이 연꽃노래'를 발표하기도 한 마하연실내악단은 불교방송국 자료음악 제작, 한 · 중 · 일 학술대회 축하공연,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02)703-6599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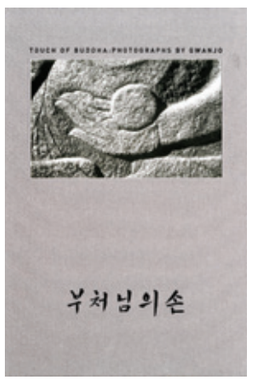


마하연실내악단의 연주모습. 피아노, 드럼 등 서양 악기와 전통악기의 만남이 이채롭다.

부처님 손을 통해 본 불법

통도사성보박물관, 관조 스님 사진특별전 '부처님의 손' 개최

부처님의 진리는 손(手印)을 통해 표현되고 전달된다. 부처님이 한 손으로 땅을, 다른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킨 수인은 생명의 존엄성을 선언한 것이며 결가부좌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려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은 깨달음 직전 악마들의 강한 유혹에 대한 굳센 의지를 드러낸다. 또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 모든 원을 들어준다는 여원인 등 중생 구제의 뜻 또한 부처님의 손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수인(手印)을 통해 불교의 세계를 알리고자 한 관조 스님(1943~2006)의 사진 작품전이 11월 22일부터 2012년 1월 19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최된다.

관조 스님은 사진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한국 불상 수인의 아름다움과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노력했던 사진작가다. 스님의 대표 사진집은 〈승가〉, 〈한줄기 빛〉, 〈사찰꽃살문〉, 〈님의 풍경〉, 〈사천왕〉 등 20여 권으로 이중 〈사찰꽃살문〉은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조 스님은 젊은 나이에 해인사 승가대학 제7대 강주를 역임한 학승이자 이후 범어사에 주석하며 참선에 정진하는 등 평생을 수행으로 일관해 온 선승의 면모를 보였다.

이번 기획특별전 '부처님의 손'에는 관조 스님이 촬영한 석불 수인 작품 20여 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19인의 짧지만 심오한 시가 붙여져 공개된다.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수인에 각각 법어를, 강은교, 김기택, 김명인, 도종환, 문인수, 문정희, 안도현, 오세영, 오탁번, 유안진, 윤금초, 이근배, 이문재, 이상국, 이영춘, 정현종, 허만하 등 19명이 수인에 맞는 각각의 시를 지어 눈길을 끈다. (055)382-1001

노덕현 기자

40년 맞은 東大 미술학부 역량 결집

1970년 12월 개설돼 올해 40주년을 맞은 동국대 미술학부가 동문과 재학생 역량을 한데 모은 기념전시회를 연다.

동국대 미술학부는 11월 23~29일 7일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MY PRIDE DONGGUK!'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크게 불교미술, 한국화, 서양화, 조소 4개 분야로 섭십(攝心) '마음을 마음을 다잡아 가다듬는다', 신실(信實) '참되고 미더운 행실을 한다', 자애(慈愛) '대중을 자비심으로 대한다', 도세(度世)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진다'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여한 작가는 총 120명으로 각 분야당 30명 씩 평면회화, 입체조각, 미디어 영상 등 미술학부 관련 작가들이 모두 참여했다.

동국대 미술학부 측은 "40주년 기념 전시전 작품 판매 수익금은 RE-START 장학기금으로 조성돼 후학양성에 쓰인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02)2260-8752

노덕현 기자

한국종교지도자협, 종교문화축제 개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의장 자승)가 제15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11월 28일까지 봉은사 보우당을 비롯한 곳곳에서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2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전통음악회'가 마련되며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봉은사 보우당에서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감동 음악회가 열린다. 이날 저녁에는 10월 경 사전 녹화한 축하공연 'KBS 열린음악회'가 저녁 6시부터 방송된다.

28일에는 성균관대학교 조병두 홀에서 '해설이 있는 문묘일무'와 함께하는 국악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소년소녀가장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17일에는 벧엘교회 공연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콘서트' 등이 각각 진행됐다.

한편 매년 지역종교문화축제를 선정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올해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와 여주이주민지원센터를 선정했다.

박기범 기자

고려 수월관음도 복원 공개된다

박미례 교수 3년 작업 끝에 12월 4일 은해사 박물관서 전시



2011년 4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 특별한 작품 한 점이 고국 땅을 밟았다. 이 작품은 한국에 내리자 마자 온도와 습도, 진동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특수 제작 호송차를 타고 양산 통도사로 옮겨져 전시됐다. 바로 세계 최대(最大), 최고(最古)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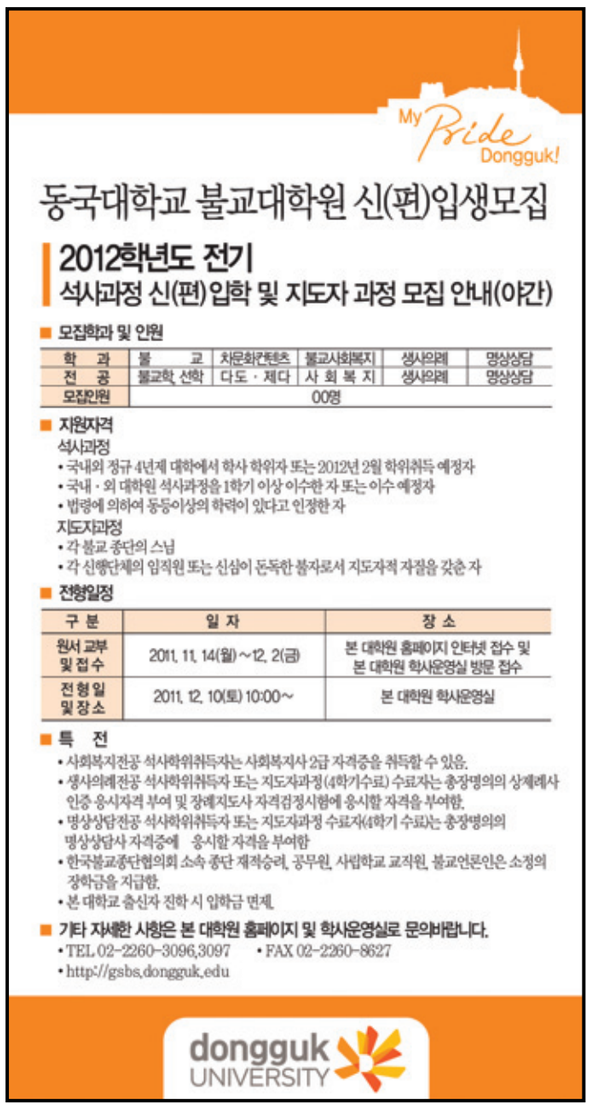
이 고려 수월관음도를 복원한 불화가 12월 4일 영천 은해사 성보박물관에서 공개된다. 수월관음도를 복원한 이는 박미례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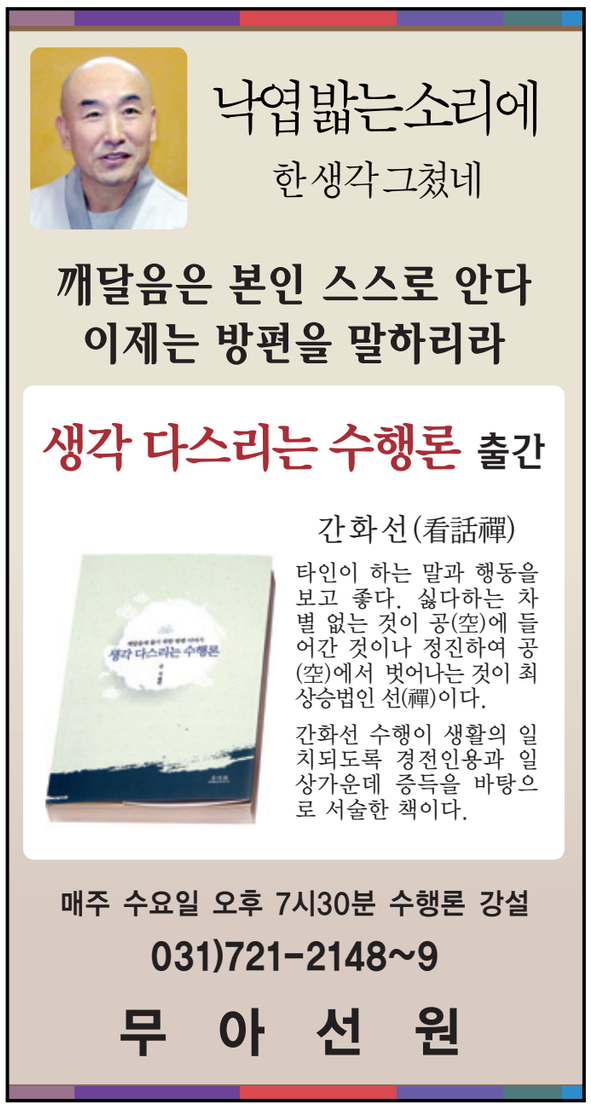
서 위원은 불교미술 최고 장인인 금어(金魚)의 계보 중 충청지역 마곡사의 금호, 정연, 지정, 병진 스님으로 이어진 계보를 이어 받았다. 박 위원은 2009년부터 3년 간 복원에 매달려 왔다.

1310년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높이 4m 20㎝, 폭 2m 55㎝를 자랑한다. 일본 가가미신사(鏡神社)에 소장돼 일본에서도 쉽게 공개되지 않으며 사가현박물관에서도 1년 중 30여 일만 전시할 뿐이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가장 기법이 뛰어난 수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불화 훼손 정도가 심해 공개에 제한이 있다. (054)335-3518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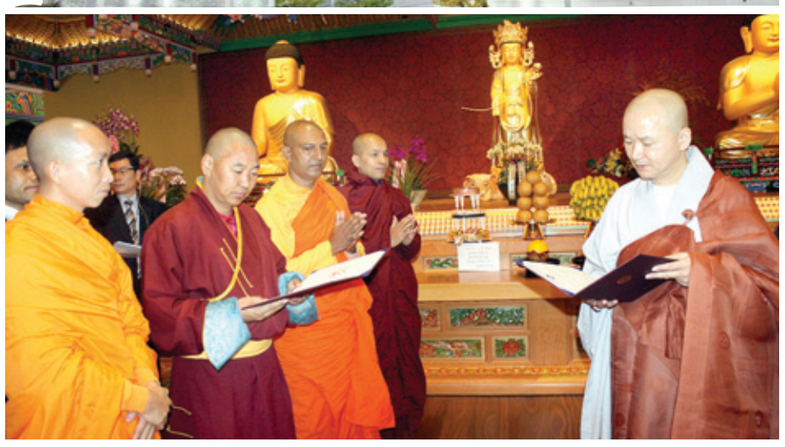




“도시 거점사찰로 수행과 전법활동 활발히 하겠다”

목동 국제선센터 개원 1주년 기념법회





다문화 이웃과 교류와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체결



개원 1주년을 축하하는 축하공연



화동들의 입장 모습

템플스테이 세계화의 중심도량인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현조)가 11월 15일 개원 1주년을 맞아 11월 13일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 이래 국제적인 템플스테이를 유치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고 서울 서남권의 거점사찰로 거듭난 국제선센터는 이번 기념법회를 지역주민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자비나눔의 실천’의 장으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원로의회 의원 월탄 대종사 차영 민주당 지역구위원장, 정문진 서울시의원, 임옥연 양천구의원, 마주협 미얀마 전 법선원 우드라 스님, 몽골법당 바트보양 스님, 태국법당 주 스님, 스리랑카 법당 와치싸라 스님 등 550여 사부대중들이 참석했다.

기념법회는 육법공양 도량결계 권공 축사 격려사 청법가 월탄 대종사의 특별법문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은 인사말에서 “17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는 종교로서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다. 우리시대가 처한 사회적 어려운 상황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며 “국제선센터는 앞으로도 이 실천을 밝히는 서울 시내 도심포교 교육중심도량으로 활발한 수행과 전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미리 보낸 격려사에서 “국제선센터는 그동안 외국인과 일반인들에게 간화선 수행을 알리고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단순히 불교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를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일이다. 템플스테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종단과 함께 많은 사부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제선센터는 이날 기념법회에서 ‘자비나눔의 실천’의 일환으로 마주협과 다문화 이웃의 교류와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맺었다. 이밖에도 아름다운동행,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양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나무 장터’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을 진행했다.

‘고향의 거리’ 특별행사에서 펼쳐진 자비나눔 장터에는 아름다운동행과 지역법회의 기증품 바자회를 비롯해 먹거리 장터, 일일찻집, 불교생협 김장판매, 양천지여자활센터 한지공예품, 탁본인경체험 등이 진행됐다.

또 행사 중간에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공연팀의 전통가무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학생들의 다도시연 목동중 밴드부 · 마술부 공연 범주 스님의 달마도 시연 퍼포먼스 등 1주년 기념법회를 축하하는 다양한 축하공연들이 펼쳐졌다.

국제선센터는 서울 서남권 거점 사찰
지역주민 · 다문화 가정 위한 축제
소외된 이웃에게 쌀 · 라면 전달도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법회열어

기념행사에 참가한 김인혜 씨는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 먹거리 장터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을 체험하니 즐겁다”며 “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열리니 좋다. 앞으로도 국제선센터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비나눔 장터를 비롯해 1주년 기념행사에서 생긴 보시금과 수익금은 아름다운동행과 양천구청으로 전달돼 ‘소외계층 겨울나기 자비의 쌀 · 라면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쌀 · 라면 전달 역시 양천구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국제선센터 자원봉사자들이 소외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템플스테이의 허브가 되겠다”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



“앞으로 2~3년 뒤에는 국제선센터가 더 건강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국제선센터 개원 1주년을 맞은 11월 15일.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사진)의 얼굴은 다소 야위어 있었다. 스님은 “1년 전에 본 사람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 묻는다. 초대주지로 들어와 정말 정신없이 1년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국제선센터는 2008년 착공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15일 개원했다. 스님은 “하드웨어는 완성이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행정, 법회 및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등 1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채워 넣는 데 몰두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선센터를 홍보하기에 1년이란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선센터가 건립되고 많은 분들이 국제선센터에 주목 하신 걸로 압니다. 그 기대에 100% 만족은 못시켜 드리지만, 1년이란 시간에 비해 나름대로 잘 운영돼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국제선센터를 이용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2500여 명에 달한다. 그중 외국인 이용자 수는 950여 명 정도다. 일각에서는 국제선센터가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현조 스님은 이에 대해 “국제선센터의 가장 취약점은 공간적 제약이다. 외국인들은 숲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원한다. 하지만 국제선센터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템플스테이를 하면 참가자들이 지루해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집중수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 중에 있다”며 “앞으로 국제선센터가 템플스테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는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고 한국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크고 작은 템플스테이를 유치하며, 지역주민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도시 거점 도량으로도 거듭나고 있다.

현조 스님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 호흡하지 못하면 종교적 생명성을 얻지 못한다”며 “국제선센터가 단순히 간화선만을 알리는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선센터는 1500여 가구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스님은 “양천구청과 함께 다양한 지역행사를 함께 진행하다 보니 지역의 불자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신다. 특히 불교도 지역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 불자님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조 스님은 “지역의 경찰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능법회를 활성화시켜 불교포교의 저변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선센터는 미취학아동 · 청소년들에게 영어경전을 가르치고, 외국인들을 위한 법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조 스님은 “사찰은 인물이 아닌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래야 사찰이 많은 불자님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다”며 “앞으로 많은 불자님들이 국제선센터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 행사안내(11~12월)

날 짜	내 용
11월 21일	양천교육특구 대학정시모집기도
11월 24일	목동, 신정동 지역법회
12월 6일	금차선원 참선입문반
12월 11일	기본교육 수료 및 수계식
12월 18일	불교대학 1기 졸업식
12월 20일	양천구청과 동지팥죽나눠주기 행사
12월 25일	송년법회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 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육각초 7.0ƒ × 34



연화 大 9.5ƒ × 11㎝, 연화 中 9ƒ × 10㎝, 연화 小 7ƒ × 6.5㎝



밀납연화 小 7ƒ × 6.5㎝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향수림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

재앙은 자신의 마음이 불러오는 것

지홍 스님
서울아산병원
병원법당 지도법사

왜 하필 나인가? 평생을 두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오는 것일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

병원에서 병명을 통고받은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왜 내가 이런 시련과 고난과 마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곤 한다.

묵묵히 이야기를 다 듣고난 뒤에 나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고난이야말로 내가 살아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야말로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과거의 업이 사라질 때입니다. 어떤 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병고로써 업이 사라지게 된다면 축하할 일이 아닐까요?"

정작 환자나 보호자가 기대했던 위로의 말은 아니었겠지만, 병과 그로 인한 고통이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해 기가 꺾인 마음이 앞을 향해 살아갈 원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주 가끔은 이렇게 말해줄 때가 있다.

"재앙은 자신의 마음이 불러들인다"는 말이 있다. 재앙에서 피하고 도망치려는 순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비바람처럼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

도피처가 있고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다하기란 오히려 더 어렵다. 그렇게까지 의지가 강한 사람은 흔하지가 않다. 따라서 역경과 고난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홀로 조용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순간, 역경과 고난은 내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오히려 자연스레 '밝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주게 된다. 지금의 고통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지 마음을 정하는 순간이야말로 고난과 역경, 시련과 재앙으로 나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커다란 고비이다.



지홍 스님과 환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이 말을 환자에게 보태준다.

"업이 사라진 지금부터 또다시 나쁜 업이 분출되지 않도록 선행을 쌓도록 하세요."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생(養生) 기공법

1400여 년 전에 무려 102세까지 장수했던 사람이 있다. 중국 수·당대의 명의 '손사막' 선생(581~682)이다. 선생은 매일 권법(拳法), 안마(按摩), 기공(氣功)의 3가지 단련을 시행했다. 기공은 누구든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이다. 한가한 시간에 꾸준히 한다면 건강 장수에 도움이 된다.

첫째, 머리를 자주 빗는다[髮常梳]. 손바닥을 36회 마찰시켜 열을 낸 뒤, 이마로부터 위로 쓸어 올려 뒷목까지 가게 하는 동작을 아침에 일어나 10회 반복한다. 눈이 맑아지고 두통, 이명, 백발, 탈모가 방지된다.

둘째, 눈을 자주 돌린다[目常運]. 눈을 감았다가 힘을 줘서 뜨고 눈동자를 왼쪽에서 상, 우, 하의 순서로 돌리고, 반대방향으로 3회 반복한다. 또 하나는 손바닥을 36회 마찰시켜 눈 위에 얹는다. 눈의 활동력을 강화시키고 근시와 난시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치아를 자주 마주친다[齒常嚼]. 입을 살짝 다물고 윗니와 아랫니를 부딪히는데, 힘을 너무 주지 말고 가볍게 소리가 나게 36회 시행한다. 두뇌를 맑게 하고 위장의 흡수를 강화시키며 치아의 퇴화와 충치를 막아준다.

넷째, 침을 삼킨다[漱玉津]. 입을 살짝 다물고 혀를 치아 밖으로 내밀어 윗니부터 좌측을 향해 회전하기를 12회 한 뒤 침을 삼키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시행한다. 또 하나는 혀를 구강 안에서 좌로 열두 번 회전한 뒤에 침을 삼키고 반대방향으로도 시행한다. 침을 하단전(下丹田)까지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야 한다. 이빨과 잇몸, 위장의 건강에 이롭고 장수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귀를 자주 누른다[耳常鼓]. 손바닥으로 양쪽 귀를 가리고 안쪽으로 힘을 줘서 눌렀다가 힘을 빼면 '뽀' 하는 소리가 나는데, 10회 반복한다. 또 하나는 두 손으로 양쪽 귀를 가리고 귓볼을 반대방향으로 접고 식지로 풍지(風池) 경혈을 눌러 '뽀뽀' 소리가 나게 한다. 매일 잠자기 전후에 하면 기억력, 청력이 증강된다.

여섯째, 얼굴을 자주 쓰다듬는다[面常洗]. 손바닥을 36회 비벼서 얼굴을 위아래로 쓰다듬는다. 또 하나는 따뜻한 손을 바깥쪽으로 동시에 원을 그리는 것이다. 안색이 붉고 윤택해지며 주름이 안 생긴다.

일곱째, 머리를 자주 돌린다[頭常搖]. 양손을 허리에 대고 눈을 감고서 고개를 늘



어뜨린 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원위치에 오게 하는 동작을 6회 반복하고, 반대방향으로도 한다. 두뇌가 영민해지고 경추의 장애가 방지된다.

여덟째, 허리를 자주 두드린다[腰常擺]. 신체와 양손을 펼치고 몸을 좌측으로 향하게 한 뒤 오른손은 앞쪽에 왼손은 뒤쪽에 두고 오른손으로 가볍게 아랫배를 두드리고 뒤에 있는 왼손으로 허리에 있는 명문(命門) 경혈을 두드린다. 위장을 튼튼히 하고 신장의 기를 굳건하게 하며 소화불량, 복통, 요통을 예방한다.

아홉째, 배를 자주 문지른다[腹常揉]. 손바닥을 36회 마찰시킨 뒤 손을 깍지끼고 시계방향으로 36회 문지른다. 소화, 흡수를 돕고 배의 가스를 없애준다.

열 번째, 항문을 수축한다[攝穀道]. 숨을 항문까지 들이쉬어 항문의 근육이 긴장하도록 하고, 숨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숫자를 세어가며 유지하고 숨을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준다. 아침저녁으로 20~30회씩 한다.

열한 번째, 무릎을 자주 돌린다[膝常扭]. 양 무릎을 나란히 놓고 몸을 조금 숙여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좌우로 돌리기를 20회 하면 슬관절이 강화된다.

열두 번째, 자주 산보한다[常散步]. 가슴을 펴고 잡념 없이 풍경을 즐기며 한다.

열세 번째, 다리를 자주 비빈다[脚常揉]. 오른손으로 왼쪽 다리를 왼손으로 오른다리를 비비는데, 발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다시 발뒤꿈치까지 36회 시행한다. 또 하나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의 용천(涌泉) 경혈을 100회 문지른다. 고혈압, 두통에 효과적이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10〉

출가자의 길에 들어선 그대에게

나무의 삶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고목으로 자라는 데는 주위의 작은 나무들이 큰 나무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나무는 한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 가지가 찢기고, 여름날의 폭풍과 비바람을 견뎌야 하며, 추운 겨울의 한파를 이겨내야 하고, 숱한 짐승들과 벌레들의 공격도 견뎌야 고목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풍성할수록 고목으로 우뚝 존재할 수 있고, 뭇 생명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더 이상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가옥의 목재로 활용되는 경우에도 나무는 사람들의 쉼터요,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고목을 예찬하고, 영혼이나 신이 있다고 하면서 숭배하는 이유는 바로 무심함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아들이고 견뎌낸 인욕의 처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목처럼 출가자도 인욕 선행돼야
마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

출가자의 길도 나무의 삶처럼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 나무가 고목으로 성장하는데 주위의 작은 나무나 풀이 자라지 못하고 사라진 것처럼, 그대가 출가를 선택함으로서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들에게 가슴시린 아픔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걱정과 아쉬움을 발판으로 그대가 지금 출가자의 길에 들어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훗날 큰 스승이 되어 그들에게 현재의 아픔을 행복으로 되돌려 주기 바랍니다.

추위와 더위, 폭풍과 비바람의 매서움, 새들의 둥지 역할, 벌레들의 쪼임 등 숱한 고난을 이겨낸 고목처럼 출가자도 인욕이 선행되어야 승려로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인욕이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난 고뇌는 물론이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도 직면해 지혜롭게 헤쳐나감을 의미합니다.

그대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출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살다보면 망망대해에 서 있는 것처럼 길을 잃을 때도 있을 테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절벽에 서 있는 막막함이나 불투명한 공허함도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고목이 담담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듯이 안으로 마음을 관조(觀照)해 추스르기 바랍니다. 중생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苦)가 있기 마련이요, 삶 자체가 고의 연속입니다. 출가자의 길 또한 당연히 고가 놓여 있으며, 이 고를 헤치고 극복해 선열(禪悅)로 만드는 것이 출가자의 본분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나를 위한 진리를 찾아내고, 내가 생사를 걸고 싶은 이념을 발견해 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세속의 삶을 버리고 생사해탈을 위해 출가한 것만큼 이 세상에 멋진 인생살이는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하셨고, 역대의 수많은 조사들과 선지식이 뼈를 깎는 고행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열반의 경지에 든 것입니다. 근현대 중국 불교의 선지식인 허운 스님(1840~1959)은 승려로서 100년을 사셨지만 평생을 행자의 삶처럼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또 이전에 내가 권해서 읽었던 티베트의 밀라레빠(1052~1135)를 기억하시나요? 밀라레빠는 출가해서 오롯이 고행으로 일관하셨던 분입니다. 앞으로 그대가 구족계를 받기 전까지, 아니 승려의 길에 있어 허운 스님이나 밀라레빠의 구도심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대가 어디에 처해 행자 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어느 곳에서 수행하더라도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그대의 길에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대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지지자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설령 모든 이들이 그대를 비난하고 힐난할지라도 100% 그대 편에 서 있는 스승이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승려들의 삶은 수행이 기본이지만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대가 참선하기 위해 선방을 가든, 학문의 길을 걷든, 포교를 하든,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그대를 향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신경숙 소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의 주인이 어떻게 사느냐에 그 이름의 느낌이 생기는 게다. 사람들이 네 이름을 부를 때면 은혜로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아름답게 살라."

훗날 누군가 그대 이름을 부를 때, 환희심이 묻어나는 큰스님이 되어야 합니다.

고목이 의도한 삶이건 아니했든 간에 뭇 생명들의 안식처가 되듯이 당신이 바로 그 뭇 중생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고조선에는 독자적인 '문자'가 있었을까?

일연은 '삼국유사'로 고려를 살렸다



군위 인각사 일연문화제에서 청중이 어우러지는 한장면.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저술에는 민족 자긍심 고취라는 명분이 있었다.

1. 고조선의 기록 문화

2000여 년 역사를 지녔던 고조선 사람들에게는 과연 독자적인 문자가 있었을까?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살았다면 설사 문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기록문화는 있지 않았을까? 1988년 경남 의창군 다호리(茶戶里) 고분에서 기원전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와 철제 농구 및 제기와 칠기 등과 함께 출토된 '다섯 자루 붓'은 중국 한나라 시대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문자의 필사용 필기구였다. 때문에 이들 붓은 두 나라 사이의 교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 내몽고 자치구 옹우특기 석책산 유적, 요녕성 여대시의 윤가촌 유적 및 비자와 고려채 유적, 함경북도 나진시 초도 유적, 평양시 남경 유적 등에서 출토된 질그릇에는 부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해서 이들 부호들이 발전해 문자로 정착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이들 몇몇 고고학 자료들과 유적들은 고조선 말기에 필묵을 사용한 기록문화가 지방 곳곳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고조선에서는 기록 전담 관직 운용
신지선인은 종교 소임까지 병행해

고조선은 기록을 전담하는 신지(神誌)라는 관직을 두었다. 당시 사람들은 기록을 담당하는 이를 '신지선인'(神誌仙人)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신지가 시적(詩的)으로 기록한 저술을 〈신지비사(神誌秘詞)〉라고 했다. 선인은 고조선에서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호칭이었다. 때문에 신지선인은 기록관일 뿐만 아니라 종교 소임도 맡았던 인물로 이해된다. 문자를 다루는 사람은 고대사회에서 대개 영향력을 지닌 지식인이자 종교지도자였다. 조선 선조(1583) 때에 평양의 법수교(法首橋) 밑에서 세 조각 난 비석이 발굴된 적이 있었다. 이 비석에 새겨진 문자는 중국과 인도의 문자와 다른 것이어서 읽을 수가 없었다. 때문에 이 문자를 단군 때 쓰던 신지문(神誌文)으로 보는 이도 있다고 〈평양지(平壤誌)〉는 적고 있다. 현재 단군의 가르침을 적은 〈천부경(天符經)〉과 〈삼일신고(三一神誥)〉도 고조선의 신지가 단군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일연은 〈삼국유사〉 권3의 흥법편 '보장봉로 보덕이암' 조목에서 고구려의 개소문(盖蘇文)에 대해 "〈신지비사〉의 서문에서 '소문(蘇文) 대영흥(大英弘)이 서문과 함께 주석했다'고 했으며, 소문은 관직명이니 문헌으로 증명된다"고 했다. 또 〈고려사〉 김위제열전(金謂磾列傳)에도 김위제가 (평양) 천도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숙종(肅宗)에게 올리면서 〈신지비사〉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한다[弘益人間]의 이념뿐만 아니라 "저울(대·추·꼬리)처럼 머리(極器)와 꼬리의 자리가 균평(均平)해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이 보장된다"는 '풍수지리'의 '균평의 이념'까지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 전기의 용비어천가(제16장)에서조차도 이 기록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저술은 조선시대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조선의 기록관이 남긴 〈신지비사〉에는 고조선의 다양한 기록문화와 정제된 철학사상과 그를 바탕으로 한 풍수지리의 이념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의 가사로 알려진 유일한 글은 당시의 가사 공후인(箜篌引, 또는 公無渡河歌)이다. 이것은 〈고려사〉 권122 열전 35에 인용된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公無渡河]/ 님은 결국 물을 건너시다[公竟渡河]/ 물에 빠져 죽으시니[墮河而死]/ 장차 님아 이를 어찌할꼬[將奈公何]"라는 4행시이다. 이 가사는 기원전 4, 3세기에 흰 머리를 풀어헤치고 손에 술병을 들고 세차게 흐르는 물을 건너려는 노인[白首狂夫]이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물 속에 뛰어들었다. 그의 아내가 공후(箜篌)라는 악기를 타며 지아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마친 뒤 그녀도 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 장면을 본 낙랑군 조선현의 진졸(津卒) 곽리자고(霍里子高)가 아내인 여옥(麗玉)에게 이야기하자 그녀가 공후를 타며 노래를 세상에 전했다고 한다. 〈고금주(古今注)〉의 편찬자인 중국 진(晉)나라 혜제(惠帝; 291~307) 때의 최표(崔豹)는 이 '공후인'을 고조선의 가사라고 했다. 가사의 구성이나 내용으로 보아 고조선인들은 빼어난 감성과 숭고한 미학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조선'과 '마한' 사이의 '위만조선'

〈삼국유사〉 기이편 서두의 '고조선'과 '마한' 사이에는 '위만조선' 조목이 자리하고 있다. 일연은 서두를 '고조선' 조목을 설정함으로써 고조선은 단군조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위만조선' 조목을 설정해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주었다. 위만(기원전 194~?)은 본디 연나라 사람이었다. 이때에 노관(盧綰)은 연(燕)왕으로 옛 연(燕)나라 땅을 다스리게 됐다. 하지만 얼마 뒤에 한(漢)이 주위의 제후들을 시기해 제거에 나서자 연왕 노관은 미연에 화를 면하려고 한(漢)나라에 반항해 흉노 쪽으로 도망을 했다. 때문에 연나라는 한나라 군대에 점령당하면서 일시에 혼란에 빠져버렸다. 이 틈을 타서 위만은 천명의 무리를 이끌고 망명해 패수(浿水)를 건너서 기자조선의 왕인 기준(箕準)을 달래어 옛 빈터[故空地]의 수비를 하겠다고 했다.

기준왕은 위만을 믿고 박사(博士)를 삼아 서쪽 가장자리 백리[西邊百里]의 땅을 봉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망명의 무리들을 통솔하고 그들과 결탁해 세력을 확장했다. 하루는 위만이 기준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거짓으로 한나라 병사들이 십도(十道)로 쳐들어오니 자신이 성으로 들어가 왕을 호위하겠다고 했다. 성에 들어간 그는 갑자기 군사를 몰아 기준왕을 쳐서 나라를 빼앗고 스스로 조선왕이라고 했다. 위만은 '신조선'(위만조선)을 세우고 왕검성을 도읍으로 삼고 사방을 정복해 영토를 넓혔다. 한편 기준왕은 남쪽의 진국(辰國)으로 망명해 한왕(韓王)이 됐다. 그렇다면 위만조선을 세운 위만을 동이족의 범주 속에 넣어 우리의 역사 속에 편입시켜야 하는가? 과연 일연은 '고조선' 이후에서 '마한'까지

고조선의 역사관 남달랐던 일연
기자 사대사상에 반감 갖고 서술

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삼국유사〉 조목 속에 '위만조선'을 설정한 것일까? 아니면 '위만조선'을 고조선을 계승한 신조선이자 동이족의 일부로 본 것일까?

그런데 두계 이병도는 위만에 대해 그가 망명해 올 때 1)상투를 짜고 조선옷을 입었고 2)요동방면에는 한인(漢人) 계통뿐만 아니라 동호(東胡)·조선인 계통의 사람이 지리적으로 보아 많이 살았을 것이며, 혼란한 틈을 타서 조선계 사람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집단적으로 모국(母國)에 들어왔을 것이고, 3)준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순수한 외족(外族)이 아니었을 것이며, 4)위만조선 말기의 관직명이 조선적(朝鮮的)이었고 응소(應劭)가 위만조선을 융적시(戎狄視)했다는 것 등에 근거해 위만은 패수 이북의 요동지방에 토착했던 조선인계의 연인(燕人)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홍직은 "위만이 처음에 망명해 올 때에 상투를 짜고 조선옷을 입고 왔다는 것은 그가 연인(燕人)이기 때문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기 위해 조선인 행세를 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위만은 고조선의 거수국인 기자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수국인 위만조선을 세운 연나라 사람이다. 때문에 위만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의 '위만조선' 조목 설정은 역사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일부 국사학자들은 위만조선을 한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일연은 왜 이 '위만조선' 조목을 설정했을까? 알려진 것처럼 그는 고조선의 회복을 통해 몽골 치하에서 신음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은 서두의 '고조선' 조목에 뒤이어 '위만조선' 조목을 덧붙이고 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 일연의 의식 속에서 '위만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로 이해됐을까? 국내의 국사학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오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고려 중기와 조선 초기의 학자들은 오히려 단군을 부정하고 기자를 한민족의 후예로 선양했다. 그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3. 일연의 조목 설정 이유

일연의 '위만조선' 조목 설정과 달리 조선초기의 일부 유학자들은 오히려 '기자'를 고조선을 이어 조선왕이 된 것으로 보았다. 과연 기자조선을 고조선을 이은 왕조로 볼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상서대전(尙書大典)〉에 의하면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기자를 석방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갔다. 이에 무왕이 그를 조선후(候)로 봉했다"고 했다.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는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기자를 방문해 안민(安民)의 도를 묻고 그를 조선에 봉했다"고 했다. 〈한서지리지〉에는 "은나라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에 가서 예악(禮樂)을 가르쳐 범금팔조(犯禁八條)를 행했다"고 적고 있다. 대부분의 국사학자들은 이들 문헌 기록들을 연구 비판하고 다른 사료들과 비료해 기자동래설을 부정하고 있다. 반면 이병도는 한씨조선(韓氏朝鮮)설을 주장한다.

그는 "후한 왕부(王符)의 〈잠부론(潛夫論)〉에는 '주나라 선(宣)왕 때 한후(韓候)가 있었는데 연(燕)나라 근처에 있었다. 그 후 한의 서쪽에서도 성(姓)을 한(韓)이라 하더니 위만에게 망해 해중(海中)으로 옮겨갔다'고 기록돼 있다며, 여기서 위만에게 망한 것은 준(準)왕이니,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준의 성이 한(韓)씨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조선왕조의 성은 기씨(箕氏)가 아니라 한씨(韓氏)이며 중국인이 아니라 한인(韓人)인 것이다. 후대에 가자를 한씨의 먼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성인(聖人)을 자기의 조상으로 함으로써 가문(家門)을 빛내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기자릉(箕子陵)이 생기고 기자묘(箕子廟)가 건립된 것은 고려 때부터의 사대사상(事大思想)에서 유래된 것이다"고 했다. 아마도 고려 중엽에 와서 평양에 기자묘(箕子墓)를

단군조선 자긍심 높이기 위해
위만조선 조목 추가한 일연 스님

찾아 묘사(廟祠)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즈음부터 기자에 대한 숭배사상이 심해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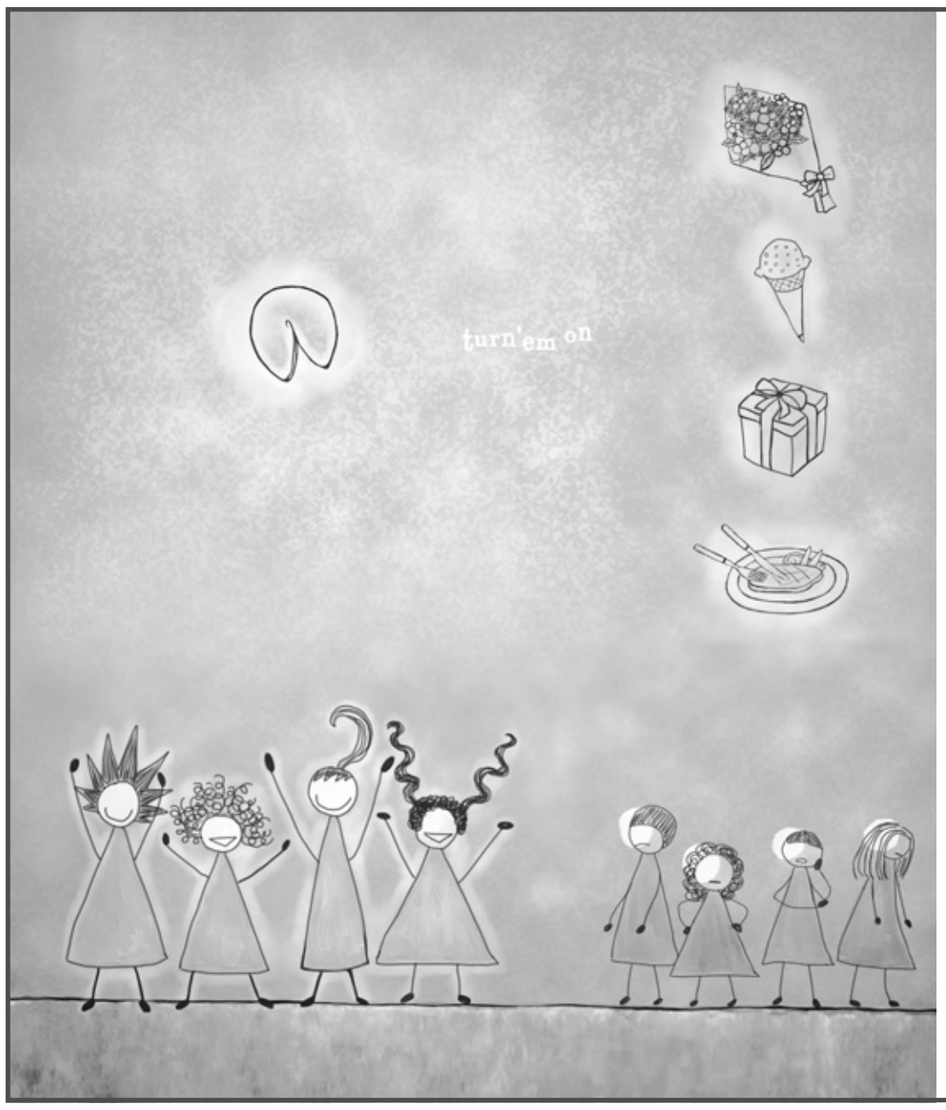
지금도 평양시 기림리(箕林里)에는 기자릉과 묘사(丁字閣)와 비석(重修記蹟碑) 등의 유적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고려와 조선 때 세워진 것이다. 기자묘는 고려 숙종 7년(1102)에 무덤 형태[墳形]를 찾아 제사하고 성종과 고종 때 증축한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 내려와 봉묘(封墓)한 이 묘가 과연 단군조선을 이어 조선왕이 됐다는 이른바 기자(箕子)의 묘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다. 기자의 후손 우평(友平)은 기(奇)씨의 조상이 됐고, 우직(友直)은 한씨(韓氏)의 조상이 됐으며, 우량(友諒)은 선우(鮮于)씨의 조상이 됐다고 한다. 고려 중기 이후 생겨난 기자에 대한 사대사상에 대해 일연은 반감하고 고조선 역사의 정립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단군조선만을 고조선이라고 했던 일연은 왜 '고조선' 뒤에 '위만조선' 조목을 설정했을까?

당시 일연은 일부 유자들에 의해 원(元)나라에 의해 무너진 송(宋)나라의 조상인 기자가 선양되고 신봉되는 현실을 목격했을 것이다. 이에 그는 원으로 대표되는 중원의 나라들과 대등했던 단군 조선을 복원시킴으로써 한민족의 자존심과 확보하고 자긍심을 확립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일연은 한족(漢族)의 조상이 세운 기자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등장한 위만조선에 대해 새롭게 발견했을 것이다. 더욱이 위만은 연나라 출신으로 고조선의 고토를 지배하면서 한족(漢族)과 맞서 싸우면서 한(韓)민족과 깊은 유대감을 확보했을 것이다. 일연은 바로 이 대목을 주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일연은 기자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원나라로 대표되는 중원세력에 맞선 연나라의 후예인 위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위만의 손자인 우거(右渠)왕은 중원세력으로 대표되는 한나라에 의해 멸망당했다. 때문에 만리장성 바깥으로부터 시작되는 난하(灤河) 이동지역에 뿌리를 둔 고조선을 복원하고 그 이후의 공백을 메워 준 주체로서 위만조선을 아우르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이홍직, 〈증보새국사사전〉(백만사, 1937; 교학사, 1997)
리지린, 〈고조선연구〉(학우서방, 1964)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1981)
이건무, 다호리유적 출토 붓에 대해, 〈고고학지〉 제4집(한국고고미술사연구소, 1992)
김정곤, 단군신앙에 관한 경전 연구, 〈정신문화연구〉 제32호(정문연, 1987)
윤내현, 〈고조선연구〉(일지사, 1994;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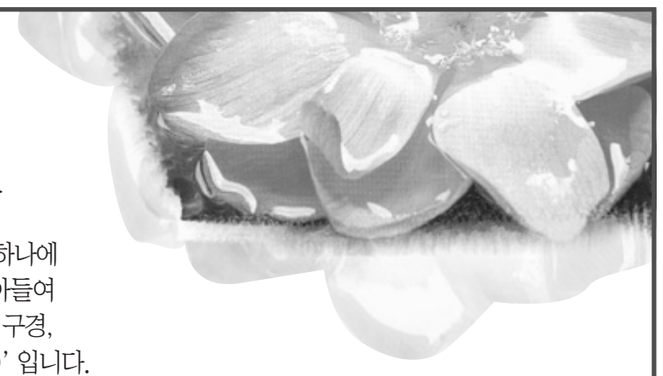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범음범패 학인 모집

매주 월요일
• 오후 3시-5시(재의식) 무료지도
• 오후 5시-7시(기초과정) 무료지도
* 사물,바라,나비무(별도지도)
대승불교염불원(경주 삼보사)
054)745-9822
010-4590-6366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전통의약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됩니다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합니다
010-6285-3703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혜주 011-9957-2660

역학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신수,궁합,성명학
우울증,공포,빙의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남의 잘못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 법구경 -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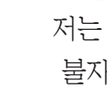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신비의 약불기공 치유법

1. 전수회원 : 불자 남녀 누구나 가능
• 별도의 수련없이 주1회 4주완성
• 기에너지 발공 및 시술법
2. 체험회원 : 빙의,암,불면증,중풍,간경화, 악성피부염, 오십견,관절염 등 각종 난치성 질환 및 통증질환에 고통받는 분
원만한 증상 및 통증은 1회 체험만으로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31 한국약불기공연구원
010-4642-9672

문하생 모집(청학동)



역학, 풍수에
관심있는 분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남녀 초보 환영)
02)422-5804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월 보시금 120만원
010-3738-033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청주
010-3691-5865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청암, 경봉 큰스님 묵적 구입하실 분

010-9878-1282

자격증 취득안내

포교사,법사,종사,대종사, 대사
불교문화신문 참조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법광
010-3368-6075

비법중의 비법

•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79-00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보시금 120만원
강원도 양구
033)482-3573
010-3596-7522

같이 더불어 포교원 운영할 수 있는 40대후반 비구니 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055)752-6606
010-8390-6654
010-7154-665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숙식제공
(제주 서귀포 구룡사)
064)762-63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 보시금은 상담 후
상여금, 퇴직금, 개인방사 지급
031)471-5978

불교전통의식 무료수강

• 선착순 모집 :
1. 비구스님 5명,
2. 비구니스님 5명
3. 출가행자 3명 모집
모든 재의식 집전하여 드립니다
화엄선원 주지스님
055)323-3569

통증제거 기술교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고(古)건물수리전문

신축건물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포교원 인테리어 전문

간판. 썬팅
010-8678-4945

천도재 빙의퇴마

수시 접수 중
태중영가천도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덕사
010-5685-2229
전화주시면 즉시상담

기문둔갑 강의

• 학교 진학문제
• 사업자 성패문제
• 결혼문제
• 교통사고여부, 건강여부 등 기문으로 사주를 봅니다
개인지도 강의
010-4669-9770

배우자를 찾습니다

저는 58세(女)
불자입니다.
남은 여생 함께하실
반려자(男)을 찾습니다.
010-9204-1900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스님 되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30년 빙의치료 대가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585-490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가 '사람불사', '인간불교'를 선언했습니다

■ 참좋은요양병원(영천)
■ 참좋은이서중·고등학교(청도)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 053)474-8228
납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응사 법회 공지

대응사(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는
2011년 11월 11일부로
정상 법회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02)403-3333 / 010-4225-0012

영남 범음 범패

49재,예수재, 천도재등
불공해 드립니다
011-9370-4043

빙의대화 퇴마

다양한 방법의 퇴마비법 전수
사주로 귀신 찾는 법
귀신병, 신병, 대화 및 치료법
전생을 통한 치료 및 빙의 찾는 법
인연되시는 몇분만
저렴한 보시금으로 모십니다
* 귀신병, 신병 치유도 해드립니다
010-5472-5928
031)666-7732 경담 합장

대출안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고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스님, 종교인 특별반 운영 (10주 완성)
* 무한리필교육 - 완벽상담시까지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존상담 모든 분야
○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제왕절개 수술일자, 묘이장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소,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 • 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 전 교 육 원 (010)-6476-1021
▣ 대 구 교 육 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http://cafe.daum.net/cheonbu6

불 사 안 내

소승은 관음전 불사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해서 백일기도중에 있습니다. 불사에 설판하여 주실분에게는 경봉, 월하, 일봉 큰스님 글씨나 청광화백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사에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는 평생 기도 축원하여 드리고 권선하여 주시는 분께는 10%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중에 전화가 안될때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 덕왕사 주지 원각 합장
054)853-3855. 010-9890-1237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 (사찰순례,산사음악회) 등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법보시 상담환영〉

불 자 정 보 26 | 863호 | 전면광고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 법당 : 35평
- 요사 : 74평
- 부지 : 80평
- 가액 : 12억
- 바다가 보이는 경관 좋은곳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 지하철역 100m 즉시 법회 가능

- 위 치 : 부산
- 법 당 : 30(목조)
- 요 사 : 70평
- 부 지 : 실평200평
- 가 액 : 6억 8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원효사상 깃든 천년고찰

- 총부지: 2,700평
- 전통법당 35평, 대종각
- 목조 요사채 및 산신각, 주차장 500평
- 부산시내 아파트 대단지, 산세최고
- 총가액: 13억

창원 신도시

- 총부지 : 300평(가용 1,000평)
- 목재법당 25평, 요사채 2동
- 산신각, 수백년 역사의 당산
- 산세(백년노송 다수), 바다전망 최고
- 총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 역전에서 10분거리
- 평수 250평, 법당 20평, 산신각 5평
- 요사채 3동 방 7개 공양방 있음,
- 대지 건물 등 가옥 즉시법회 가능
- 가액: 3억 5천만원(전세도 가함)
- 주차장 있음, 영천에서 최고 전망 좋은 곳
- 영천 역전에서 35분거리
- 평수 임야 일만평주 대지 500평
- 법당 20평, 산신각 3평, 용왕각 3평
- 요사채 60평, 큰방 3개, 작은방 4개, 창고 1동, 화장실 욕조 2개
- 주차장 있음. 마당에 석불 있음.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6억 (대지 건물 등기필)

011-819-0803

도 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평 시장입구
- 4층 건물 3층, 10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032)519-1108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0-2563-1398

포교원 안 내

- 위치 : 경기 안양 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 재래시장입구
- 평당 : 24평, 5층 건물 3층
- 구조: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170), LED 연등 (300)
- 방2개, 주방, CCTV4대 설치
- 보증금 1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8369-356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 마산역에서 3분거리
- 시장안
- 전세 500만원 월 16만원
- 시설비 500만원
- 전세 조정가능

010-5042-100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8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5층건물 2층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영단, 삼성단 (칠성, 독성, 산신, 용왕), 미분양소불 300불
- 종무소, 주지실, 친견실, 창고, 주방, 해우소
- 평수: 85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최신, 최고시설완비
- 시설비 2 천 9백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869-67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 대지 150평
- 법당 15평, 산신각
- 대중방2. 공양주방
- 주방, 스님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010-8585-1383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대지 126평, 원룸포교원
- 전체건물 4동(70여평)
- 리모델링 잘 되어있음
- 황토기와표집(약16평)
- 법당옆 친견실도 있음, 조경이 잘되있고
- 노 비구, 비구니스님 노후대책이 보장됨
- 가액: 1억 7천만원(답사후 조절가능)

010-5317-7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남양주 호평동, 호평동역 3분거리
- 평수: 3층 54평
- 가액: 3천만원에 12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1-516-5563

암 자 터 안 내

가평 북면에 암자를
찾고 계시는 스님께서는
연락주세요
1,500평 평당 25만원
양도하겠습니다.

010-4847-743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 40평, 2층에 2층
- 옥상사용, 도시가스
- 법당 내부단청, 원목불단
- 후불탱화, 관음보살 석자
- (은행목불) 108소불(동불)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6582-29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
- 53평, 4층 건물 3층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둘러보고 결정
- 몸만 오시면 됨

010-4323-0087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2억 됩니다)

017-787-666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부천 대학앞
- 4층 50평
- 삼존불, 화장실2, 방2,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절충
- 옥상사용가능

010-6655-5411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 총면적 약 500평
- 법당, 산신, 용왕, 요사 각 1동씩
-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조절가능
- 스님 건강상 급 양동

011-874-159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전망 좋음
- 대지 : 50평
- 사용평수 : 120평
- 법당, 요사채, 주차장 넓음
- 가액 : 2억 8천만원

010-4601-788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5천만원

010-4085-1119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 40평, 2층에 2층
- 옥상사용, 도시가스
- 법당 내부단청, 원목불단
- 후불탱화, 관음보살 석자
- (은행목불) 108소불(동불)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6582-299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53평, 4층 건물 3층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큰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둘러보고 결정
- 몸만 오시면 됨

010-4323-0087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 40평, 2층에 2층
- 옥상사용, 도시가스
- 법당 내부단청, 원목불단
- 후불탱화, 관음보살 석자
- (은행목불) 108소불(동불)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6582-2990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지정면
- 간현유원지부근
- 사찰 3천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9767-4119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 40평, 2층에 2층
- 옥상사용, 도시가스
- 법당 내부단청, 원목불단
- 후불탱화, 관음보살 석자
- (은행목불) 108소불(동불)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6582-2990

어리석은 이는 자기 할 일을 죽음 앞에서 신에게 미뤄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4)



삽화 · 김홍인

" '이 바보 멍청아!' 라고 했겠지."

무니의 이 대답에 유리 영감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우주의 시작이든 끝이든, 그건 알아서 뭐 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말이야.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걸. 그게 뭐야? 늙은 아버지한테 밥이나 얻어먹고!"

"하하하. 녀석, 참!"

유리 영감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그때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난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지혜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잖아요? 얻을 게 없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유리 영감은 난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난다, 네 말도 맞다. 답이 없거나, 얻을 것이 없는 질문을 한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 다만 그 질문이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단다. 만약 그걸 모른다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겠니?"

유리 영감은 얼른 화덕에서 잘 구워진 밤 몇 알을 꺼내 무니와 난다에게 건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중에도 분명 어리석은 자들이 있단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복 혹은 고통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평생을 보내고 말아. 그러다 비로소 죽음을 맞이할 때쯤 되면 허공에도 닿지 못할 가냘픈 목소리로 신의 존재를 찾지. 그들의 한결같은 어리석음을 구원해줄 신은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야. 고통이 사라지는 곳에 행복이 있고, 행복한 자들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필요없지 않겠니.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죽음의 순간에 다다라서야 신에게 미루곤 해."

이 말을 하는 동안 유리 영감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엄격했다. 난다는 호호 불면서 잘 깐 밤 몇 알을 유리 영감에게 건네주었다. 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밤이었다. 무니는 밤을 욕심껏 입에 가득 넣고 우물거리며 말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은 현자로부터 답을 얻긴 얻었어?"

"그래.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마. 젊은이의 그 질문에 지혜로운 자가 대답한 첫 마디는 '자네는 어리석은 자로군.' 이었단다."

"거 봐. 내가 그랬을 줄 알았어!"

무니가 또 밤 한 알을 입에 쏙 넣으며 말했다.

"후후. 그래. 아무튼 지혜로운 자의 그 한 마디에 젊은이의 마음은 덜컹 내려앉는 듯 했단다. 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묻자 현자는 이렇게 말했지.

'자네는 자네가 살아가야 할 삶을 방치하고 있네. 스스로의 행복과 행복이 사라지고 나서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과 의복, 그리고 누울 수 있는 자리 또한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네. 세계의 시작이나 혹은 그 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자네의 삶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인가.'

젊은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 그 늙은 아비는 연민의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가 명상에서 깨어날 때를 기다렸지. 바람과 반짝이던 나무 그림자, 구름까지 멈춘 듯 했어. 시간만이 침묵 속에 언제나와 같이 흘러갔을 뿐이지. 이윽고 지혜로운 자가 눈을 뜨더니, 청년을 향해 말했단다. '이제 그 질문에 이제 답하겠네.' 청년의 눈이 번쩍 뜨였지. 마을 사람들도 그 못지않게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야. 그러나 이것이 젊은이 자네의 삶에 유효한 답이 아니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내 답이 자네를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네.'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춘 후, 마치 누가 거기 서 있는 듯 허공에 시선을 맞췄단다. '먼저 알아야할 것은, 절대적인 답은 있지 않다는 걸세. 세계의 탄생과 소멸 역시 마찬가지지. 소멸은 탄생의 원인이 되고, 탄생은 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말이야. 저 세계의 소멸과 동시에 이 세계가 탄생하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 탄생의 결과이며 소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라고 말했지."

말을 잠시 멈춘 유리 영감은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 가지고 돌아왔다.

"그건 뭐예요, 할아버지?"

난다가 유리 영감이 책을 펼치는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브하샤〉라는 책이란다. 전설의 모험가였던 쿠상이 고대어로 기록해 놓은 일기를 팔텐이라는 한 위대한 학자가 평생에 걸쳐 해석해 펴낸 것이지. 이 책에 따르면 쿠상은 수메르산 정상에 올라 '이 세계'를 한 눈에 담았던 유일한 인간으로, 그가 이 모험에서 돌아오기까지는 30년의 세월이 걸렸다더구나. 특히 쿠상은 이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옛 이야기들을 수집해 모두 기록해 두었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현자와 젊은이 이야기도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것이란다."

그러더니 유리 영감은 자신이 펼친 책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에 그 젊은이가 현자로부터 어떤 답을 얻었는지 써있으니 한 번 읽어보겠니?"

난다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아든 책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 '존재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단지 그 자체일 뿐인 허공. 빛 한 줌 없는 그것은 끝없는 암흑과도 같다. 공간의 이동도 시간의 연속도 느낄 수 없는 텅 빈 어둠. 그렇게 광대하고 텅 빈 공간에 반짝이는 금빛 먼지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미세한 바람에 실려 암흑 속에 빛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먼지들. 그들은 거대한 빛의 띠를 만들며 대기층을 형성하게 된다. 수 억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윽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천상이 완성된다. 하늘이 만들어진 뒤에도, 대기층 위로 미풍은 여전히 불어온다. 대기는 금빛 먼지들로 가득 찬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먼지들은 결국 낙하, 고운 금빛의 먼지들이 대기의 빛이 아직 닿지 않아 어두운 저 아래로 내려앉는다. 그리고 서서히 차오르는 바닥. 또 다시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른 후, 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는 이 세계의 본질이 완성된다. 땅과 하늘은 뚫기 힘들 정도로 견고하다. 결국 낙하하던 먼지들은 땅에 부딪혀 다시 대기로 솟아오른다. 그러나 하늘에도 부딪혀 공중을 맴돌게 되는 먼지들. 그것들이 회오리치며 엉기기 시작한다. 이윽고 만들어지는 거대한 구름 덩어리. 그 구름은 비가 되어 세차게 땅으로 쏟아진다. 수억 년 동안 쉬지 않고 쏟아지는 비, 이제 물의 층, 즉 바다와 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 세계의 형태를 상징하는 물이 완성된다. 그리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다. 솟아오르던 금빛 먼지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더니, 끊임없이 불어오던 미풍이 잦아든다. 적막뿐인 신세계. 그때 어디선가 물결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서도 온 우주를 진동시킬 만큼 커다랗게 세상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눈이 부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한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떠내려 오기 시작하는 그 무엇. 그것은 찰랑찰랑하는 소리를 내며 땅 쪽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거대한 금빛 먼지 덩어리, 하나이면서도 전부인 존재, 바로 사트바 카르만이다. 금빛의 사트바 카르만이 땅으로 올라서자, 그 거대한 힘에 또 다시 회오리치기 시작하는 먼지들. 그가 움직일 때면 거세졌다가, 그가 멈추면 다시 잠잠해지기를 반복하며 1억년의 시간이 흘러간다. 그 바람이 스쳐간 곳에는 금빛을 잃은 거친 먼지들만이 흔적처럼 쌓여간다.

이윽고 신세계의 중심에 쿵하고 멈춰 선 사트바 카르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한다. 회오리바람, 천둥과 번개,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물방울들. 사트바 카르만이 멈춰 선 그 자리에는 우뚝, 가늠키 힘들 정도로 높은 산이 솟아오른다. 끝이 없는 산 수메르, 후에 사람들이 부르게 되는 그 산의 이름이다. 이어서 또 한 번의 고요가 찾아온다. 바람 없는 공간은 마치 정지된 듯하고, 낮도 밤도 아닌 하늘은 보랏빛이다. 움직임이라고는 솟아올랐던 물방울들이 땅 속 깊숙이 스며들어, 어딘가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모습 뿐. 그러나 이 물방울에서부터 이 세계의 신화가 시작된다.…' 와! 할아버지. 이건 정말 굉장한 이야긴데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말이에요."

난다는 책장을 덮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러나 무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게 정말일까. 애초에 그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도 이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태어난 사람일 텐데 말이야.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근거가 없잖아. 사트바 카르만이라니. 그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지?"

863호 | 불자정보

TEL 02)2004-8215(直) FAX 02)737-069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 가액: 3억 1천 만원

010-2637-6144

사찰(인법당)
- 위치 부산 온천동 금정마을(11년차)
- 단층슬라브 62평, 법당 27평, 방3 (전체 보일러)
- 대웅전, 지장전, 산신, 칠성, 입구 약사석불, 5층석탑
- 공양간 27평(가건물) 별도, 입구방 5평(다락겸)
- 가액: 1억 6천만원(융자 6500별도)

011-842-6123

포 교 원 안 내
- 대구시내(지하철역 입구요지)
- 3층에 3층 37평(옥상단독사용)
- 법당(수미단,후불,신중,산신,용왕,영단 최고시설)방1, 주방, 사무실, 화장실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53)795-3666

사 찰 양 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맹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 · 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1-455-10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사찰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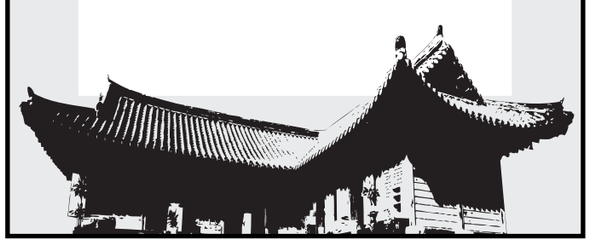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성군이 다스리는 나라는 없나

잉어를 화폭에 담은 그림 약리도(躍鯉圖)


약리도(躍鯉圖)

어릴 적 충남 부여(扶餘) 쌍북리에 있는 조룡대(釣龍臺)에 얽힌 백마강(白馬江)에 관한 전설을 들은 적이 있다. 조룡대는 한 사람이 겨우 앉을 만한 크기의 작은 바위이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함락한 어느 날, 대왕포(大王浦) 하류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 바위나루(규암진, 窺巖津)를 지나 낙화암(落花巖)까지 정박해 있던 수백 척의 당나라 병선이 갑자기 전복하고 말았다. 소정방은 갑작스런 괴변이 왜 일어났는지를 천지를 관측하는 관상관(觀象官)에게 물었다.

관상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백제를 지키는 호국룡인 강룡(江龍)이 백제가 정벌당한 것에 진노해서 당나라의 군선들을 파괴한 것이라고 하여, 강룡을 제어할 방법을 묻자, 백마를 잡아 그 머리를 미끼로 해서 잡으면 된다고 권고했다.

그래서 소정방은 쇠줄로 낚시줄을 만들고, 말머리를 미끼에 꿰어 백마강에 낚시를 드리우자 말고기를 좋아하는 용이 그 미끼를 물어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훗날 사람들은 그 바위를 조룡대라 이름 짓고, 금강(錦江)의 줄기인 부여 부근 일대의 강을 백마강이라 불렀다는 고사(故事)가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여현(扶餘縣) 고적조(古蹟條)에 전한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자로 적을 때 '어룡(魚龍)'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소정방이 어룡을 낚은 것을 뒷날 잘못 전하여 용을 낚았다고 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들이 많다.

또 다른 전설은 일제시대 조룡대에서 낚시를 하던 마을 사람이 커다란 잉어를 낚아서 팔기 위해 지게에 지고, 장으로 팔러 가는 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칭찬하고, 어디로 갖고 가느냐고 묻자, 놀랍게도 지게에 얹힌 물고기가 장에 팔러간다고 스스로 대답하자, 지고 가던 낚시꾼이 깜짝 놀라서 다시 강에 가서 놔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야사(野史)에 의하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자결한 시종무관장 민영환(閔泳煥)님의 집 정원에는 오래된 연못이 있었는데, 백년이상 나이를 먹은 늙은 잉어가 몸에 수풀을 붙이고 이리 저리 헤엄치고 있었다고 한다.

잉어가 붕어와 다른 점은 몸에 십자문(十字紋)의 비늘이 있고, 입에 두 쌍의 수염을 달고 있는 것이 큰 차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徐有榘)선생이 쓴 어류학(魚類學) 책인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리어(鯉魚)라고 하였으며, 본문 가운데 '어명고(魚名攷)에 잉어가 十자 무늬(文理)가 있기 때문에 이(理)에서 리(里)를 취해 어(魚)와 덧붙여 리(鯉)자를 만든 것이라 설명한다.

잉어는 동양에서도 오랫동안 양식을 한 기록

약리도는 황하 중류 용문 설화 근거
중국과 달리 한국 약리도엔 태양이

이 있는데, 그 역사가 오래되어서, 기원전 약 500년경의 중국문헌 양어경(養魚經)과 우리나라의 문헌에도 잉어 양식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약리도는 황하(黃河)의 중류인 산서성(山西省) 하진(河津)에 위치한 용문(龍門)이라는 곳에 얽힌 전설에 근거한다. 수많은 잉어들이 모여 거센 물살을 헤치고 용문이라는 바위를 넘으려 하는데, 넘는 잉어는 용으로 변해(어변성룡, 魚變成龍) 하늘로 승천하고 오르지 못한 잉어는 떨어져 죽거나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등용문(登龍門)의 고사이다.

한국의 약리도가 중국과 다른 점은 바다에 뜬 태양을 그린다는 점인데, 태양은 아마 성군(聖君)을 상징하는 듯 하다. 우리 나라 만원권 세종임금 뒤에 그려진 일월곤륜도(日月崑崙圖)의 해와 달이 임금과 왕비를 의미하며, 그림병풍만 있을 때는 그림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임금이 앞에 앉아야 완성된 그림으로 본다는 재미있는 말이 있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어쨌든 태양과 같은 성군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극락세계 뿐일까?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산사의 아침




편집국 사진부 차장

안개가 숲을 깨운다. 잠들었던 나무와 풀들이 눈을 뜨고, 어둠에서 잠을 깬 산새는 지붕 위에서 아침을 기다린다. 새벽종이 닦아놓은 마당으로 아득하고 아득했던 태양이 다가온다.

산사에서 잠을 깬 어느 날 아침. 빈손의 아침은 영화로웠던 어제보다 컸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지붕 위의 산새가 곁에 없는 도반보다 가까웠다. 먼 길을 왔어도 다시 가야 할 길이 있고, 백팔 번 절을 하고도 부처님은 볼 수 없었던 그 아침. 그렇게 산사에서 맞은 아침은 어쩌다 꾼 꿈같았다.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야 하는 시간. 삶을 이어가야 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안개 속의 나무와 풀도, 지붕 위의 산새도, 멀리 있는 도반도, 모두 아침을 맞았다. 외면할 수 없는 삶, 그 속에서 또 한 번 피할 수 없는 시간, 아침. 산사의 아침은 그렇게 '나'를 깨웠다.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무용수연 선사의 '또 강남군수에게 드림[又呈江南府伯]'

무용(無用)의 대용(大用)

吾觀萬物不齊也 (오관만물부제야)
太岳秋毫各具天 (태악추호각구천)
鳧鶴短長誰使爾 (부학단장수사이)
鷗烏黑白亦如然 (구오흑백역여연)
夢中說夢眞堪笑 (몽중설몽진감소)
牛背尋牛不足言 (우배심우부족언)
高下從來無二矣 (고하종래무이의)
古人曾已詠魚鳶 (고인증이영어연)

내 보니 만물 똑같지 않아
태산과 가을 털 각기 천성 갖추었네.
오리와 학 짧고 김 누가 그리 시켰나
갈매기와 까마귀 검고 흼도 그러하네.
꿈속에서 꿈 이야기 정말 웃기는데
소타고 소 찾는 것 말할 것 못되네.
높고 낮음 본래 둘이 없기에
옛 사람 이미 고기와 솔개를 읊었네.

부처님은 "본 것, 배운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집착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뒤떨어진 것으로 아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하물며 품 받은 천성을 두고 호오(好惡)나 우열을 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저 길가를 굴러다니는 돌이나 깊은 산속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풀잎 하나라도 각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아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유가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자연은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자연스러운 천성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억불이 자행되던 당시 위정자에게 자기의 색깔을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진리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적 차별이 자행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 것이다. '차이'는 종교적 이념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닌 세계가 이루어진 이치, 인간과 인간, 동물이 어우러져 살아가게 된 자연의 이치 그것뿐인 것이다. 종교적 이념은 그 이후의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무용수연(無用秀演; 1651~1719) 스님이 남에게 별로 가르쳐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자가 쓸모없게 된 이유라고 자신의 호를 설명한 것처럼 진정 무용(無用)의 대용(大用)을 보여 주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여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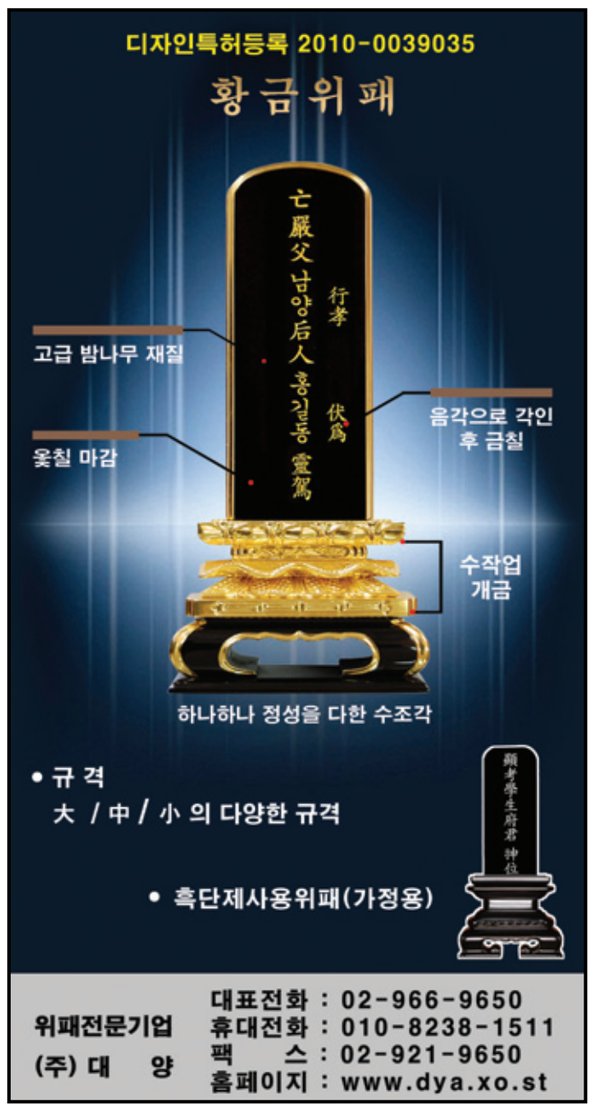


촛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 징
1.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2.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3. 코팅 광택약이라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4.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5.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여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 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863호 현대불교
2011년 11월 23일(음 10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이 마음도리 알려면 자기 주처에 놓는 작업부터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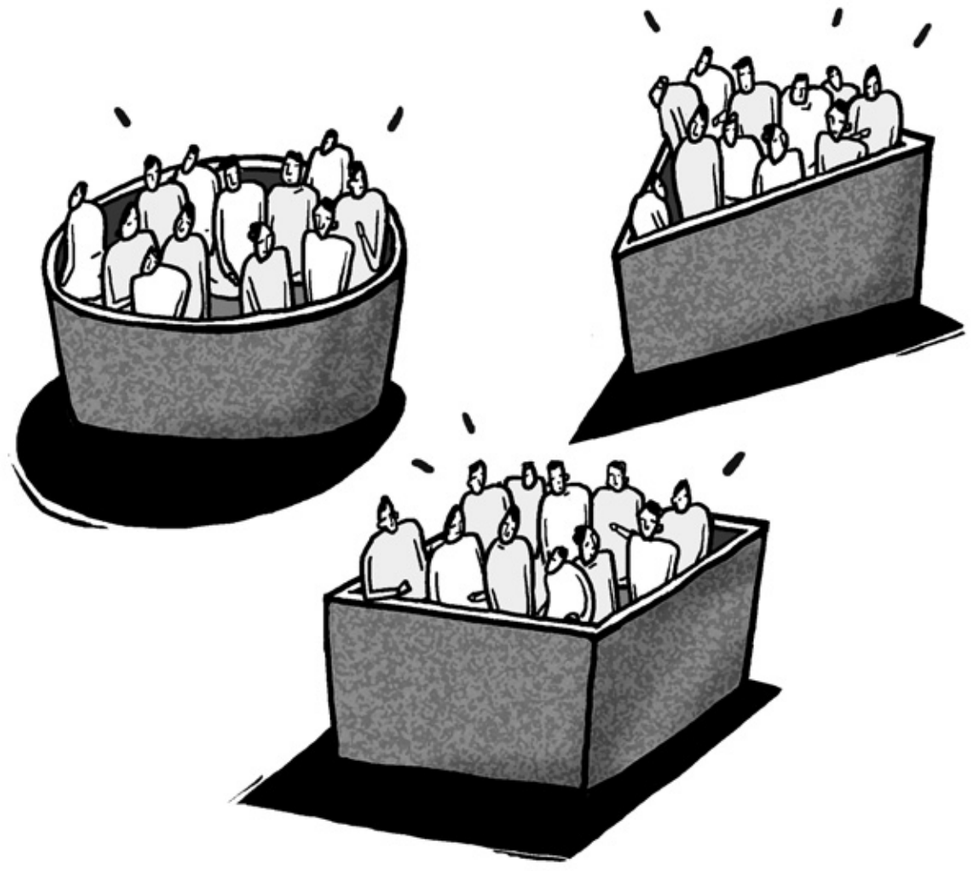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요

문)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만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 싶어 시간 나는 대로 스님 법문도 열심히 듣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얽힌 인연들로 인해 악한 마음이 끓어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는지요?

답) 지금 모든 상점을 봐도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놓여 있습니다. 금방에는 금이 놓이고 넝마전에는 넝마가 놓여 있습니다. 일체가 모두 차원에 따라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두 차원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차원대로 살고 있는 자체가, 지금 정자와 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바로 차원대로 엄마 아빠와 같이 이렇게 인연 따라 만납니다. 그런다면 엄마 아빠에게는 무엇을 받느냐? 몸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몸뚱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있으면 이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임신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임신이 되었다 하면 딱 몸을 하나만 받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하나가 난다면 바로 그 많은 수십억 마리의 그것은, 물질은 다 물로 흘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 물로 흘어져 버리고 바로 한 마리가 그 부모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거의 자기가 살던 그 업식, 악업 선업이 거기에 포함돼서 자기가 짊어지고 그 몸 가는 대로 바로 결부되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거만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고 · 집 · 멸 · 도 이랬습니다. 고덩어리.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왜 '고' 라고 그랬을까요? 악업 선업이 거기 포함해서 여러분 육신의 세포에, 인간에게도 이것이 혹성과 같아서 모든 세포가 법망에, 이 육신으로 봐서는 이게 법망입니다. 세균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세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악업 선업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인연이든 자식의 인연이든,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되고, 또는 짐승이 사람되고 사람이 짐승으로 퇴보되고, 병신으로 퇴보되고, 승화되고 이러한 인과가 모두가 접해서 거기에서 수십억 마리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즐거운 일도 생각이 나오고, 때로는 속상하는 일도 나오고, 때로는 아주 우환이 생기고 때로는 병고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이러한 것이 수없이 발산을 합니다, 그 악업 선업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환상에 속지 말라. 모든 거 거기에서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거기에 놔라. 이렇게 '방하착 하라' 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 되나? 우리는 모든 걸, 거기서 나오는 거든지, 또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든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도 있고 생활도 있고, 생존도 있고 부처도 있고, 모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먼저냐.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놓는다. 거기 맡겨 놓는다. 생활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안 하면 공덕은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타력 신앙으로 믿는 분들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복은 좀 받을지언정,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덕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그 업보를 녹일 수도 없거니와 이 모두를 놓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자기 이 모든 그 수십억 마리의 악업 선업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하게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내 주인공만이 나를 악하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잘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병신 안 되고 성한 몸으로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첫째 '나' 라는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내 주인공에 '나' 도 놓고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하나하나 놓으세요. 우리 육신 속에서는, 즉 말하자면 간장 공장이니 위 공장이니, 이자 공장, 방광 공장, 소장 공장, 대장 공장 이 공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내 마음, 그 지배인 사장은 항상 두뇌로부터 사대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놓는다면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진화돼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놓지 않는다면 자기가 악업 선업 지은 대로 독 안에 들어도 면칠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하나 용광로에 쇠를 넣듯이 그러면 쇠가 새 쇠로서 생산이 돼서 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중생들도 보살들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하고, 목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녹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철저하다면 우리는 아주 물이 없는 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물을 촉촉이 주는 거와 같은 겁니다. 돌을 골라내는 거와 같고, 체로 치는 거와 같고, 또는 풀 뽑아 버리고 고렇게 해서 물을 잘 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갈라지지도 않고, 손색이 없이 싹이 나와서 바로 발현이 돼 가지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물을 먹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을 깨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면서 그 뼈저린 삶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이렇게 되었다면 이 도리를 꼭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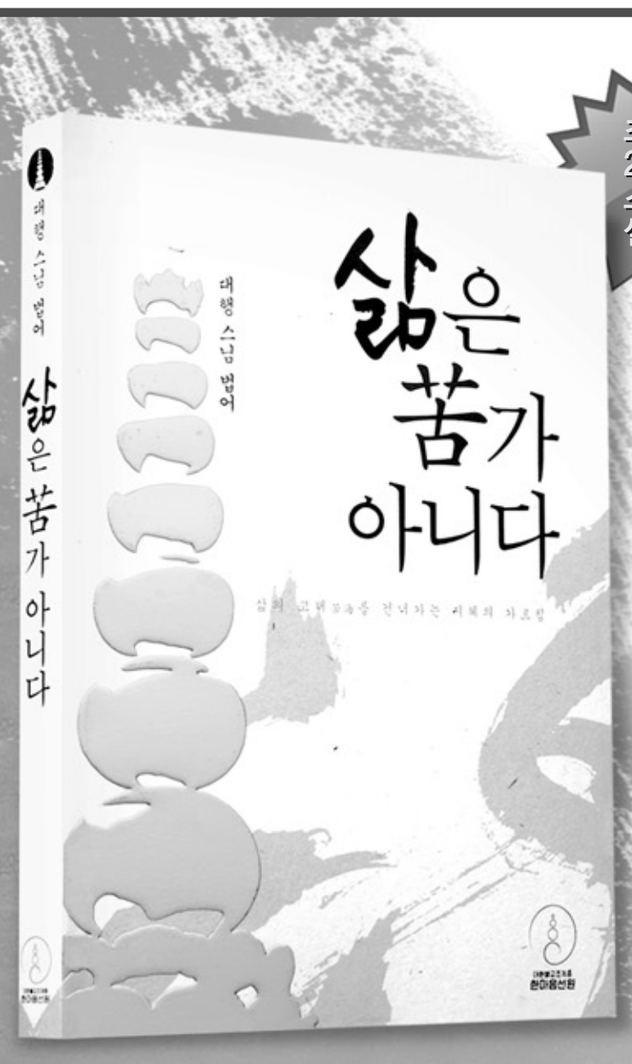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요

문) 예전에 집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보니 남의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훔쳐다 고픈 배를 달래 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때 훔친 죄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는지. 사실 지금도 사는 게 고달프기만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는지요?

답) 우린 일생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면 부자대로 속이 썩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괴롭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보물 같은 거를 지니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그 보물들이 따라갑디까? 바로 방문 안에서 고합니다. 방문 안에서 "잘 가라 얘, 언제 봤더냐!" 하고, 그래서 보물더러 "너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하니까 보물은 "네가 좋아서 나를 따랐지 내가 좋아서 너를 따라간 게 아니지 않으냐." 하고는 방문 안에서 고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바로 대문 안에서 고합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따라가지도 못하죠. 권세가 아무리 높고 친척이다 부모다

☞ 30면으로 계속

초판 22쇄의 스테디셀러!!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불을 게 있겠습니까!

☞ 29면에서 계속

자식이다 하더라도 동구 바깥에서 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엄마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를 비롯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삼합이 혼합이 될 때에 이 업식도 그 영혼에 따라서 첨보가 됩니다. 첨보가 돼서 바로 인간이 형성된다면 그 또 역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죄 지은 것을 부르짖지 말고 현실에 나오는 것을 소멸시키면서 자기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 역점을 둬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이 어쩌다가 남의 파밭에 들어가서 밭을 못 쓰게 만든다 할 때에 고삐를 탁 쥐면서 '야, 너 그 남의 파밭에 들어가서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하고 탁 채는 그 마음이 바로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모든 일체 내가 살아나가는 거, 일거일동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안되는 거는 바로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선 굴려서 놓는 겁니다. 돌아가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굴려 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마음 도리를 알려면 자기 주처에 놓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를 형성시켰고 자기를 이끌어 가지고 다니는 자기 주처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 주처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 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악을 초월하는 공부라지만…

문) 이 마음공부가 아무리 선·악을 초월하는 공부라지만 악한 인연을 만났을 때 선으로 대하기란 너무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좋을까요?

답)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전력은 있는데 이 가설만 만들어 놓고 전력이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세상만사가 전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다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을 켜는데 그쪽에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겁니다, 나하고 벌써 근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탁 맡겨 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만나걸랑 부드럽게 말해 주시고요. 뭐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그럽니까. 모두 가지고 갈 건가요? 내 몸뚱이도 버릴 텐데 뭐 가지고 갈 게 있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그래야만 합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 재산을 하늘땅만큼 가졌다 하더라도 내 이 진실한 마음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주인공,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주인공에 다 맡겨 놓고 부드럽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저 규합돼서 얼굴 붉히지 않고 살게 해 주는 것도 너 아냐? 이 영원한 친구야!' 이렇게 하세요. '한마음 친구야!' 이래도 좋고요.

그런데 선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이 되지.' 이런 생각조차도 그냥 다 놔요. 행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그 만 가지, 당신 나무에서 익은 실과가, 한 실과가 만 가지 맛을 낼 때 그 즐거움이란 말로 못해서 누군가는 하늘을 보고 한 나절을 웃고 땅을 보고 한 나절 울었대요. 어때요? 그래서 앞뒤 터진 대피리 소리는 우주 법계를 두루하더랍니다.

좀 그렇게 무조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거를 그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거라면 공부할 수 있겠죠.

>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뭐 불을 게 있겠습니까.
>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나오는 대로
>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하나하나 놓으세요.
> 다 거기에 놓는다면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진화돼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거기 놓지 않는다면
> 자기가 악업 선업 지은 대로 독 안에 들어도 면칠 못하고
>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고, 망상이라는 것도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참나를 발견하게 이끌어 주는 바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망상이라고 하는 관념 그것도 놔 버려야죠. 아,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분별이 없으면 목석인데 목석이 돼도 아니 되니까 분별을 하더라도 분별을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망상을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만이 열반으로 직결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게 괴롭게 사시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거죠.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났다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진데 옷 벗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나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아요

문) 안녕하세요. 현대불교에 실린 스님 법문을 항상 애독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딸 둘 낳고 한동안은 다복하게 살았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달래 보았지만 저로서도 버겁습니다. 어찌하면 좋을는지요.

답) 여러분 가정에 화목을 가져 오는 데는 속이 상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못하든 남자가 잘못하든 어떠한 거를 무릅쓰고 '아!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을 못할 거야.' 남편이 술을 아주 과하게 먹는다거나 또 안 들어온다거나 또는 성질이 이상해서 그렇다거나, 또 병이 들렸다거나 그래도 '당신밖에는 해결 못해. 당신이 해결할 수밖엔 없어.' 하고선 그냥 거기다 맡겨 놓고 말로는 좋게 해 드리세요. 언제나 따뜻한 데 사람이 고이게 돼 있지 냉랭하고 추운 데 고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질 못하고 만날 만나면 싸우고 좋은 말 안 나가고 이렇게 되니 가정이 뭐가 따뜻하겠습니까. '아, 들어가면 또 그럴 걸.' 하고 또 나가 버리죠.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이리저리 풀다가 들어오거든요. 바깥에서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에 와서 풀어야 할 텐데 그렇질 못하다 이겁니다.

그 뜻을 아주 잘 짐작하세요. 언제나 사랑하면서 이 말로 좋게 얘길 해 주면, 아무리 속 썩이는 말을 하고 속 썩이는 일을 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보, 당신 참 피로하지요." 하고서 좋게 얘기해 주고 주인공에다가 하소연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척 잘못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번연히 알면서도 좋게 말해 주거든. '이거, 이거 내가 자중할 수밖에 없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럭하다 보면 '아! 이거 안되겠구나.' 그때는 사랑이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따뜻한 가정으로, 피로하면 자꾸 따뜻한 데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탓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나는 어떤 때는 그럽니다. "야, 네가 때에 따라서는 여자도 됐다가, 또 동생도 됐다가 누이동생도 되고 딸도 되고 어떤 땐 할머니도 되고, 어머니도 돼 드려라. 그렇게 안 하면 따뜻하질 못해서 때에 따라서 속상하면 나가게 돼 있다. 그런데 나갔다가도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야. 속상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을 수 있겠느냐." 그러죠. 사람이 화목하게 질서 있게 또는 능력 있게 자유스럽게 아주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진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거 참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면 화목한 회전이 돼서 여러분이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 배도 제대로 못 올렸는데…

문)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절에는 가끔씩 가곤 합니다. 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법당에 가서 부처님 전에 삼 배를 올리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절에 갔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삼 배도 제대로 못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좀 걸렸는데 그래도 삼 배는 제대로 해야 올렸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답) 어느 법당에 가더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칠 배를 해도 좋고 백팔 배를 해도 좋고 삼 배를 해도 좋고 그렇지마는 상황이 급할 때는, 이게 융통성이에요. 상황이 급할 때는 일 배를 하면서도 삼천 배 한 값어치가 나오죠. 상황이 급할 때는 내가 일 배로, 삼천 배를 일 배로 규정을 지으란 말입니다, 둥글려서. 둥글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부처님의 모습도 내 모습, 부처님의 생명도 내 생명, 부처님의 뜻도 말씀도 다 내 뜻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나와 부처님, 일체제불 모든 걸 둥글리라는 거죠.

보통 법당에 가면 또 많이 모셔 놨죠? 그러면 사람이 공부하는 데 너무 어지러워서 오히려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놔야 하고 저기도 놔야 하고, 지장이니 관세음이니 이렇게 모두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칠성부처도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해신이나 그 산신이나 이런 것도 따로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하나에 전부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다리가 아프다 할 때 이런 공부를 아주 깊이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아이구, 다리야파.' 하고선 이렇게 손을 대면 보현의 손이 돼 버려요. 아시겠어요? 보현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겨서 '아이구, 이거 주인공,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관을 하면 그냥 한 찰나에 관세음보살로 화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의 의식들이 전부 그 공부를 하는 데 다 같이 따라 주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조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건지니 그 보살의 이름들이 다 근본은 하나로다. 그러니 그 근본에서는 모든 보살이,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 회장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다 그 회사 직원이지 딴 직원이 아니거든요. 사장 대리로, 회장 대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그 마음속에서 보살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생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게 부처인데 자기 마음을 내놓지 않으면, 보살로 내려놓지 않으면 일을 못하겠거든요. 무의 법에 의해서 공법으로, 평등공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보살이라는 이름을 자기 그 마음속에서 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명이 짧으면 칠성부처님한테 갖다 놓고 빌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로 못 가면 지장보살한테 갖다 놓고 빌어야죠? 무슨 일이 안되거나 그러면 관세음보살한테 가서 놓고 빌어야죠? 일이 엉망으로 됐을 땐 신장한테 갖다 놓고 빌어야죠? 이렇게들 하면 공부하는 데는 아예 그 근처에 가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신장이든 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칠성보살이든 주해신이든 주산신이든 내가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면 한 가지만 가지고 전부 둥글리세요. 마음으로 전부 둥글려서 일 배를 해도 통신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통신이 안돼요. 이 세상에 나오고 멸해서 가고 하는 그 교차로의 구멍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대로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저승을 탐험하고 무의 세계를 탐험하려면 그 구멍밖엔 없거든요. 여러분의 그 보배라는 그 자체가 나고 들고 나고 들고 하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큰일이 생기면요, 일체제불이 우주와 삼세 세계와 전부 하나로 통신이 돼서 찰나찰나 이렇게 나고 들어요, 이 공부 한 사람들은. 그러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노력하지 말고 안 보이는 50%를 마저 채워서 100%를 만들도록 해 보세요.

법당 및 사찰 전각 마루 불사

틀어지거나 파손된 마루바닥을 시공초기의 모습으로 시공 및 복원합니다.
10여년간 각 시도 대형 체육관 및 관공서, 학교, 공연장 등 나무로 되어있는 **마루를 원목 그대로 살려 코팅하는 업체**로서,
이제 佛緣을 입어 스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양 작업 *마루철거 및 하부 보강 *샌딩 마침 *틈 메꾸기 *도정작업 2회 *완료

법당 및 요사채 등 온돌이 필요한 곳에 안전하고 빠른 시공 설치 하여 드립니다

원목 온돌마루 강화마루 필림온돌 전기온돌

밝은세상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74-28 2층 | 전화 02)433-5121 / 011-309-2119

불자 세상보기

소통은 방식 아닌 내용에 달렸다



이강렬
극작가 · 경기대 인문대학 겸임교수

"SNS, 자유로운 소통이 강점으로 새로운 관계문화 형성에 기여해 그러나 결국 수단에 그칠 뿐이지 소통의 주체 · 본질 자체는 아니야"

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변화와 소통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소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지칭한다.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스페이스와 우리나라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링크나우 등에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관계지향 서비스로도 불린다.

한편으로 이것들은 온라인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기능과 개인이 중심인 미니홈피와 미디어 성격이 강한 블로그 서비스를 확장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온라인 카페보다는 개인적이고 미니홈피보다는 확장성이 강점이다. 이러한 새로운 소통 채널이 인간관계 전반을 바꿔 놓고 있다. 가히 커뮤니케이션 혁명으로 불리며 스마트한 세상을 앞당기고 있다. 기존의 PC 중심에서 휴대폰, 스마트패드 나아가 안방의 텔레비전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소통의 역사를 다시 쓰는 셈이다.

특히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미디어의 성격이 강해 소셜 미디어로 분류한다. 흔히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전통적인 4대 미디어로 부른다. 그러나 IT가 발달하면서 떠오른 새로운 미디어는 온라인과 디지털 그리고 소셜 미디어로 나타난다. 참여나 연결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경험 따위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되었다. 어떻게 보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출현하면서 소셜 미디어라는 장르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열광하는 것일까. 지금껏 개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소통 방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식산업 사회로 오면서 지구촌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해졌다.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 대중화와 맞물려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든 것이다.

기존의 인간관계는 혈연내지 지연이나 학연이 대세였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도 친구나 가족과 직장동료들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나마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에서 조금은 인맥을 넓혀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 또한 범위가 좁고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생기면서 카페와 커뮤니티가 새로운 관계 문화를 주도했다. 여러 가지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 준다. 손쉽게 자신과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일차적으로 '나'라는 개념이 생기고 여기에 서로 다른 개인들과의 연결이 형성되고 이들을 통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미디어이며 커뮤니티 공간인 동시에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참가자가 서로 다른 친구를 소개하며 관계를 확장시켜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 자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선거와 같은 공공적 선택에서 느슨한 인맥이 갖는 힘은 사실 그리 크지 않다. 더욱이 투표는 부담감 없는 익명 행위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에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요청된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스타일이고 목소리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양식이기도 하다. 인연이나 인맥을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네트워크다. 이제는 일반 대중도 현실과 시대 변화의 흐름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이든 핵심은 전달방식이 아닌 전달한 내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칼럼

현대인을 위한 강력한 정신치료제 만다라



김영옥
만다라미술심리 연구원장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실천행 작업과 맞물려야 원동력 발휘 원의 중심에서 생성된 일체 알면 생명에 눈뜨게 되고 우주 보인다"

만다라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우주의 진리이자 원형(原型)이다. 앞으로 현대인들에게 마음과 정신건강의 강력한 치료제 역할로서 다가 설 것으로 생각한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로 세상의 변화에 맞물려 자신의 차원변화를 꿈꾸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만다라 작업에서 얻은 체험을 소개해 볼까 한다.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지구전체가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온몸으로 감지 한 바, 만다라작업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수정하며, 정화되는 가운데 조금씩 자신을 알고 남을 이해하게 되었다.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으로 시작한 만다라작업은 우주 대 탐험의 현장이 되었고, 가장 집중을 요하는 전각(篆刻)기법으로 꿈의 상징을 새겨서 하나하나를 찍어 연결되는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연출했다. 그리고 고해를 넘어 거대한 빛의 세계까지 심오한 중층의 내면세계를 풀어내면서 생명의 근원을 만났다.

하나가 있어 전체가 있고, 전체가 있어 개별이 존재하듯이 큰 수레바퀴의 원동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히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실천하는 삶과 연결되어야만 했다. 소소한 가정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까지의 실천행이 작업과 맞물려야만 그 원동력이 크게 발휘되기 때문이다. 온정의 손길과 따뜻한 입김으로 세상에 서서히 스며드는 것은 작은 바퀴살들의 형성 과정이라 느꼈고, 세상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그 느낌을 작업과 일치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나하나의 작은 바퀴살들이 모여 이 거대한 우주의 수레바퀴를 이루게 됨을 만다라작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 처음 만다라를 그릴 당시에는 원 가운데 한 점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그 원의 중심에서 생성되는 일체가 대 생명력의 빛으로부터 눈을 떠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체의 생명이 잉태될 때의 그 온전한 모습은 성별도 이름도 없이 똑같다는 것. 세상에 태어나 너, 나 분별은 있으되 생명의 싹을 거슬러 올라가면 근본적으로 하나였음을 알게 됐다.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면 우주와 일치를 이루며, 사람의 마음에도 드넓은 우주가 깊게 자리하고 있어 인류가 숨쉬는 공동의 장이 된다.

무의식을 일깨워 차원 변화로 거듭나 실현하려고 했다. 자신을 넘어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마음이 되어 실천의 경험들을 통해서 참된 삶을 걸어가도록 노력했다. 작업 시작과 마무리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데 게을리 하지 않았고, 차원을 끌어올리는 과정에도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추구하는 예술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며, 그것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 안에서 정신의 본질을 끊임없이 되찾아야만 실현의 길로 접어든다고 생각한다.

명상집 〈붉음의 화두〉란 주제로 만다라를 제작하면서 광명정대한 천성과 슬기로운 창조력, 끈질긴 생명력을 발견했다. 앞으로 이 뜻으로 하나 된 세상을 밝혀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고요한 동방의 빛으로 무한한 자유와 세계평화를 꿈꾸며 다채롭게 풀어 낸 그림세계는 새로운 만다라 창작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社說

불교포럼에 거는 기대 크다

조계종이 사회 각계 재가 전문가를 결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불교포럼'으로 명명된 이 단체는 기존 종책 자문단을 확대해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김희옥 동국대 총장, 박진열 한국일보사 사장, 김종규 삼성출판사 명예회장, 최용림 육군중장 등 법조 행정 경제 교육 등 14개 분야 저명인사를 모아 2012년 1월 31일 발족할 예정이다.

이들이 맡은 역할은 불교적 가르침에 입각한 사회 공동선 구현,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생명평화 공동체 구현, 분쟁과 갈등 조정을 통한 화쟁사회 구현, 뭇 생명을 위한 나눔의 보살행 실천,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전통문화 보존 등이라는 것이 조계종의 설명이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다.

불교계는 이미 조계종 총무원이 꾸린 화쟁위원회를 알고 있다. 그것이 결사추진본부로 구조조정된 것도 목격했다. 이번 불교포럼 또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상공업 중심의 자본가가 승가를 외호했다. 이번 불교포럼 구성 역시 액면가대로라면 재가자를 결집해 불교 및 종단 발전의 조력자로 삼은 것으로 참으로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불교계와 종단 전체를 아우르는 큰산이 아니라 총무원 집행부만을 케어하는 사조직이 돼서는 안된다. 재가 저명인사의 신심을 악용해 승가 전체가 아닌 특정스님 몇몇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민원 통한 정책 변화는 한계가 있다

취임 이후 조계종을 첫 예방한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조계종이 민원을 쏟아냈다. 문화재위원 장적 스님은 "문화재청에 불교문화재 전담인력이 없다"며 "사찰문화재과와 문화재 개보수 전담반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부장 진명 스님과 기획실장 정만 스님도 각각 문화재 예산 균형과 연등회 국가문화재지정을 요청했다.

스님들의 발언은 구구절절하게 옳은 요청이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많다. 옛사람의 말씀 가운데 "저절로 되게 하라"는 말도 있는 것을 보면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가운데 불화, 탱을 도(圖)로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의 동의도 거쳤다고 했다. 문화재 행정의 결정은 문화재청 실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작 큰 그림은 문화재위원들이 그리고 있다. 문화재위원 가운데 불교계 관련 인사 수가 적다보니,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불교계 행보에 적잖이 걸림이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화재청장을 향한 조계종의 민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원은 민원일 뿐, 정책의 주류가 될 수 없다. 또 다른 민원과 상충하면 묻히고 사라지는 것이 민원인 것이다. 인맥으로 큰일을 도모하려 해서는 안된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교포럼을 비롯한 조계종의 많은 인연들이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닌 정책연구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누가 총무원을 예방해도 '차나 마시고 갈 수 있는[喫茶去]' 그런 조계종이 되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산사와 주련



산사와 주련 은 부처님 말씀이나 대선사님들의 게송으로 주옥처럼 빛나는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접근과 이해가 어려워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산사와 주련』 달력은 이런 현대인들이 주련을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또한 당대 서예가들의 명필글씨를 그대로 옮김으로써 주련의 의미와 감동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 질 : 스노우화이트지 **제 본 :** 트윈스프링

가 액 : 6절 30.5㎝ **1,700**원 (100부 이상 사찰명 인쇄)
12절 25.5㎝ **1,500**원 (100부 이상 사찰명 인쇄)

주문 후 배송까지 7일이 소요됩니다.

주문전화 02) 2004-8216



























